

국립국어원 2007-3-3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소개

설 립 목 적

▶ 우리나라 어문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을 주관하고, 국어사전 편찬으로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의 국외 보급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조 직

원 장	기 획 관 리 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혁신 관리, 감사 및 사정 업무에 관한 사항 한글날 기념행사 및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언 어 정 책 부	◆ 국어정책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국어 순화, 전문 용어 표준화 국어 정책 연구 사업 관리/ 남북 언어 통합, 국어책임관 등 ◆ 국어정보화팀 국어 정보화 촉진 사항/ 연구 결과 전산화 및 DB 구축 자료실, 전산실 운영 관리
	국 어 생 활 부	◆ 국어실태연구팀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대중 매체의 언어 공공성 향상 ◆ 홍보출판팀 대중 매체를 통한 국어 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각종 조사 연구 결과와 간행물의 출판·발간
	국 어 진 흥 부	◆ 국어진흥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국어문화학교 시행 국어상담소 지정, 운영 지원 / 소외 계층의 국어 사용 지원 ◆ 한국어보급팀 세종학당 설립 /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 능력 검정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지원



인원

학 예 직	일반행정직	기 능 직	계
27명	9명	8명	44명



하는 일

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사업

「국 어 기 본 법」

'05년 1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33개조(전문 27개조와 부칙 6개조)로 구성. '05년 7월, 동법 시행령 제정

※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8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법 제9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다. 국어책임관 지정(법 제10조)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어문 규범 영향 평가 등(법 제11조, 제12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문규범의 현실성,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마. 공공 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법 제14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함.

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등(법 제17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사. 국어의 보급 등(법 제19조)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아.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법 제22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자. 국어능력의 검정(법 제23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차.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법 제24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국어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

<국어책임관의 업무 범위>

- 공공기관 내 국어사용 개선을 위한 업무
 - 쉽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 다듬은 행정 용어·전문 용어 사용 장려
 - 국어책임관 관리 및 지원
- 지역 주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업무
 -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
 - 지역의 언어 경관 개선
 - 지역의 언어문화유산 보전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부처·기관>

- 18개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 4개 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16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그 밖(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 전국적인 국어 생활상담망 구축을 위한 국어상담소 지정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인 국어 생활 상담망을 구축함. 현재 전국 14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

전국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2007.3. 현재)

지 역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소장)	연락처
서울·경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팀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www.korean.go.kr	정호성	02)2669-9732 02)2669-9726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702호 http://www.barunmal.org	남영신	02)738-949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 627호 http://munjang.net	박창원	02)3277-3250, 4056
	한국방송공사 국어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http://korean.kbs.co.kr/main.php/	박영주	02)781-3838
강원도	강원대 국어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남기탁	033)252-4253 250-8120
충청북도	충북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http://korean.chungbuk.ac.kr	조항범	043)261-2099 261-3450
	청주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www.koreanlab.or.kr	김희숙	043)229-8319 229-8311

지 역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소장)	연락처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http://korean.smuc.ac.kr	구현정	041)581-2530 550-5391
전라북도	전주대 한국어 문화교육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소강춘	063)225-6115 220-3061
광주· 전라남도	전남대 국어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http://kor.chonnam.ac.kr	서상준	062)530-2413 530-2417
대구· 경상북도	경북대 국어생활상담소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370 http://www.knukorean.knu.ac.kr	홍사만	053)950-5106 950-7498
	영남대 국어생활 상담연구센터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http://oark.yu.ac.kr	서종학	053)810-3192 810-3561
부산· 경상남도	동아대 국어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시하구 하단2동 840 http://kor.donga.ac.kr	하치근	051)200-7025 200-7180
	경상대 국어문화센터	경남 진주시 기좌동 900 http://ckc.gsnu.ac.kr	김용석	055)751-5581 751-6195
제주도	제주대 국어상담소	제주도 제주시 아래동 1	강영봉	064)754-2715 754-2710

3. 국어문화학교 운영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운영함. 특히 2007년부터는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목적과 수준의 수요에 대처할 예정임.

－ 교육 과정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교사 직무연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참조
- 향후, 원내에 맞춤형 국어전문교육과정 수시 개설 예정

※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좌 신청 안내

원내 국어문화학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기관·단체에서 신청하면 요청 장소로 강사와 교재를 보내 강의 제공(수강생 30명 이상, 날짜와 시간, 과목 등은 사전 협의)

§ 문의: 국어문화학교 사무실(전화: (02)2669-9752, 9729, 9736 전송: 2669-9747, 9787)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원내외) 연도별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	계
원내 국어 문화 학교	과정 개설	22개반	25개반	29개반	30개반	30개반	32개반	56개반	224개반
	수강 인원	1,292명	1,452명	1,486명	1,458명	1,765명	1,921명	2,300명	11,674명
찾아 가는 문화 학교	강의 횟수	123회	185회	157회	176회	195회	190회	190회	1,216회
	수강 인원	15,412명	16,970명	17,890명	16,332명	15,655명	12,926명	13,000명	108,185명

나 대국민 편의 제공

1.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자료 검색 가능.

2. 국어 생활 편의 제공

- 가나다 전화(02-771-9909) 월~금 매일(09:00~18:00) 전화 상담원이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운영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묻고 답하기’에서도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발간함. 국어원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2003년 봄호부터 유가지로 출간.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매일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운영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차례

1 한글 맞춤법 Ⅱ 안 효 경	3
2 띄어쓰기 Ⅱ 문 숙 영	15
3 표준어 규정 Ⅱ 안 효 경	29
4 표준 발음 Ⅱ 이 혁 화	39
5 외래어 표기법 Ⅱ 김 수 현	53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Ⅱ 권 미 영	63
7 언어 예절 Ⅱ 전 수 태	73
8 흔히 잘못 쓰는 말들 Ⅱ 여 규 병	101
9 공문서 바로 쓰기 Ⅱ 이 정 미	115
10 우리말 다듬기 Ⅱ 박 용 찬	129
11 법조문의 국어 순화 Ⅱ 허 철 구	149
12 화술 훈련 Ⅱ 황 인 우	173
13 대화와 인간관계 Ⅱ 전 정 미	181
14 국어생활의 쟁점 Ⅱ 김 진 해	199
15 청소년 언어문화의 이해 Ⅱ 박 종 호	227



한글 맞춤법

안 효 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리 나는 대로 쓰기와 원래의 형태 밝혀 적기

- 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 꾀니피 바라메 혼날린다.
- 꽃도, 꽃만, 꽃이 / 꼬또, 꾀만, 꾀치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

2. 두 마리 토끼 - 읽기 쉬운 표기법과 쓰기 쉬운 표기법

-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소리대로 적는’ 원칙만 따른다면 ‘꼬출 꺾따’와 ‘꾀만 꺾따’의 ‘꼬’와 ‘꾀’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꽃’이라고 같은 표기로 적기 때문이다. 만약 ‘소리대로’라는 원칙에만 따라 ‘꼬출, 꾀만’이라고 적는다면 ‘꼬’와 ‘꾀’이 같은 말임을 알아보는 데에, ‘꽃’이라고 하나로 적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움을 알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말하는 어법이란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로 적는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I. 소리에 관한 맞춤법

1. 된소리 제대로 표기하기

1-1. 머리를 싹둑(?) 잘랐다.

‘ㄱ’이나 ‘ㄷ’ 받침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든다. 따라서 ‘ㄱ, ㄷ’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된소리가 나는 ‘싹둑, 법석’은 ‘싹둑, 법씩’으로 적지 않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진수는 땅바닥에 {털석/털씩} 주저앉고 말았다.
 - (2)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산뜻해지는/산뜻해지는} 듯하다.
 - (3) 장인어른에게 {넙죽/넙쭈} 절을 했다.
 - (4) 계속 {쑥덕/쑥떡}거리는 사람에게는 쑥떡을 하나 주어라.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몹씨 화를 내셨다.
 - (2) 빨래터에 새색씨들이 웅기중기 모여 빨래를 하고 있다.
 - (3) 친구가 갑짜기 울음을 터뜨렸다.
 - (4)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바로 우리 마을의 보배랍니다.

1-2. 눈에 눈썹(?)이 잔뜩 꺾다.

‘눈썹, 눈썰’은 ‘눈’과 독립적인 말인 ‘썹’과 ‘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비록 [눈썹], [눈썰]로 소리 나지만 ‘눈썹, 눈썰’로 적지는 않는다.



2. 두음법칙 적용하기

2-1. 뇨도염(?)에 걸렸다.

단어 첫머리에 ‘ㄴ, ㄷ’이 오는 것을 꺼리는 두음 법칙에 따라 한자음 ‘녀, 뇨, 뉴, 니’ 또는 ‘랴, 려, 례, 료, 류, 리’는 단어 첫머리에서 ‘ㅇ’으로, ‘라, 래, 로, 뢰, 루, 르’는 ‘ㄴ’으로 된다. 그러나 ‘남녀’의 ‘녀’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나 ‘년, 리, 냥’과 같이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옛날이면 금 열 {양/냥} 값인데.
 - (2) {선동열/선동렬}은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 (3) 분위기가 너무 {냉랭했다/냉랭했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아들은 그 사이 늑늑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 (2) 그 공원에는 류관순 동상이 세워져 있다.
 - (3) 오늘은 김륜식 교수님을 찾아 뵈려고 한다.
 - (4)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낭낭 18세’이다.

2-2. ‘회계연도’인가 ‘회계년도’인가 잘 모르겠다.

‘會計 年度’는 한 단어가 아니라 ‘회계’와 ‘연도’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용어이므로 ‘회계 연도’로 표기해야 한다. ‘신년도’와 ‘신여성’은 단어의 구조가 서로 다른 말이다. ‘신년도’는 ‘신년’에 ‘도’가 붙은 말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 비해 ‘신여성’은 ‘여성’에 ‘신’이 붙은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종소리와 함께 대망의 {2000연대/2000년대}가 밝았다.
 - (2)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노동/중로동}이다.



(3) {구연도/구년도} 달력은 모두 창고에 갖다 놓았다.

(4) 역시 {고냉지/고랭지}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1) ‘실락원’이라는 책 읽어 봤어요?

(2) 항상 연말년시가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3) 남존녀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4) 그 자리는 경노석이니 앉지 마세요.

2-3. ‘성공률’이 맞는가? 아니면 ‘성공율’이 맞는가?

‘율/률’은 ____ 과 ____ 받침 뒤에서는 ‘__’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__’이 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1) 올해의 물가 {상승율/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다.

(2) 과일 음료수의 성분 중에서 실제 과일의 함량 {비율/비률}은 많지 않다.

(3) 그 분을 기리는 {충열탑/충렬탑}이 세워져 있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1) 1/2을 백분률로 바꾸세요.

(2) 우리 학과의 대기업 합격율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3) 여러 방향으로 분렬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2-4. ‘노동량’? ‘노동양’?

한자어 ‘量’과 ‘欄’은 앞말에 따라 ‘량’과 ‘양’ 그리고 ‘란’과 ‘난’이 된다.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양’이 된다. 그 이유는 ‘量’과 ‘欄’ 같은 한 음절의 한자어가 한자어 다음에 쓰일 때에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독자난/독자란}에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요.
- (2) 오늘 해야 할 {작업양/작업량}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 (3) 오늘은 {구름양/구름량}이 유난히 적은 날이라고 해요.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펜팔란에서 찾아 보세요.
 - (2) 칼숨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 (3) 날이 갈수록 감자 배분량이 적어지고 있다.

II. 조사와 어미에 관한 맞춤법

3. 어미 ‘-오’와 조사 ‘요’를 구별하자.

‘-오’와 ‘요’는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오’는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므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하여 ‘요’는 문장의 끝에 붙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이고 성립하면 ‘요’라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처럼 ‘이고’와 같은 뜻을 가진 나열형일 때는 ‘이요’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시오.
 - (2) 다 먹은 접시는 저를 {주십시오/주십시오}
 - (3) 아니, 이게 {뉘시오/뉘시오}?
 - (4)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아니오/아니요}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나는 의사가 아니요.
 - (2) 이것은 책상이요 저것은 책장이다.
 - (3) 말씀 낮추십시오.



4. ‘되다’와 ‘돼다’는 정말 혼동돼.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되어’로 풀 수 있으면 ‘돼’라고 할 수 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라’의 ‘돼라’는 ‘되-’ + ‘-어라(직접명령어미)’의 구조이므로 ‘되-’ + ‘-(으)라(간접명령어미)’의 구조인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의 ‘되라’와는 구별해야 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옆 사람에게 기대시면 {되요/돼요}.
 - (2) 그게 말이 {되느냐/돼느냐}?
 - (3) 그렇게 하면 안 {되/돼}.
- 잘못된 곳을 찾아 맞게 고치시오.
 - (1) 이제 참새만 그려 넣으면 돼죠.
 - (2) 제발 사람 좀 되라.
 - (3) 내가 그렇게 돼라고 빌었니?
 - (4) 그 일은 잘 되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이에요.

5. ‘-다’ 기본형 잘 찾기

☉ 손을 물에 담귀야(?) 한다.

‘담가야’의 기본형은 ‘_____’이므로, ‘_____’ + ‘-어/아’=_____이다.

[익힘]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문을 꼭 {잠가라/잠귀라}.
 - (2) 김치를 직접 {담가/담귀} 드세요?
 - (3) 예전에 수희랑 민수가 서로 {사궂대/사귀었대}.
 - (4)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치뤘다}.

6. 된소리가 나는 어미 바르게 쓰기 : 살게? 살께?

소리는 [살께]로 나지만 쓸 때는 ‘살게’로 쓴다. ‘살걸’, ‘살거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살걸’, ‘살거나’로 나도 적을 때는 ‘살걸’, ‘살거나’로 적는다. ‘내



가 살까?’, ‘내가 갈쏘냐’, ‘어찌 살꼬’의 경우는 소리대로 ‘-르까’, ‘-르쏘냐’, ‘-르꼬’로 적는다.

Ⅲ. 파생어와 합성어에 관한 맞춤법

7. 명사형 어미 ‘-(으)ㄴ’ 결합시키기

● ‘줄’이라는 표기가 맞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 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 있다. ‘먹-’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ㄴ’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줄-다’처럼 ‘ㄴ’ 받침을 가진 어간은 ‘-ㄴ’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ㄴㄴ’ 형태를 가지게 된다.

문

· 다음을 명사형으로 바꾸세요.

썰다 →	나누다 →	그립다 →
짓다 →	걷다 →	둥글다 →

◆ 쉬어가는 자리 1 : 자리 있음(?)

1988년에 어문 규범이 개정되면서 ‘-읍니다’는 ‘-습니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을 확대 적용하여 ‘있다’의 명사형도 ‘있음’이 아니라 ‘있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는 ‘-음’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 쉬어가는 자리 2 : 제게 계획이 {있아오니 / 있사오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사오니’의 ‘-사오-’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8.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 된 말 원형 밝혀 적기

‘오뚝하다’의 ‘오뚝’처럼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말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 ‘오뚝이’의 경우 ‘오뚝’이라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준



다. 이는 시각적으로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오뚝하다’의 ‘오뚝’과 ‘오뚝이’의 ‘오뚝’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신랑은 {배불뚝이/배불뚜기}이다.
- (2) 내 옷은 완전히 {누덕이/누더기}가 다 됐어요.

9. 부사화 접미사 ‘-이/-히’ 바르게 쓰기 : 버젓이? 버젓히?

부사의 끝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1) ‘이’로 적는 경우

- ① ㄱ받침으로 끝나는 순 우리말 뒤 : 깊숙이, 멀찍이
- ② ㅂ불규칙 용언 뒤 : 가벼이, 쉬이
- ③ ㅅ받침 뒤 : 버젓이, 지긋이
- ④ 첩어 명사 뒤 : 일일이, 틈틈이
- ⑤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 같이, 굳이
- ⑥ 부사 뒤 : 더욱이, 일찍이

(2) ‘히’로 적는 경우

- ‘-하다’가 붙는 어간 뒤 : 열심히, 막연히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이/꼼꼼히} 읽어라.
- (2) 손을 {깨끗이/깨끗히} 씻어라.
- (3) 그 일만은 {도저히/도저히} 할 수 없어요.
- (4) 그 만년필 내가 {끔찍이/끔찍히} 아끼는 것이야.
- (5) {꾸준이/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간간히 비가 내리곤 했다.
- (2) 머리를 아래쪽으로 깊숙히 숙여 보세요.
- (3) 그 성은 담으로 겹겹히 둘러싸여 있었다.
- (4)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와 멀찍히 떨어져서 걸으셨다.

10. 형태 밝히기와 발음대로 적기 : 며칠? 몇 일?

‘몇 일’은 ‘며덜’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이나?’라고 쓰게 되면 [며될 며디리나]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며될 며치리나]라고 발음 되므로 ‘몇 일’이 아닌 ‘며칠’로 적어야 한다.

[익힘]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며칠]이지?

11. 사이시옷 바르게 적기

11-1. 언제 사이시옷을 적는가? : 장땃뵈(?) 인생

명사 합성어 중에서 그 구조가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닌 경우,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②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이거나 모음인 경우 이들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는다.

11-2. 사이시옷에 예외는 없는가?

[예외1]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명사 합성어는 사이시옷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의 여섯 단어에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외2] 윗칸(?)에 넣어라.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고 해도 ‘위쪽, 위칸’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 거센소리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쉬어가는 자리 : ‘수눔’인가요? ‘숫눔’인가요?

‘수눔’은 [순눔]이 아니라 [수눔]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에는 [순냥], [순념소], [수쥐]로 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암, 수’의 옛 형태는 각각 ‘암ㅎ’, ‘수ㅎ’이었는데 이 ‘ㅎ’으로 인해 ‘ㄱ, ㄷ, ㅂ’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암, 수’ 뒤에 오게 되면 ‘ㅋ, ㅌ, ㅍ’로 소리가 나게 되고, 적을 때도 ‘수강아지’처럼 거센소리로 적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귀병/귓병}과 {화병/훗병}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습니다.
 - (2) {등교길/등곳길}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 (3) 올 여름 {장마비/장맛비}에 우리 논이 벼가 다 쓰러지고 말았다.
 - (4) 이 일의 {대가/댓가}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니!
 - (5) 요즘은 {전세방/전셋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친구들과는 피자집에서 자주 만났었다.
 - (2) 사장님께서 먼저 인삿말을 하셨다.
 - (3)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햇님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 (4) 내 동생은 화가 나면 아랫턱을 불쑥 내미는 버릇이 있다.
 - (5) 저기 개나릿길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 하세요.

IV. 준말에 관한 맞춤법

12. 무엇이 줄어든 말인가?

12-1. 게 {섯거라/섰거라}.

- ‘게 서 있거라’가 줄어서 된 말은 원래의 받침이 살아 있는 ‘게 섰거라’이다.

문

‘여기 있다’에서 줄어든 말은 ?



12-2. 옷이 {갈갈이/갈가리} 찢겼다.

- ‘가리-가리’에서 줄어든 말은 ‘갈가리’이다.

문

‘가지-가지’와 ‘고루-고루’에서 줄어든 말은?

12-3. 오늘은 웬지(?) 바다가 보고 싶다.

-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은 ‘웬지’이다. ‘웬지’라는 말은 없으며, ‘웬’은 ‘웬 일, 웬만하면’처럼 다른 말과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거나, ‘웬 사람이, 웬 바람이’처럼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 쓰인다.

13. ‘-잖-’과 ‘-잖-’ 구별하기 : 그렇잖은? 그렇잖은?

- ‘그렇지 않은’ 같은 ‘-지 않-’의 준말은 ‘-잖-’으로 적고, ‘변변하지 않은’ 같은 ‘-하지 않-’의 준말은 ‘-찮-’으로 적는다.

문

- 다음 말의 준말을 써 보세요.

만만하지 않다→

적지 않은→

14. ‘-하-’가 결합된 말이 줄어들 때 ‘-하-’가 떨어지는 양상

● 깨끗치(?) 못하게, 그게 무슨 짓이니?

- ‘깨끗지’는 ‘깨끗하지’가 줄어든 말이다. ‘하’ 앞에 [ㄱ], [ㄷ], [ㅂ] 소리로 끝나는 받침이 있을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 외의 받침이 오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만 떨어지고 ‘ㅎ’은 남게 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1) 오늘 1시에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자/실시코자/실시코저} 하오니

모두 강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곳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애절꾸려}



- (3) 보수는 내가 {섭섭지/섭섭치} 않게 드릴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4) 할 말이 있으면 {서슴지/서슴치} 말고 하세요.
 (5) {생각다 못해/생각타 못해} 제가 직접 왔어요.

♠ 정 답 ♠

- 1-1. (문1) (1) 털썩 (2) 산뜻해지는 (3) 넘죽 (4) 쭉덕
 (문2) (1) 몹시 (2) 새색시 (3) 갑자기 (4) 떡갈나무
- 2-1. (문1) (1) 냥 (2) 선동렬 (3) 냉랭했다
 (문2) (1) 늪름한 (2) 유관순 (3) 김윤식 (4) 낭랑
- 2-2. (문1) (1) 2000년대 (2) 중노동 (3) 구년도 (4) 고랭지
 (문2) (1) 실낙원 (2) 연말연시 (3) 남존여비 (4) 경로석
- 2-3. (문1) (1) 상승률 (2) 비율 (3) 충렬탑
 (문2) (1) 백분율 (2) 합격률 (3) 분열된
- 2-4. (문1) (1) 독자란 (2) 작업량 (3) 구름양
 (문2) (1) 펜팔난 (2) 칼슘양 (3) 배분량
3. (문1) (1) 아니요 (2) 주십시오 (3) 뉘시오 (4) 아니요
 (문2) (1) 아니오 (2) 책상이요 (3) 틀린 곳 없음
4. (문1) (1) 돼요 (2) 되느냐 (3) 돼
 (문2) (1) 되쵸 (2) 돼라 (3) 되라고 (4) 돼도
5. (문1) (1) 잠가라 (2) 담가 (3) 사귀었대 (4) 치렀다
7. (문1) 쭈, 나눔, 그리움, 지움, 걸음, 둥글
8. (문1) (1) 배불뚝이 (2) 누더기
9. (문1) (1) 꼼꼼히 (2) 깨끗이 (3) 도저히 (4) 끔찍이 (5) 꾸준히
 (문2) (1) 간간이 (2) 깊숙이 (3) 겹겹이 (4) 멀찍이
10. (문1) 며칠
- 11-2. (문1) (1) 컷병, 화병 (2) 등곶길 (3) 장맛비 (4) 대가 (5) 전세방
 (문2) (1) 피자집 (2) 인사말 (3) 해님 (4) 아래턱 (5) 개나리길
- 12-1. (문1) (1) 였다
- 12-2. (문1) 갖가지, 골고루
13. (문1) 만만찮다, 적잖다
14. (문1) (1) 실시하고자, 실시코자 (2) 애절कु러 (3) 섭섭지
 (4) 서슴지<서슴하지>의 줄인 말이 아님> (5) 생각다

띄어쓰기

문 속 영 (인하대학교)

1. 기본 원리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단어란 무엇인가?

☞ 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바람, 달리다, 매우’ 등은 모두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의 형식이므로 ‘단어’로 분류되지만, ‘먹었다’의 ‘먹-’, ‘-었-’, ‘-다’ 각각은 분리할 수 있는 형식이기는 하나 자립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단어로 분류되지 못한다. 단어 개념이 어려울 때는 해당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지를 추측해 보는 것도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띄어 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단어는 원칙적으로 모두 띄어 쓰는가?

☞ ‘이, 가, 을, 를, 조차, 마저’ 등의 <조사>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립적으로 출현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과 함께 출현해야 한다면 이는 대개 붙여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자립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띄어 쓰는가?

☞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두 단어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합성어)인지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접두사’와 ‘관형사’, ‘접미사’와 ‘의존 명사’처럼 의존적인지 자립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류가 있다는 것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띄어쓰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문법 현상과 문법 술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4)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부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해당 표현의 품사 정보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이들 부류는 굳이 품사 정보에 기대지 않더라도 ‘-었-’이나 ‘-다’처럼 ‘붙임표(-)’ 등으로 그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 검색만으로도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조사>도 붙여 써야 하는 부류에 속한다. 다만 <조사>는 ‘단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존성을 드러내는 부호가 붙지 않으며, 따라서 표제어의 품사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단어 여부 판별하기

2-1. 단어의 판별 기준 1: 새 의미 획득 여부 확인

- 밖에서 느닷없이 {큰소리/큰√소리}가 들렸다.
- {큰소리/큰√소리}만 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라.

☞ 단어 판별의 첫 번째 기준은 두 단어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이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사전에도 등재된다. 예컨대 ‘큰소리’가 음성이나 음향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큼을 의미한다면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소리’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소리’가 ‘허풍, 과장’을 의미한다면 새로운 의미가 획득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문

- (1) 술 {한잔, 한√잔} 합시다.
- (2) 그것은 {두말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 (3) 어제 맞선이 잘 {안되었대요, 안√되었대요}
- (4) 시험에 떨어져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 안√됐더라}.
- (5) 이 가족이 얼마나 질긴지 {한번, 한√번} 시험해보자.



- (6)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 없고, 강남권에 {물량집중, 물량√/집중}.
- (7)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제가 사겠습니다.
- (8) 고통을 {함께한다는,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9) 그 형은 늘 {큰형처럼, 큰√/형처럼} 우리를 다독거린다.

2-2. 단어의 판별 기준 2: 단어 삽입 가능 여부 확인

-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돌아√/갔다}.
- 기사님, {돌아가지, 돌아√/가지} 마시고 직진해 주세요.

☞ 단어 판별의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봄으로써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하나의 단어인 경우 가운데에 다른 말이 삽입될 수 없다. 예컨대 ‘돌아 갔다’의 경우 ‘돌아서 갔다’처럼 ‘서’ 등을 삽입할 수 있다면 띄어 쓰고,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없다면 붙여 쓴다.

문

- (1) 공장을 한 바퀴 {둘러봅시다, 둘러√/봅시다}.
- (2) 본 센터에서 유실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 (3) 동물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숲, 그런 숲을 원한다.
- (4) 이대로 {주저앉을, 주저√/앉을} 것인가!
- (5) 손까지 {모아잡고, 모아√/잡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 (6) {주워담기에, 주워√/담기에} 바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2-3.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미리 선물을 {뜯어버렸다, 뜯어√/버렸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용언이 두 개 이어질 경우 두 용언이 서술어의 의미를 같은 비중으로 나눠 맡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용언이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다른 한 용언은 이에 부수적인 의미만을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바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전자의 경우인 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지는 구성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문

- (1) 그는 나를 보고도 {모르는체한다, 모르는√체한다, 모르는√체√한다}.
- (2) 작품이 {완성되어가고있어, 완성되어√가고있어, 완성되어√가고√있어}.
- (3) 먹이를 눈앞에 {갖다주면, 갖다√주면} 오히려 먹지를 않는다.
- (4) {하고싶은,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 (5) 사무실에서 일은 {하지않고, 하지√않고} 채팅만 하면 안 된다.
- (6) 수직적인 분할로 집을 {넓어보이게, 넓어√보이게} 할 수 있다.

참 ‘체하다, 만하다, 듯하다, 성싶다, 법하다’ 등은 보조 용언으로 처리되므로, 앞말과 붙여 쓸 수도 있다. 다만, ‘알만도 하다, 알만은 하다’처럼 이들 보조 용언 사이에 보조사가 삽입될 경우 띄어 쓴다.

2-4. 용언의 성격을 바꾸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 예뻐√한다}

☞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접사처럼 취급되어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다시 말해 아래 예의 ‘-히-, -이-, -이우-’ 등이 ‘타동사→자동사’ ‘자동사→타동사’ 등으로 용언의 성격을 바꾸는 것처럼 ‘-어 지다’나 ‘-어 하다’도 용언의 성격을 바꾼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이-, -히-’ 등과 유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붙여 쓴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다, 받다, 드리다, 당하다, 시키다’ 등은 앞말에 조사가 없을 경우 앞말에 붙여 쓴다.

예

- ① 경찰이 도둑을 잡다 →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 ② 아이가 우유를 먹다 →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 ③ 빌딩이 서다 → 빌딩을 세우다
- ④ 꿈을 이루다 → 꿈이 이루어지다



⑤ 나는 꽃이 좋다 → 나는 꽃을 좋아한다.

문

- (1) {사랑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라.
- (2)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라.
- (3) {사기당하고,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 (4) {빨래하러, 빨래√하러} 냇가로 가곤 했었지.
- (5) 그는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발전√시킨} 주역이다.

3. 조사의 띄어쓰기

3-1. 조사 연결 구성의 띄어쓰기

▪ {여기에서만이라도, 여기서√만이라도, 여기에서만√이라도} 압전히 있다가
가자

☞ 조사는 몇 개가 연이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쓴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여기’ 외의 ‘에서-만-이라도’가 다 조사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 조사인지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은, 는, 이, 가, 을, 를’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밖에, 조차, 한테, 느커녕’ 등도 조사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문

- (1) {밥먹으면서까지도, 밥√먹으면서√까지도, 밥√먹으면서까지도} 말하더라.
- (2) {여기에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행정 구역상 충청도에 속해.
- (3) {좋아한다기보다, 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야.
- (4) 몽고반점이 {태어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없었다.
- (5) 바로 {이장면입니다, 이√장면입니다, 이√장면√입니다}.

참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목록: 그러, 깨나, (으)ㄴ즉슨, (으)ㄴ커녕, 나마, 더러, 마따나, 마저, 만큼, 말고, 밖에, 보고, 부터, 서부터, 야말로, 예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며, 한테



3-2. 조사와 조사 아닌 것 구별하기

- 나에겐 역시 {너밖에, 너√밖에 없어}.
- {이밖에도, 이√밖에도} 성공 요인은 많다.

☞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밖에’는 뒤에 부정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 취급되지만, 이런 쓰임이 아닌 경우는 대개 명사 ‘밖’일 가능성이 높다.

문

- (1) {예상밖으로, 예상√밖으로} 일이 커졌어.
- (2) 아이는 {기대밖의, 기대√밖의} 점수를 얻었다.
- (3) 나는 어린 시절 {책밖에, 책√밖에} 모르던 소녀였어.
- (4) {“기다릴게”라고, “기다릴게”√라고} 그녀는 말했다.
- (5) {“이미 알고 있었구나”하고, “이미 알고 있었구나”√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 (6)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 (7) {당신같이, 당신√같이} 고운 사람은 처음 봐요.
- (8) {이와같이, 이와√같이} 행운은 늘 예기치 않은 데서 온다.
- (9) {너같이 바보같은, 너√같이 바보√같은, 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참 ‘같이’는 조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같이’가 서술어의 기능을 유지할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데, 이는 앞말에 ‘와’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3-3. 조사와 의존 명사 구별하기

- {연극뿐만아니라, 연극뿐만√아니라, 연극√뿐만√아니라} 영화에도 진출했다.
- 연극에 {출현했을뿐만아니라, 출현했을뿐만√아니라, 출현했을√뿐만√아니라} 영화로도 영역을 넓혔다.



☞ 동일한 형태가 조사이기도 하고 의존 명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에 명사류가 올 경우는 ‘조사’로 쓰인 것이고, 앞에 용언류가 올 경우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다.

문

- (1) 너는 {너대로, 너√대로} 가라. 나는 따로 방법을 찾아볼게.
- (2) {지칠대로, 지칠√대로} 지쳤는지 그냥 쓰러지더라.
- (3) 나도 {너만큼, 너√만큼} 그 사람을 좋아해.
- (4) {노력한만큼, 노력한√만큼}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
- (5) 돈만 안 {썼다뿐이지, 썼다√뿐이지} 강도나 다름없어.
- (6) {십년만에, 십√년만에, 십√년√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 (7) 학교 밥도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 (8) {형만한, 형√만한, 형만√한, 형√만√한} 아우 없다.
- (9)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네요.

㉠ 여러 종류의 ‘만’: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때의 ‘만’은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한정, 비교’를 의미할 때의 ‘만’은 보조사로 붙여 쓴다.

4.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4-1. 의존 명사 찾아내기

- 그 문제는 내 {알바, 알√바}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라.
- 그 사람은 {그럴리가, 그릴√리가} 없다.

☞ 의존 명사의 판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자리에 다른 명사가 대치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앞에 용언이 오거나 용언의 관형사형 ‘-은, -을, -던, -는’ 등이 오는지 확인한다.



예

- ① 먹을 것 좀 주세요. → 먹을 음식 좀 주세요.
- ②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문

- (1) {어찌할바, 어찌할√바} 몰라 한동안 망설였다.
- (2) 최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은 계속되는 {고유가때문이다, 고유가√때문이다, 고유가√때문√이다}.
- (3)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괜히 {아는척, 아는√척} 하다가는 낭패 본다.
- (4) {열사람가랑, 열√사람가랑, 열√사람√가랑} 온답니다.

㉠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았습니다”나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요하다”와 같은 표현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인데, ‘나름, 때문’은 의존 명사로서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 나름대로’ 혹은 ‘이것 때문에’처럼 쓰는 것이 맞다.

4-2. 주의가 필요한 의존 명사

- 정해진 {기간내에, 기간√내에} 찾아가세요.
- 여름 휴가로 {3일동안, 3일√동안} 문을 닫습니다.

☞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조사나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으려 하는 일련의 단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

- (1) {부재시, 부재√시}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 (2) {회의중, 회의√중} 노크하지 마세요.
- (3)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 (4) 모든 과제는 {기한내에, 기한√내에} 끝낼 것.
- (5) {너희중, 너희√중} 키가 더 큰 사람은 누구지?
- (6) 아파트 {단지내, 단지√내} 경비 강화 방안.
- (7) 병실에 {가족외, 가족√외}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㉔ 주요 의존 명사 목록: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뻘,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겸,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4-3. 어미와 의존 명사 구별하기

- 언니는 잘 {노는데, 노는√데} 동생은 잘 못 놀아.
- 까마귀 {노는데,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 원래는 의존 명사 구성이지만 이미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표현과 아직 의존 명사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는 표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의 예에서 전자의 ‘-은데’는 연결 어미로서 붙여 써야 하는 반면에, 후자의 ‘-은 데’의 ‘데’는 ‘곳’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써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첫째,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으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앞에 ‘-었-’이 결합될 수 있으면 의존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미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의존 명사가 어미화한 경우 ‘것을’이 ‘걸’이 되는 것과 같이 형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데, 이 경우 원래의 의존 명사로 환원해 보아서 의미가 성립하면 의존 명사로 남아 있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예

- ① 언니는 잘 놀았는데, 동생은 잘 못 놀았어./ 언니는 잘 *노는데에 동생은 잘 못 놀아.
- ② 까마귀 *놀았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 까마귀 노는 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문

- (1) 총무과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바, 온√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 (2)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바, 생각해 본√바} 없다.
- (3) 앞에서 {살펴본바와, 살펴본√바와} 같이
- (4) 나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 (5) 머리를 {감은지, 감은√지} 일 년이 지났다.
- (6) 밥을 계속 {먹는데, 먹는√데} 도무지 배부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7) 내방객을 {맞이하는데, 맞이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



- (8) 노력을 {다했으니만큼, 다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 (9) 노력을 {다한만큼, 다한√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4-4. 접미사와 의존 명사

- {한달간, 한√달간, 한√달√간} 절에 있었다.
- {부모 자식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 동일한 형태가 접미사이기도 하고 의존 명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간’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때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쓰는 반면에, ‘간’이 ‘거리, 관계’를 의미할 때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문

- (1) {서울부산간, 서울√부산간, 서울 부산√간} 급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 (2)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간에, 등산을 가든지√간에} 좀 움직여라.
- (3) {삼분간, 삼√분간, 삼√분√간} 묵념이 있겠습니다.

4-5. 단위성 의존 명사

- {차한대, 차√한대, 차√한√대} 파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 제 애는 {삼학년이에요, 삼√학년이에요}.

☞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문

- (1) {24회, 24√회} 졸업식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 (2) 이는 {제일과, 제√일과, 제일√과, 제√일√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300여명이, 300√여명이, 300여√명이} 운집했습니다.



5. 관형사의 띄어쓰기

- 월드컵은 {전국민, 전√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월드컵은 {범국민적인, 범√국민적인}이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

☞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띄어 쓴다. 문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 비교적 흔히 이용되는 관별 기준은 뒤에 오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전’은 ‘전국민, 전 가족, 전 식당’ 등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파악되고 띄어 써야 하지만, ‘범-’은 ‘범국민, 범세계’는 가능하나 ‘*범가족, *범단체’ 등은 불가능하므로 접두사로 파악되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문

- (1) {각가정에서는, 각√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2) {매경기에서, 매√경기에서, 매√경기√에서} 그는 큰 활약을 했다.
- (3) {고흥길동, 고√흥길동} 삼가 명복을 빕니다.
- (4) {고인의,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 (5) {본노동청은, 본√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6) {총인원이, 총√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 (7) {미사용√시, 미√사용√시} 반납할 것.

참 ‘고(故), 본(本)’ 등은 뒤에 2음절 이상의 단어가 올 경우에는 띄어 쓰지만, 1음절의 한자가 올 경우에는 붙여 쓴다. 후행하는 1음절 한자어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인’의 경우 ‘인(人)’만이 자립적으로 출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앞의 ‘고(故)’와 붙여 쓴다.

6. 이어주거나 열거하는 말

- {청군대백군, 청군대√백군, 청군√대√백군}으로 나뉘어 경기가 펼쳐진다.

☞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문

- (1) {국장검과장, 국장검√과장, 국장√검√과장}
- (2) {열내지스물, 열내지√스물, 열√내지√스물}
- (3) 서랍에는 볼펜, 종이, {수첩등, 수첩√등} 문구류가 있다.
- (4) 연구 {기간및경비, 기간및√경비, 기간√및√경비}를 명시하시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
- {서른여섯살, 서른여섯√살, 서른√여섯√살}

☞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8. 명사 띄어쓰기

8-1. 이름 띄어쓰기

- {김말순씨, 김√말순씨, 김√말순√씨, 김말순√씨} 전화와요.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덧붙는 호칭어와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문

- (1) {유관순누나, 유관순√누나}를 불러 봅니다.
- (2) {김씨, 김√씨}, 밖에 누가 찾아 왔어요.
- (3) {배철수군, 배철수√군}이 이 부분은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8-2. 이름 이외의 고유 명사 띄어쓰기

-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녀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8-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우리는 흔히 백혈병이라고 한다.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8-4. 명사 연속 띄어쓰기

▪ {다음사항,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

▪ {여성정책추진계획, 여성정책√추진계획, 여성√정책√추진√계획}

☞ 아직 단어화하지 않은 명사 연속체는 ‘구(句)’이므로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문

(1) 신당개입시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되었다.

(2) 지식과학문의발전및진리발견

(3) 고객은 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및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9. 단음절어의 연속

▪ {그때그곳, 그때√그곳, 그√때√그√곳}이 늘 기억에 남아.

▪ 심 봉사는 {이집저집에서, 이집√저집에서, 이√집√저√집에서} 짓동냥을 했다.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속될 때는 띄어 씀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다.

문

(1) {이곳에는, 이√곳에는} 조선 시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2) {그때, 그/때} 마침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3) 그 {전날, 전/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은 계속됩니다.

㉮ 단음절 연속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때, 그때, 이곳, 저곳’ 등은 모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들은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단음절 연속어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정 답 ♠

- 2-1. (1)한잔 (2)두말할 (3) 안/되있대요 (4) 안됐더라 (5) 한번 (6) 전매/제한, 물량/집중 (7) 가위바위보 (8) 함께한다는 (9) 큰형처럼
 2-2. (1)둘러봅시다 (2) 찾아가세요 (3) 돌아다니는 (4) 주저앉을 (5) 모아/잡고 (6) 주워/담기에
 2-3. (1)모르는/제한다 (2) 완성되어/가고/있어, (3) 갖다/주면 (4) 하고/싶은, (5) 하지/않고, (6) 넓어/보이게
 2-4. (1)사랑받고 (2) 말씀드리고 (3) 사기당하고 (4) 빨래하러 (5) 발전시킨
 3-1. (1)밥/먹으면서까지도 (2) 여기에서부터가 (3) 좋아한다기보다 (4)태어날/때부터 (5) 이/장면입니다
 3-2. (1)예상/밖으로 (2) 기대/밖의 (3) 책밖에 (4) “기다릴게”라고 (5) “이미 알고 있었구나”/하고 (6) 너하고 나하고 (7) 당신같이 (8) 이와/같이 (9) 너같이 바로/같은
 3-3. (1)너대로 (2) 지칠/대로 (3) 너만큼 (4) 노력한/만큼 (5) 썼다/뿐이지 (6) 십/년/만에 (7) 먹을/만하다 (8) 형만/한 (9) 오랜만에
 4-1. (1)어찌할/바 (2) 고유가/때문이다 (3) 아는/척 (4) 열/사람가량
 4-2. (1)부재/시 (2) 회의/중 (3) 미합중국정부/간의 (4) 기한/내에 (5) 너희/중 (6) 단지/내 (7) 가족/외
 4-3. (1)온바 (2) 생각해 본/바 (3) 살펴본/바와 (4) 살고 있는지 (5) 감은/지 (6) 먹는데 (7) 맞이하는/데 (8) 다했으니만큼 (9) 다한/만큼
 4-4. (1)서울 부산/간 (2) 등산을 가든지/간에 (3) 삼/분간
 4-5. (1)24/회, ‘24회’ 허용 (2) 제일/과, ‘제일과’ 허용 (3) 300여/명이
 5. (1)각/가정에서는 (2) 매/경기에서 (3) 고/홍길동 (4) 고인의 (5) 본/노동청은 (6) 총인원이 (7) 미사용/시
 6. (1)청군/대/백군 (2) 열/내지/스물 (3) 수첩/등 (4) 기간/및/경비
 8-1. (1)유관순/누나 (2) 김/씨 (3) 배철수/군
 8-4. (1)신당/개입/시비에도/불구하고 (2) 지식과/학문의/발전/및/진리/발전 (3) 수업으로/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및/불공정/수출입/행위의
 9. (1)이곳에는 (2) 그때 (3) 전날

표준어 규정

안 효 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 나두(?) 너 사랑해.

☞ 위의 문장은 ‘나도’를 비표준어인 ‘나두’로 적은 것으로,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 맞춤법은 같은 소리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소리부터 다른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표준어인 서울말은 다른 방언보다 언어적으로 우월한가?

☞ 표준어는 여러 방언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언어이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서울말이 언어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실제>

I.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 {간막이/칸막이}를 쳤다.

☞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인 ‘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칸’은 한자어 ‘間’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칸’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칸막이, 빈칸, 방 한



칸’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 외양간’ 등의 예에서처럼 이미 굳어진 말에서는 ‘간’을 그대로 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붉게 물든 {동녘/동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 (2) 어머니는 지금 {부엌/부엌}에 계신다.
- (3) 물려 받은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떨어먹었다}.
- (4) 휴지를 {재털이/재떨이}에 넣지 마세요.
- (5) {과녁/과녁}을 정확히 바라.

2. 콩 중에서 {강남콩/강낭콩}이 제일 맛있다.

㉡ ‘강남콩’은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음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원을 밝혀서 적어주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좋다. 그러나 ‘강남콩’의 경우에는 발음이 이미 ‘강낭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언중들이 어원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남콩’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변화된 발음에 따라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돈이 없어서 {삭월세/사글세} 방도 얻을 수 없다.
- (2) {고삿/고삿}으로 도망갔어요.

3. 애가 우리 집 {셋째야/세째야}.

㉡ 원래 ‘세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셋째’는 수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쓰임과 의미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셋째’로 통합하여 쓰기로 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애가 우리 집 {둘째야/두째야}.
- (2) 내 차례는 {스물둘째야/스물두째야}.
- (3) 진수가 빵을 {열둘째나/열두째나} 먹었어.
- (4) 내일이 우리 아이 {돌/똥}이에요.
- (5) 이 자리를 {빌어/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4. 내 동생 별명은 {오뚝이/오뚝이}예요.

☞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점점 약화되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는 추세와 관련된 예로, 현실적인 발음이 ‘오뚝이’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토끼가 {강충깡충/깡충깡충} 뛰어 갑니다.
- (2)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오손도손/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습니다.
- (3) {늦동이/늦둥이}를 낳았어요.

5. {부주금/부조금}을 대신 내어 주세요.

☞ 현실적인 발음이 ‘부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언중들이 한자의 의미(어원)를 의식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형태대로 ‘부조’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오늘 {안사돈/안사둔}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 (2) 오늘 {삼촌/삼춘}이 미국에서 와요.

6. {아기야/애기야} 가자.

☞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국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만(푼내기, 냄비, 동맹이치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는 ‘아기’처럼 ‘ㅣ’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아지랑이/아지랭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2) {서울나기/서울내기}는 상대하지 마세요.

7. {미류나무/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 ‘미류’는 한자어 ‘美柳’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하여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괴팍하신/괴팍하신} 분이다.



- (2) {으레/으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3) 술만 드시면 {케케묵은/케케묵은} 이야기를 꺼내신다.
- (4) {허우대/허위대}는 멀쩡한 사람이 하는 짓은 아이 같다.

8.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바래요}.

☞ ‘바라/바래’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바래’로 발음하는 것이 상당한 빈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모음조화 약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바라요’처럼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키고 있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주착/주책} 부리지 마세요.
- (2) 너무 {나무라지/나무래지} 마세요.
- (3) 고기는 {상치/상추}에 싸서 먹어야 맛있어요.

9. {웃몸/윗몸} 일으키기 매일 하고 있어요.

☞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나 ‘윗’이 되고 대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와 ‘윗’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선택되는데,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게 되면 사이시옷이 없는 ‘위’가 온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윗니/웃니}를 먼저 닦으세요.
- (2) {윗층/위층}으로 올라가세요.
- (3) {윗돈/웃돈}을 얹어 주었다.

10. {구절/귀절}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 ‘글귀’와 ‘귀글’만을 제외하고 ‘句’는 ‘구’로 읽는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을에는 아름다운 {시귀/시구}가 저절로 떠오른다.
- (2) 어울리지 않는 {문구/문귀}는 빼세요.

11. 시장에서 {무/무우}와 배추를 샀다.

☞ 현실적으로 ‘무우’보다 준말인 ‘무’가 더 널리 쓰이므로 준말만을 표준



어로 정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뱀이 {파리/또아리} 틀고 앉아 있다.
- (2) {술개/소리개} 울음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

12. {귀후비개/귀이개/귀개} 중 주세요.

☞ 준말인 ‘귀개’가 쓰이고는 있지만, 본말인 ‘귀이개’가 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본말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흔히 ‘귀후비개’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또한 비표준어이다.

13.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시누/시누}가 더 밋다.

☞ 본말인 ‘시누이’와 준말인 ‘시누, 시누’가 모두 표준어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저녁노을/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다.
- (2) 나는 바느질이 몹시 {서투르다/서툴다}
- (3) 서울에 {머무르게/머물게} 되면 전화 주세요.
- (4) 너무 {서두르지/서둘지} 마세요.

14. 파리가 {천장/천정}에 붙어 있다.

☞ ‘천장’ 또는 ‘천정’처럼 서로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정한다. 위의 예문에서는 ‘천장’이 표준어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꼭두각시/꼭둑각시} 인형을 만들었다.
- (2) 철수가 일을 제대로 {할는지/할른지/할런지} 모르겠다.
- (3) 민수와 나는 {떨래야/떼려야} 떨 수 없는 관계이다.
- (4) 산에 {가던지/가든지} 바다에 {가던지/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 (5) 내일 {가려고/갈려고} 합니다.
- (6) 쿵 {서/세} 말 샀다.



15. 음식물에 파리가 {꼬인다/뺨다/찌인다}.

☞ 원칙적으로는 ‘찌다’가 표준어이지만 ‘꼬이다’도 표준어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찌이다’는 비표준어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소고기/쇠고기} 좀 사 와라.
- (2) 나사를 {조이다/죄다/죄이다}.
- (3) 물이 {고이다/괴다/괴이다}.
- (4) 별을 {쪼이다/찌다/찌이다}.

II.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6. {알타리무/총각무}로 김치를 담갔다.

☞ 고유어 계열인 ‘알타리무’보다 한자어 계열인 ‘총각무’가 더 널리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표준어로 정한 경우이다.

17. {우렁쌥이/멍게}는 좋아하지 않는다.

☞ 원래 표준어이던 ‘우렁쌥이’보다 방언이던 ‘멍게’가 더 많이 사용되어서, ‘멍게’를 표준어로 정한 것으로, ‘우렁쌥이’도 표준어로 남겨 두고 있다.

18.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빈자떡}이 먹고 싶다.

☞ 원래 방언이던 ‘빈대떡’이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빈자떡’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멍게’의 경우와 달리 ‘빈대떡’만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19. 저 사람 정말 {주책이다/주책없다}.

☞ 일정한 웃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실없이 행동하는 경우에 ‘주책이다’와 ‘주책없다’가 같은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책’의 일차적인 의미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주책없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20. 올 밑에 선 {봉숭아야/봉선화야/봉숭화야}.

☞ ‘봉숭아’와 ‘봉선화’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러나 ‘봉숭화’는 비표준어로, ‘봉숭아’와 ‘봉선화’를 잘못 결합시켜 만든 어형으로 추정된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뭇/가물}이 심하게 들었다.
- (2) 더위가 기승을 {뎀다/부린다}
- (3) 저게 제 {책상이에요/책상이어요}.
- (4) 컵을 {깨뜨렸다/깨트렸다}.

<구별하여 써야 할 말>

1. 고무줄을 길게 {늘였다/늘렸다}.

회사의 직원을 {늘였다/늘렸다}.

☞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의 의미이다.

2. 회장님의 {결재/결제}가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말일이 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결재/결제}해야 한다.

☞ ‘결재’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안전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제’는 일을 처리하면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췄다/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맞혀} 보았다.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시키다’의 의미를 지닌다.

4. 화를 {돋구지/돋우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한다.

할머니의 안경 도수를 {돋구어/돋우어} 드려야겠다.

☞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라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 반면 ‘돋우다’는 ‘기분이나, 흥미, 의욕, 입맛 등을 더 높아지게 하다’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다'를 의미한다.

5. 다리가 {저리고/절이고} 힘이 없다.

배추를 소금에 {저렸다/절였다}.

☞ '저리다'는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한 상태를 의미하고, '절이다'는 소금을 먹여 절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6. 생선을 {조리다/줄이다}.

마음을 {조리다/줄이다}.

☞ '조리다'는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인다는 뜻으로서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뜻의 '줄이다'와 구분된다.

7. 홍어를 {썩여서/썩혀서} 홍어회를 만든다.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썩혀라}

재능을 {썩이다/썩히다}

☞ '썩히다'는 '음식을 썩히다', '재주를 썩히다'와 같이 쓰이고 '썩이다'는 '속을 썩이다', '골치를 썩이다'와 같이 쓰인다.

8. 공부를 {하느라고/하노라고} 잠도 못 잤다.

{쓰느라고/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서 '자기 나름으로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란 뜻을 표시한다.

9. 살을 {에는/에이는} 추위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찬바람에 살이 {에는/에이는} 듯 했다.

☞ '에다'는 타동사이고 '에이다'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살을 에이는 추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0. 여우가 사람을 {호렸다/홀렸다}.

예쁜 여자에게 {호렸다/홀렸다}.

☞ '호리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고, '홀리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1.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많이 {벗어졌다/벗겨졌다}.

신발이 꼭 끼어 잘 {벗어지지/벗겨지지} 않는다.



☞ ‘벗겨지다’는 ‘덜이거나 썩어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해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의 뜻인 반면, ‘벗어지다’는 ‘덜이거나 썩어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뜻이다.

12. 나무, 바위 같은 자연에는 영혼이 {깃들여/깃들여} 있다.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깃들일} 곳이 있다.

☞ ‘깃들다’는 ‘아늑하게 서려 들다’,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며 있다’란 의미로 쓰이고, ‘깃들이다’는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란 뜻으로 쓰인다.

13. 외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번역해야 {함으로/하므로} 응시자는 외국어 능력을 꼭 갖춰야 한다.

나는 노래를 실컷 {부름으로써/부르므로써} 외로움을 달랬다.

☞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라는 뜻으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함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으나 ‘-하므로’에는 ‘-써’를 붙일 수 없다.

14. 철수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한대/결혼한데}.

그 집 아들은 벌써 책을 {읽대/읽데}.

☞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반면에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며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 정 답 ♠

1. (1) 동넙 (2) 부엌 (3) 털어먹었다 (4) 재떨이 (5) 과녁
2. (1) 사글세 (2) 고살
3. (1) 둘째야 (2) 스물두째야 (3) 열둘째나 (4) 돌 (5) 빌려
4. (1) 깡충깡충 (2) 오순도순 (3) 늦둥이
5. (1) 안사돈 (2) 삼촌
6. (1) 아지랑이 (2) 서울내기
7. (1) 괴팍하신 (2) 으레 (3) 케케묵은 (4) 허우대
8. (1) 주책 (2) 나무라지 (3) 상추
9. (1) 윗니 (2) 위층 (3) 옷돈
10. (1) 시구 (2) 문구
11. (1) 빠리 (2) 술개
13. (1) 저녁노을, 저녁놀 (2) 서투르다, 서툴다 (3) 머무르게, 머물게 (4) 서두르지, 서둘지
14. (1) 꼭두각시 (2) 할는지 (3) 떼려야 (4) 가든지, 가든지 (5) 가려고 (6) 서
15. (1) 소고기, 쇠고기 (2) 조이다, 죄다 (3) 고이다, 괴다 (4) 쪼이다, 찌다
20. (1) 가뭄, 가물 (2) 편다, 부린다 (3) 책상이예요, 책상이어요 (4) 깨뜨렸다, 깨트렸다

표준 발음

이 혁 화 (서울대 기초교육원)

1. 표준 발음의 기준은?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표준어의 실제 발음 + ②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

①표준어, 곧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

예) 늑고[늘꼬], 늑거나[늘꺼나], 늑소[늑쏘], 늑더니[늑떠니]

②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

예) 맛있다[마딤따(○)/마싣따(○)]: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이 여러 가지 일 경우

2. 표준 발음에서 인정되는 자음의 종류는?

☞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ㅂ ㅅ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19개)

※ 발음 위치와 방식에 따른 분류

	입술소리	혀끝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예사소리	ㄱ	ㄷ, ㅌ	ㅈ	ㅋ	ㅎ
거센소리	ㅍ	ㅌ	ㅊ	ㅋ	
된소리	ㅂ	ㄷ, ㅌ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3) 이와 기의 단모음 발음과 이중모음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외나무, 두뇌, 피다, 쇠고기, 최고; 귀, 뒤, 쥐, 가위, 뒤주, 위인

☞ 이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려면 ㅈ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되 입술을 둥그렇게 앞으로 내민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기 역시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ㅣ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되 입술을 둥그렇게 앞으로 내민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나 기를 이중모음인 [we, wi]로만 발음하기도 한다.

(4) ㄴ의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어른, 건강, 선수; 어깨, 서리, 버릇

☞ ㄴ은 긴소리와 짧은소리일 때 발음이 약간 달라진다. 짧은소리일 때의 ㄴ에 비하면 긴소리일 때의 ㄴ은 혀의 전후 위치가 약간 앞으로 나오며 높이도 조금 높아진다.

(5) ㄴ의 발음

의논[의논(○)/이논(×)/으논(×)], 희망[희망(×)/히망(○)/호망(×)]

주의(主義)[주의(○)/주이(○)/주으(×)],

나의 (고향)[나의(○)/나이(×)/나으(×)/나에(○)]

☞ 단어의 첫음절 위치에서 자음이 첫소리가 아닌 ㄴ은 반드시 [ㄴ]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ㄴ은 반드시 [ㅣ]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할 수 있다.

☆ ‘무늬’와 ‘문의’(問議)의 발음



(6)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의 발음

가지어→가져, 켜어→켜, 다치어→다쳐

☞ 표기는 ‘저, 켜, 처’로 하지만 발음은 [저, 켜, 처]로 한다. 경구개음인 ‘ㄷ, ㅌ, ㅊ’ 뒤에서 ‘ㅈ ㅊ ㅌ ㅊ’ 등의 이중 모음이 올 때에는 단모음 [ㅈ ㅊ ㅌ ㅊ]등으로 발음한다.

(7) ㅈ의 발음

계시다[계:시다/계: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혜택[혜:택/혜: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 ‘예, 레’ 이외의 ㅈ는 [ㅈ]로도 발음한다. ‘예절, 예산, 옛날, 차례, 의례’ 등에서의 ㅈ는 반드시 [ㅈ]로 발음한다.

<문제>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만을 고르세요.

의사(醫師) [의사/으사/이사]

유희(遊戱) [유희/유희/유희]

내의(內衣) [내:의/내:으/내:이]

희미하다[희미하다/흐미하다/히미하다]

의의(意義) [의의/의으/의이/으의/으으/으이/이의/이으/이이]

미치+어→미쳐[미쳐/미쳐] 살찌+어→살찌[살찌/살찌]

받히+어→받혀[바쳐/바쳐]

사례(事例) [사:례/사:례] 계산(計算) [계:산/계:산]

밀폐(密閉) [밀폐/밀폐] 무예(武藝) [무:예/무:예]



4. 소리의 길이

(1) 긴소리와 짧은소리

말(馬) - 말(語)

발(足) - 발(簾)

사과(과일) - 사과(謝過)

가장(부사) - 가장(假裝)

영동(嶺東) - 영동(永同, 충북의 지명)

☞ 첫 번째 계열은 모두 짧게, 두 번째 계열은 모두 길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긴소리와 짧은소리의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기성 세대에서는 이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긴소리는 항상 길까?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멀리[멀:리]
벌리다[벌:리다]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 위치에서만 긴소리로 발음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 바:니/반:신 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

(3) 봤다(←보았다)의 발음은 [봬:따]일까 [봬따]일까?

보아 → 봐[봐:] 기어 → 겨[겨:] 되어 → 돼[돼:]

두어 → 뒤[뒤:] 하여 → 해[해:]



☞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쩌,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4) 긴소리를 가진 음절일 때 단어의 첫음절이라면 항상 길게 발음할까?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밥: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알다[알:다] — 알아[아라]

☞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다만, ‘꼴다, 뿔다, 벌다, 썰다, 없다’ 등은 항상 긴소리로 발음된다.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밥:따] — 밟히다[발피다]

☞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다만, ‘꼴리다, 벌리다, 없애다’ 등은 긴소리로 발음된다.

※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쏘-살-같이 작은-아버지

※ 체언은 어떤 종류의 조사가 뒤에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본래의 긴소리 대로 발음한다.

<문제>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을 고르세요.

1. 성(姓)이 뭐예요? [성:이/성이]
2. 별(星)이 참 많네요. [벼:리/벼리]
3. 이런 옷을 만들려면 어떤 감이 필요해요? [가:미/가미]
4. 밤에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바:메는/바메는]
5. 별뚱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별:뚱별/별뚱별/별:뚱별:/별뚱별:]
6. 선남선녀(善男善女) [선:남선녀/선:남선:녀]
7. 어젯밤에는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꿔다. [꿔:따/꿔따]



8. 한낮에는 30도가 훌쩍 넙었다. [너:넙따/너넙따]
9. 나이 40이 넘어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어:넛썌요/어넛썌요]
10.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엎애자. [엎:썌자/엎썌자]

5. 받침의 발음

(1) 홀받침의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낫, 낫, 낫, 낯

☞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ㄱ ㅋ은 [ㄱ]으로, ㄴ ㄷ ㅌ ㅊ ㅌ은 [ㄷ]으로, ㅁ은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모두 [낫]으로 발음된다.

(2) 겹받침의 발음

국어에서 겹받침은 11개(ㄱㅅ ㄴㅅ ㄷㄹ ㄷㅅ ㄹㅅ ㄹㅌ ㄹㅎ ㄹㅗ ㄹㅑ ㄹㅓ ㄹㅕ)가 있다. 이들 겹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자음 중에서 하나만 발음된다.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넛, 앓다, 여덟, 넓다, 외곬, 핏다, 값

☞ 겹받침 ㄱㅅ ㄴㅅ ㄷㄹ ㄷㅅ ㄹㅅ ㅁ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된다. 즉, 겹자음 중에서 첫 번째 자음만 발음된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각각 [넛, 안따, 여덟, 널따, 외곬, 핏따, 값]으로 발음된다.

※ 겹받침 ㄹㅌ의 경우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ㄹ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밟다, 넓둥글다, 넓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ㅌ만 발음한다.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닭 젊다 읊다

㉠ 겹받침 **ㄹ**이 **ㄹ**이 **ㄹ**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ㅋ ㅂ]으로 발음된다. 즉 겹자음 중에서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한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각각 [닭, 젊:따, 읊:따]로 발음된다. 다만, 겹받침 **ㄹ**이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쓰이는 경우 **ㄹ**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ㄹ**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맑게[말께], 물고[물꼬], 얹거나[얼꺼나]).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몹까지, 엇고, 얹고, 얹더라, 훑지, 밟지, 넓더라, 읽고, 읽더라, 갑작갑작하다, 굶다랑다, 굶직하다, 늑수그레하다

(3) 받침 **ㅎ**의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놓고 많고 좋다 읊다 닳지 하얗지요

㉠ **ㅎ**(**ㄹ**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노코, 만:코, 조:타, 올타, 달치, 하:야치요]. 단, **ㅎ** 뒤에 **ㅅ**이 올 때에는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종소[조:쏘], 싫습니다[실썸니다]).

※ 받침 **ㄱ**(**ㄹ**), **ㄷ**, **ㅂ**(**ㅃ**), **ㅈ**(**ㅉ**)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 ㅌ]으로 발음한다(각하[가카], 좁히다[조피다], 꽃히다[꼬치다]).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등).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놓는 낱니 놓으니 쌓여



ㄹㅎ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은 ㄴ으로 발음된다.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올 때에 그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논는, 난니, 노으니, 싸여]로 발음된다.

(4) 연음과 절음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연음이라 하고,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절음이라 한다. 연음은 어미, 조사, 접미사가 연결되는 경우에, 절음은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음: 깎아[까까], 옷이[오시], 낮이[나지], 꽃을[꼬출], 앞으로[아프로]

절음: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젓어미[저더미], 걸옷[거돋],

헛웃음[허두슴]

※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절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마딤따, 머딤따]의 발음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싯따, 머싯따]도 허용한다.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값어치, 값있는, 녀 없다, 맛없다, 값을, 홀웃

(5) 한글 자모의 발음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히읇이, 히읇을, 치읇이, 치읇을, 티읇이, 티읇으로, 피읇이, 피읇에



6. 소리의 변화

(1) 구개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곧이든다, 굳이, 미단이, 땀받이, 밭이, 벼훅이

☞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이들은 [고지든따, 구지, 미단이, 땀바지, 바치, 벼훅치]로 발음된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등).

(2) 자음동화

① 장애음의 비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먹는 국물 껌는 껌는 흙만 젖멍을 꽃망을 앞마당 밟는

☞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ㅌ, ㅍ, ㅊ, ㅌ, ㅎ), ㄴ(ㄴ, ㄷ, ㄹ, ㅌ, ㅍ)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웃 맞추다[온맏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② ㄴ의 비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음료, 담력, 종로, 승리, 강릉, 막론, 십리

☞ 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ㄴ은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음:뇨, 담:녁, 종노, 승니, 강능, 망논, 십니]로 발음된다. '막론, 십리'는 ㄹ이 [ㄴ]으로 바뀐 [막논, 십니]를 거쳐 [망논, 심니]로 발음된다.



③ 유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난로, 신라, 천리, 찰나, 칼날, 물난리, 할는지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닿는[달른], 뚫는[뚫른] 등).

※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1음절 접미사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예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븜노]

※ 경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는 다음과 같은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강:기]) 옷감[옴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범[문뻬](×[뭉뻬])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뭉뭉이, 옷뻬시, 흙 말리다, 값 매기다

뺨네, 째네, 훑는구나, 땀 나루, 바람 잣을 날

인간, 잇몸, 있고, 전기

(3) 된소리 되기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국밥, 깎다, 샅돈, 닭장, 옷고름, 꽃다발, 밭갈이, 덮개, 읊조리다, 값지다



☞ 대표음이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껴안다, 앓고, 더듬지, 닳고, 젊지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안기다[안기다] 등).

※ 체언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감도[감또(×)], 방법[방뽕(×)], 창고[창꼬(×)])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갈등, 발동, 절도, 말살, 일시, 갈증, 물질, 발전, 몰상식, 불세출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 (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할 것을, 갈 데가, 갈 곳, 만날 사람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 할밖에, 할세라, 할진대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문고리, 창살, 바람결, 물동이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샛돈, 굵기, 별별(別別), 할 듯하다, 여덟도, 돌집(돌로 만든 집), 잠자리(宿所), 갈 증, 팔달구, 보길도

(4) ㄴ뎡소리/ㄹ뎡소리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숨이불, 색연필, 논일, 한여름, 앞이마, 막일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소:미불, 새견필, 노닐, 한녀름, 아비마, 마길]로 발음하지 않고 [숨:니불, 생년필, 논닐, 한녀름, 암니마, 망닐]로 발음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넌/거:떨]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녕/그똥]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설익다, 솔잎, 물약, 불여우, 서울역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문제>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신여성, 직행열차, 늑막염, 국민윤리, 밤옷, 촬영, 활용, 목요일, 절약, 1연대, 절약, 결여

(5) 사이시옷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넷가, 셋길, 빨랫돌, 콧등, 깃발, 대팻밥, 햇살, 뱃속, 뱃전, 고갯짓

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까/넛:까] 셋길[새:길/쌔:길] 등.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콧날, 아랫니, 툇마루, 뱃머리

ㄷ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닐→베갯닐] 껌잇[껌넙→껌넙] 나뭇잎[나뭇넙→나뭇넙]

외래어 표기법

김 수 현 (이화여대)

1. 머리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별도의 학습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중이 이에 관한 규정을 모르고 사용하여 표기상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 언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규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용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외래어 표기법

2.1.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로 외국의 문물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어서 외국어 어휘를 국어에 동화하여 국어 어휘로 사용하는 말이다. 외국어 어휘가 외래어로 정착되는 기간이나 방식은 각 어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외국어와 외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대체적으로 외래어는 발음, 형태, 의미상에 있어서 원래의 외국어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발음에 있어서 ‘fighting[faitiŋ], radio[reidiou]’의 [f]나 [r]은 국어에는 없는 음으로 이를 표기할 문자 역시 없다. 따라서 이들을 국어음으로 변형하여 각각 ‘표’와 ‘르’로 발음하고 ‘파이팅, 라디오’로 표기한다.

형태상의 변형은 형용사나 동사인 외국어 어휘에 국어 조어법을 적용하여 가령 simple[simpl]+하다 → 심플하다, study[stadi]+하다 → 스타디하다’와



같이 ‘-하다’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의미상의 변형은 외국어의 고유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meeting[mi:tiŋ] 미팅’은 원래의 의미인 ‘회의’와 더불어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garden[ga:rdn] 가든’은 요식업체의 상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래어는 국어 어휘 목록에 없는 경우나 있어도 의미상의 변화를 의도하여 국어 어휘와 별도로 사용되고 있다.

2.2. 외래어 표기법(1986)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으로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래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표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외래어 사용 초기에는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v]를 ‘ㅁ’, [f]를 ‘ㅍ’으로 적는 경우가 있었고, 장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불임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가장 이상적인 표기는 외래어의 음운을 국어의 자모와 1:1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f]나 [r]’과 같이 국어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2



개 이상의 외국어 음을 하나의 국어 자모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제3항은 외래어의 받침은 국어 표기와 달리 ‘ㄱ, ㄴ, ㄷ, ㅁ, ㅂ, ㅅ, ㅇ’ 7개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커피숍, 코너킥’과 같은 표기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국어의 경우 ‘ㅅ, ㅈ, ㅊ, ㅌ, ㅍ’ 등의 대표음은 ‘ㄷ’인데 외래어는 ‘ㅅ’을 대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 어휘의 경우 가령 ‘빛, 빗, 빙’의 발음은 [빈]이나 모음을 결합하면 ‘빗+이[비시], 빗+이[비지], 빗+이[비치]’와 같이 그 음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외래어도 모음을 결합하면 ‘인터넷+이[인터넷시], 디스켓+이[디스케시]’로 그 음가가 ‘ㄷ’이 아닌 ‘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국어의 자모로 모든 외국어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어의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ㄴ, ㄷ, ㅂ)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외래어 표기 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언중의 대부분이 사용하여 온 어휘 가운데 표기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몇몇 어휘는 표기법에 적용하지 않고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radio[reidiou]’는 표기법 상으로는 발음기호에 따라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고, ‘camera[kæməra]’는 ‘캐머러’로 적어야 하나 관용을 인정하여 각각 ‘라디오, 카메라’로 적도록 하고 있다.

2.3. 외래어 표기 용례

A. 자음의 표기

(1) 파열음

어두에 파열음이 올 경우 표기 원칙에 따라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ㄴ, ㄷ, ㅂ)로 적는다.

㉮ 1) café[kæfei/kəfei] 카페/까페 trio[triu] 트리오/뜨리오



Paris[pæris] 파리/빠리
double[dʌbl] 더블/떠블

gas[gæs] 가스/까스
bus[bʌs] 버스/뵈스

무성파열음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 받침으로 적거나 ‘으’를 붙여 적는다. 일반적으로 영어 이외의 경우는 ‘으’를 붙여 적으면 되나, 영어의 경우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는 이중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 2) robot[rɒbɒt] 로봇/로보트
internet[ɪntənet] 인터넷/인터넷
cake[keɪk] 케익/케이크
flute[flu:t] 플룻/플루트

Tibet[tɪbet] 티벳/티베트
tape[teɪp] 테이프/테이프

또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있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사이의 무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한다.

문 3) lipstick[lɪpstɪk] 립스틱/리프스틱
mattress[mætrɪs] 매트리스/매트리스

napkin[næpkɪn] 냅킨/내프킨
sickness[ˈsɪknɪs] 식니스/시크니스

유성파열음의 경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으’를 붙여 적는 것으로 한다.

문 4) head[hed] 헛/헤드
gagman[ˈgægmæn] 객맨/개그맨

herb[hɜ:b] 헵/허브

그러나 간혹 관용을 존중하여 규칙과 다른 표기를 인정하고 있어 언중이 실제 표기를 할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규칙과 달리 표기하는 어휘는 그 용례를 별도로 명시하여 언중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문 5) hip[hip] 힙/히프
bag[bæg] 백/배그

set[set] 셋/세트
web[web] 웹/웹브

(2) 마찰음

마찰음 [f]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모음 앞에서는 ‘프’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로는 마찰음 [f]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문 6) fighting[faitɪŋ] 파이팅/화이팅
frypan[fraipæn] 프라이팬/후라이팬

fantasy[fæntəsi] 판타지/환타지
graph[græf] 그래프/그래푸

마찰음 [s]는 [s]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 [s]가 어말에 올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서 명시하였듯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사소리인 ‘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문 7) service[sə:rvis] 서비스/씨비스
sauna[saunə] 사우나/싸우나
dance[dæns] 댄스/뎌쓰

center[sentər] 센터/쎄터
sign[sain] 사인/싸인
gas[gæs] 가스/까쓰

마찰음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 등으로 적는다.

문 8) shrimp[ʃrimp] 쉬림프/슈림프
English[ɪŋɡlɪʃ] 잉글리쉬/잉글리시
leadership[li:dərʃɪp] 리더쉽/리더십

dash[dæʃ] 대쉬/대시
shopping[ʃɒpɪŋ] 쇼핑/쇼핑

(3) 파찰음

국어에서는 ‘ㅈ, ㅊ’ 같은 구개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



지 않는다. 즉 ‘ㅈ, ㅊ’을 지닌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에도 ‘ㅈ’이나 ‘ㅊ’ 뒤에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ㅈ, ㅊ, ㅊ’ 등의 이중모음 표기를 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 문 9) television[teliviʒən] 텔레비전/텔레비전 juice[dʒu:s] 주스/쥬스
 chance[tʃa:ns] 찬스/찬스 chart[tʃa:t] 차트/차트

(4) 유음

유음 [l]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으며, 어중에서는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과 같이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문 10) plaza[plɑ:zə] 프라자/플라자 clinic[klinik] 클리닉/클리닉
 catalogue[kætələg] 카다로그/카탈로그 club[klʌb] 클럽/클럽

B. 모음의 표기

외래어 표기에서 모음의 경우는 발음기호를 확인하지 않고 철자에 의한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예가 많이 발생한다.

(1) 단모음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의하면 [ə]와 [ʌ]는 ‘어’로, [æ]는 ‘애’로, [ɔ]와 [o]는 ‘오’로 적도록 되어 있다.

- 문 11) terminal[tə:rminəl] 터미널/터미날 dollar[dələr] 달러/달라
 color[kʌlər] 컬러/칼라 honey[hʌni] 허니/하니
 accessory[æksesəri] 액세서리/엑세서리 talent[tælənt] 탈렌트/텔런트

특히 ‘con-’은 [kɒn-]과 [kən-]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중은 철자 ‘o’에 의해 ‘콘’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컨’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철자가 아닌 발음기호에 의해 표기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12) concert[kɒnsə:t] 콘서트/컨서트 concept[kɒnsɛpt] 콘셉트/컨셉트
 condition[kəndɪʃən] 콘디션/컨디션 control[kəntrɒl] 콘트롤/컨트롤
 collection[kəlekʃən] 콜렉션/컬렉션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spike[spaɪk] 스파이크, sauna[saunə] 사우나, skate[skeɪt] 스케이트’와 같이 [aɪ]는 ‘아이’, [aʊ]는 ‘아우’, [eɪ]는 ‘에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ʊə]는 ‘아워’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 13) boat[bəʊt] 보트/보우트 pose[pəʊz] 포즈/포우즈
 shadow[ˈʃædəʊ] 섀도/샤도우 window[ˈwɪndəʊ] 윈도/윈도우
 power [ˈpaʊə] 파워/파우어 tower [ˈtaʊə] 타워/타우어

C. 복합어의 표기

복합어는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이는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한 것이다.

- ㉮ 14) outlet [ˈaʊtlet] 아울렛/아웃렛 make up [meɪkʌp] 메이컵/메이크업
 headlight [ˈhedlaɪt] 헤드라이트/헤드라이트

D. 인명·지명의 표기

인명·지명의 표기는 다른 일반 명사에 비해 구별이 용이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Caesar 시저, Hague 헤이그’와 같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르고,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와 같이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



되는 경우에도 관용을 따르는 등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의 경우는 국어의 한자음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 따로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에 그 표기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명은 제1항에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孔子, 孟子’ 등의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공자, 맹자’로 표기하고, ‘毛澤東, 張國榮’과 같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따라 ‘마오쩌둥, 장궈룽’으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지명의 경우는 제2항에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린 한자음대로 하고, ‘廣州 광저우, 杭州 항저우’와 같이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札幌 삿포로’와 같이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 ㉮ 15) 鹿兒島 녹아도/가고시마 安倍晋三 안배진삼/아베신조
海南 해남/하이난 鄧小平 등소평/덩샤오핑

문제는 ‘京都, 東京, 上海, 黃河’와 같이 일본 및 중국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교토, 도쿄, 상하이, 황허’와 함께 ‘경도, 동경, 상해, 황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언중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관용 표기의 경우는 그 목록을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16) 北海島 북해도/홋카이도 大阪 대판/오사카
萬里長城 만리장성/완리창청 吉林 길림/지린



3. 맺음말

외래어는 국어 어휘 가운데 하나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 원칙과 함께 예외 조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규칙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언중이 외래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기법에 관한 이해와 함께 바른 표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과정에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규범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규범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도 자막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여 언중의 외래어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언중도 외래어가 국어 어휘임을 인식하여 표기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정 답 ♠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카페, 트리오, 파리, 가스, 더블, 버스	9	텔레비전, 주스, 찬스, 차트
2	로봇, 인터넷, 티베트,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10	플라자, 클리닉, 카탈로그, 클럽
3	립스틱, 냅킨, 매트리스, 시크니스	11	터미널, 달러, 컬러, 허니, 액세서리, 텔런트
4	헤드, 허브, 개그맨	12	콘서트, 콘셉트, 컨디션, 컨트롤, 컬렉션
5	히프, 세트, 백, 웹	13	보트, 포즈, 새도, 윈도, 파워, 타워
6	파이팅, 판타지, 프라이팬, 그래프	14	아웃렛, 메이크업, 헤드라이트
7	서비스, 센터, 사우나, 사인, 댄스, 가스	15	가고시마, 아베신조, 하이난, 덩샤오핑
8	슈림프, 대시, 잉글리시, 쇼팽, 리더십	16	북해도, 홋카이도, 대판, 오사카, 만리장성, 완리창청, 길림, 지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권 미 영 (국립국어원)

1.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와 특징

제 1 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 □□□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뜻을 밝혀서 형태소별로 적는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의 원칙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왕십리’라는 말은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Wangsipri’가 아니라 ‘Wangsimni’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 (1) 로마자 표기에서 발음대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왜 로마자 표기가 필요한가?

☞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표기이므로 이처럼 발음대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길이나 장소 안내 등의 관광 안내만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정리



하고 보관하여 세계와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자체계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마자를 공용 표기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제 2 항 로마자 이외의 □□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 단어를 로마자로 쓰시오.

- (1) 삼성(기업명) () (2) 대우(기업명) ()
 (3) 국민(은행명) () (4) 조선(신문명) ()
 (5) 중앙(신문명) ()

㉮ 현재 기업명 ‘삼성’과 ‘대우’는 각각 ‘Samsung’과 ‘Daewoo’로, 은행명 ‘국민’은 ‘Kookmin’으로, 신문명 ‘조선’과 ‘중앙’은 각각 ‘Chosun’과 ‘JoongAng’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삼성’과 ‘조선’에서 ‘ㅅ’는 ‘u’로, ‘대우’에서 ‘ㅌ’는 ‘woo’로, ‘국민’과 ‘중앙’에서 ‘ㄷ’는 ‘oo’로 표기하고 있다. 또 ‘국민’에서 ‘ㄱ’은 ‘k’로, ‘조선’과 ‘중앙’에서 ‘ㅈ’은 각각 ‘ch’와 ‘j’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음운을 표기하는 로마자가 제각각으로 혼동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규범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적지 않았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이 전에는 매륵과 라이샤워가 만든 ‘매륵라이샤워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표기법에서는 반달표(˘)와 어긋점(˙)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전산화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 언어 의식과 맞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반달표(˘)는 ‘ㅅ(ö)’와 ‘ㅡ(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삼성’에서처럼 ‘ㅅ’를 ‘u’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ㅌ’는 ‘u, oo, woo’ 등의 여러 잘못된 표기가 사용된 것이다.

또 어긋점(˙)은 ‘ㅍ(p)’, ‘ㅌ(t)’, ‘ㅋ(k)’ 등을 표기하는 데 쓰였는데,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의 두 개의 로마자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전혀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긋점(˙)을 더하여 ‘k’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늘 ‘k, t, p, ch’를 써야 하는지 ‘g, d, b, j’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처럼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라는 부호는 개정된 표기법에서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기본적으로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며, 그 외에 이름의 표기나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모음과 자음의 로마자 표기 익히기

2-1. 모음

(1) 단모음

ㅣ ()	ㄱ ()	ㅡ ()	ㅏ ()
ㅓ ()	ㅗ ()	ㅋ ()	ㅑ ()
ㅕ ()		ㅓ ()	

(2) 이중모음

① ‘y’ 계열

ㅟ ()	ㅠ ()	ㅢ ()	ㅤ ()	ㅥ ()	ㅦ ()
-----------	-----------	-----------	-----------	-----------	-----------

② ‘w’ 계열



과 ()	내 ()	더 ()	게 ()
-----------	-----------	-----------	-----------

③ 기타

니 ()

☞ 단모음의 표기에서는 ‘ㅣ’와 ‘ㅡ’를 ‘eo’와 ‘eu’로 표기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 외국인들이 ‘eo’는 ‘에오’로 ‘eu’는 ‘에우’로 읽을 가능성이 ‘어’나 ‘으’로 읽을 가능성보다 높겠지만, 로마자에 한국어의 ‘어’와 ‘으’를 한 글자로 적을 만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게 되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y’나 ‘w’를 넣어 적으면 된다. 그런데 ‘더’는 ‘weo’가 아니라 ‘wo’로 표기하며, ‘니’는 단모음 ‘ㅣ’와 ‘ㅣ’의 결합이어서 ‘eui’로 적어야겠지만 ‘ui’로 적는다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2-2. 자음1)

(1) 파열음

ㅂ (,)	ㅃ ()	ㅍ ()
ㄷ (,)	ㄸ ()	ㅌ ()
ㄱ (,)	ㄲ ()	ㅋ ()

(2) 파찰음

ㅈ ()	ㅉ ()	ㅊ ()
-----------	-----------	-----------

(3) 마찰음

ㅅ ()	ㅆ ()	ㅎ ()
-----------	-----------	-----------



(4) 비음

ㅁ ()	ㄴ ()	ㅇ ()
------------	------------	------------

(5) 유음

ㄹ ()	ㄹ ()	ㄹㄹ ()
------------	------------	-------------

☞ 자음의 표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ㄱ, ㄷ, ㅂ’는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지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② ‘ㅇ’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 즉 받침으로 쓰일 때에만 소리([ŋ])가 나므로, ‘아’는 ‘a’로 적어야지 ‘nga’로 적어서는 안 된다.
- ③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처럼 ‘ㄹ’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

3. 유의할 점

앞에서 이미 강조했지만 로마자 표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 다음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여 로마자로 바꾸어 쓰시오.²⁾

- (1) 신문로[]_____
- (2) 막일[]_____
- (3) 해돋이[]_____
- (4-1) 잡혀[]_____
- (4-2) 집현전[]_____
- (5) 압구정[]_____
- (6) 해운대[]_____
- (7) 본인 성명[]_____
- (8-1) 제주도[]_____



- (8-2) 청주[] _____
 (9) 속리산[] _____
 (10) 삼성[] _____

3-1.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자음 동화)

☞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 또는 두 음운이 바뀌어 서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뀐다.

백마[백마] Baengma 달는다[단는다] danneunda 감문[감문] Gammun

② ‘ㄹ’은 ‘ㄱ,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삼례[삼네] Samnye 종로[종노] Jongno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ㄹ’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곡릉[공능] Gongneu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고,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다.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신라[실라] Silla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별내[별래] Byeollae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음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노, 뉴]로 발음하는 현상을 음운 첨가 혹은 ‘ㄴ’ 첨가라고 한다. 이 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앞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유의해야겠다.

학여울[hangnyeoul] Hangnyeoul 알약[allak]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구개음화)

☞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를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돋이[haedoji] haedoji 같이[gachi] g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ㄱ, ㄷ, ㅂ, ㅈ’가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소리 나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이 현상도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말을 발음할 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 다만, □□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운이 변화하는 현상은 대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다. 하지만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의 경우에 한해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ㅎ’을 밝혀 적는다.

★ [붙임] □□□□□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무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는 된소리되기 가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재 혼동을 보이는 발음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앞의 체언의 거센소리되기 와 된소리되기 현상, 이 둘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예를 들어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3.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음절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하지 않으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대개 소문자로 적는다.

3-4.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는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름은 대개 두 음절인데 이를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예를 들어 ‘빋나’라는 이름은 ‘[빈나]’로 발음되지만, ‘Binna(Bin-na)’로 적지 않고, ‘Bitna(Bit-na)’로 적는다. 이것은 이름의 경우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음절별로 따로 적는 것은 이름에는 향렬이 있고 각각의 음절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5.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반드시 붙임표(-)를 넣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또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왕리[이낭니]’처럼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Inwang-ni’가 아닌 ‘Inwang-ri’로 적는다.

★ ‘□, □, □’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청주시’는 ‘Cheongju’, ‘함평군’은 ‘Hampyeong’, ‘순창읍’은 ‘Sunchang’으로 적을 수 있다.

3-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로마자로 표기할 때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은 ‘Namsan’으로 ‘다보탑’은 ‘Dabotap’으로 쓴다. ‘Nam-san’이나 ‘Dabo-tap’처럼 붙임표를 넣거나, ‘Nam Mountain’, ‘Dabo Pagoda’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적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7.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의 로마자 표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 정 답 ♠

- 1) ㅣ(i), ㅟ(wi), ㅡ(eu), ㅓ(u) / ㅔ(e), ㅚ(oe), ㅓ(eo), ㅗ(o) / ㅞ(ae), ㅑ(a)
 ㅓ(ya), ㅕ(yeo), ㅛ(yo), ㅠ(yu), ㅞ(yae), ㅟ(ye)
 ㅘ(wa), ㅙ(wae), ㅜ(wo), ㅟ(we)
 ㅡ(ui)
- 2) ㅂ(b, p), ㅃ(pp), ㅍ(p) / ㄷ(d, t), ㄸ(tt), ㅌ(t) / ㄱ(g, k), ㄲ(kk), ㅋ(k)
 ㅈ(j), ㅉ(jj), ㅊ(ch) ㅅ(s), ㅆ(ss) / ㅎ(h)
 ㅁ(m), ㄴ(n), ㅇ(ng) ㄹ(r - 모음 앞), ㄴ(l - 어말, 자음 앞), ㄴㄴ(ll)
- 2) (1) 신문로 [신문노] Sinmunno
 (2) 막 일 [망 닐] mangnil
 (3) 해돋이 [해도지] haedoji
 (4-1) 잡 혀 [자 껀] japyeo
 (4-2) 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5) 압구정 [압꾸정] Apgujeong
 (6) 해운대 [해운대] Hae(-)undae
 (7) 성 명 [홍빈나] Hong Bitna(Bit-na) 홍빛나
 (8-1) 제주도 [제주도] Jeju-do
 (8-2) 청 주 [청 주] Cheongju(-si)
 (9) 속리산 [송니산] Songnisan
 (10) 삼성 [삼 성] Samsung

언어 예절

전 수 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족에 대한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전반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실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편찬한 『우리말의 예절』(1991)이다. 대량 전달 수단을 가진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 기사를 써서 전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모았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 기사를 쓰는 한편으로 지방에 따라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표준 화법으로 발표하였는데 위의 책은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그후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 등의 단행본을 잇달아 간행하였다. 또, 1996년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우리말의 예절』(1991)에 북한의 언어 예절을 더 하여 증보판으로 『우리말의 예절(상, 하)』을 발간함으로써 명실공히 남북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1. 부부 사이

남 편

칭 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아버지, ○○ 아빠
	장년, 노년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
지 칭 어	남편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영감[장년, 노년]
	시부모에게	아비, 아범, 그이(이이, 저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그 사람



남편을 부르는 명칭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결혼 4년째 된 어느 부부는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가 “자기야, 이게 뭐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잘못 쓴 호칭어를 아이가 듣고 배운 것이다.

아 내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어머니, ○○ 엄마
	장년, 노년	여보, 임자, ○○ 할머니, ○○ 어머니
지칭어	아내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장년, 노년]
	친부모에게	(○○) 어미(어멈), 그 사람
	장인, 장모에게	(○○) 어미(어멈, 엄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또 28세의 어떤 주부는 대학 동창인 남편에게 처음에는 ‘○○야’ 하고 부르다가 이제는 ‘○○ 씨’ 정도로 불러 주거나 ‘이봐요’, ‘당신’, ‘여보’, ‘자기야’ 등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데 시부모 앞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을 부를 때 ‘보세요’ 하거나 ‘있잖아요’ 하고 얼버무리기가 일쑤다. 대학 선배와 결혼한 30세의 한 주부는 결혼 전의 습관이 입에 배서 둘이 있을 때나 남 앞에서나 자기 남편을 ‘형’이라고 부른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방송국 여성 프로듀서의 이야기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한 출연자에게 “일찍 오셨군요.” 하니까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 남편’으로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만 방송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빠’로 바뀐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덕수궁에는 봄 가을로 흰 면사포의 화려한 물결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추억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다. 이 때 면사포를 쓴 신부가 신랑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러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보’가 가장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도 쓸 수 있다. 신혼 초에 바로 ‘여보’라고 부르기



가 어려우므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남편을 ‘형’, ‘오빠’, 아저씨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어법에도 맞지 않아 써서는 안 되지만 ‘○○ 씨’는 흔히 쓰이고 있고 ‘아저씨’나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신혼 초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아버지’, ‘○○ 아빠’라고 한다. 장년이나 노년이 되면 남편을 ‘영감’, ‘○○ 아버지’, ‘○○ 할아버지’로 부른다. 남편을 가리키는 말은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라고 할 수 있으며 장년이나 노년에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를 부르는 말 역시 ‘여보’가 연령을 떠나 언제나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이봐요’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엄마’, ‘○○ 어머니’도 쓸 수 있다. 장년, 노년일 때에는 ‘임자’, ‘○○ 엄마’, ‘○○ 어머니’, ‘○○ 할머니’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 장년, 노년에는 ‘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자기 아내를 말할 경우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남편의 직장이나 아내의 직장에 대하여는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집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최근에 평양에서 월남한 두 인사를 대상으로 부부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그 쪽 상황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평양에서는 ‘여보’나 ‘여봐요’ 대신 흔히 ‘여’ 하고 부르고 남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에는 흔히 ‘세대주’라고 한다. ‘세대주’라는 명칭은 북한에서 거의 매일 같이 있는 인민반 회의에 세대주인 남편이 참석하는 일이 많아서 생긴 이름인 것 같다. 함경북도에서는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나그네’라고 지칭한다. 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그네’와 사는 아내들은 남편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다.



2. 부모와 자녀 사이

부 모

호칭어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어릴 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성장 후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	부모, 조부모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 아버지
	친척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어머님), 아버지(아버님)
	남편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친정 어머니(님), 친정 아버지(님)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기성 세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운 대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말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절 교육을 거의 받은 일이 없는 신세대, 즉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는 혼인 전에 쓰던 말을 혼인 이후까지 쓰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성 세대의 말투를 따르려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혼인의 단꿈에 젖어 있는 어느 신부의 이야기이다. 집안에서 귀염둥이로 자라서 혼인을 했는데 남의 집 맡며느리가 되었다. 가끔 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집에서도 수다를 떨 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희 엄마는요, 저희 아빠가요’ 하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섬섬하더라도 여기서는 친정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는 우리 집 맡며느리가 아니니?” 하고 나무란다고 한다.

어느 대학원생의 경험담이다. 수업이 늦게 끝나 교수를 모시고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히 소주 잔이 오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항상 집에 아버님 드실 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이



때 자신의 아버지를 교수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닌 ‘아버님’이라고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녀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어		○○[이름]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이름]
지 칭 어	가족, 친척에게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 직함(님)	
	타인에게	우리 ○○[이름],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돈쪽 사람에게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

어느 회사 사장의 이야기이다. 직원이 자기에게 청첩을 내밀면서 오는 토요일이 선친의 고회 잔치여서 고향에 좀 다녀와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선친의?” 하고 되묻자 “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고 대답을 했다. 나무랄 데 없이 성실한 사원인데 자신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으로 부르는 데 놀랐다.

표준 화법에서 부모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고 어렸을 때에는 ‘아빠’, ‘엄마’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성장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 혼인한 딸은 물론 친정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게 되어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들 딸이 자신의 부모를 말하거나 혼인한 딸이 자신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아버님’, ‘어머님’처럼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경의 예의보다 친밀감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친정 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님’을 붙여 쓸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타인에게 말할 경우에



는 ‘선친’(先親), 돌아가신 어머니를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선비’라고 한다.

기혼의 딸이 남편의 시대 쪽 사람에게 친정 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서 ‘○○동 아버지’, ‘○○동 어머니’라고 부른다. 물론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기댄 이 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들끼리 모임 기회가 종종 있다. 물론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켜 놓고 한가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행복한 노인들이다. 그런데 어느 노인들은 자신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 박사가 굉장한 효자거든” 한다거나 “우리 김 장군이 말야, 그게 아니래.”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칠 때에는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딸 부잣집에서 자란 어느 주부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 어리광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지난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감정은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친정에서 모두 모임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채린 어미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호칭이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 아주 섭섭했다.

자녀를 부르는 말은 미혼일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리킬 때에는 이름으로 가리켜도 좋고 가리키는 자녀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 ‘누나’, ‘삼촌’, ‘고모’로 말할 수 있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아들의 경우, 아이가 없을 때에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비’, ‘아뻘’, ‘○○ 아비’, ‘○○ 아뻘’으로 말하거나 이름으로 말한다. 혼인한 딸은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아이가 있을 때에는 ‘어미’, ‘어뻘’, ‘○○ 어미’, ‘○○ 어뻘’이라고 하거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자기 아들 딸을 ‘박사’, ‘장군’으로 말할 때에는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려 써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서 현재 평양에서는 ‘엄마’라는 말은 있으나 ‘아빠’라는 말이 쓰이지 않음을 참고로 밝힌다.



3.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 부 모

호 칭 어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지 칭 어	시조부모에게	아버님(아버지), 어머님(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자녀에게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

며느리

호 칭 어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
지 칭 어	며느리에게	아기, 새아기, (○○) 어미(어멈), 너
	부모에게	며늘애, (○○) 어미(어멈), ○○ 댁(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기, (○○) 어미(어멈), ○○ (처)
	아들에게	(○○) 어미, 네 댁, 네 처
	사돈에게	며늘애, ○○ 어미, [그들이 부르는 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 봄에 결혼한 어느 새댁의 이야기이다. 며칠 전 만동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올라 오셨으니까 그 다음날 모여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자신의 바로 윗동서인 둘째 동서도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 모인 가운데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 새댁은 한껏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한 마디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많이 잡수세요.”

그러자 이를 들은 큰동서가 넋지시 편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막내 동서는 아직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이



라고 해야지.”

모두들 가볍게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이 새댁은 시집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만 같아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다정하게 들릴 것 같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만동서 때문에 역효과가 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봐도 편잔을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요즈음은 시아버지에 대하여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아직도 항상 조심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어른이다. 그러므로 ‘-님’을 붙이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다. 반드시 ‘아버님’이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어린이의 말인 ‘아빠’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다만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되 ‘어머니’라고 ‘-님’을 붙이지 않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는 시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시조부모에게 시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이는 시부모보다 시조부모가 더 웃어른이므로 ‘아비’, ‘어미’라고 해야 한다고 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없다. 자녀에 기대어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에는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한다. 친정 부모나 친척에게는 ‘-시-’를 붙여 ‘시아버님(시아버지)’, ‘시어머님(시어머니)’ 또는 자녀에 기대어 ‘○○ 할아버지(할아버님)’, ‘○○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여름 큰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어느 젊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거리감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며느리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일렀다. 결혼 전부터 아들과 몇 년을 사귀면서 자기 집 드나들 듯하여 이미 한 식구처럼 가까워진 데에다 아들 형제를 두고 딸이 없었던 터여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리라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에는 ‘엄마’ 소리를 쑥스러워하던 며느리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다른 친구들이 ‘너희 시어머니는 신식이어서 좋겠다’는 한 마디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런데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오신 어느 날 손자며느리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엄마, 사과를 제가 깎을까요?”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이 젊은 시어머니가 호된 꾸중을 들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며느리에 대하여 호의적인 위의 예와는 반대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감정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장남과 3년 전 결혼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느 주부의 말이다. 친구들과 만나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다’고 웃곤 한다. 평상시는 ‘우리 새아기’, ‘우리 며느리’ 하다가도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듯싶을 때에는 대놓고 부를 때에는 어김없이 ‘애야’니, ‘야’니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남에게 말할 때에는 ‘개’니 ‘재’니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한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이다. 이 가운데 ‘애야’는 어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 ‘젊은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나 이는 보편성이 없다. 또 흔히 며느리를 ‘큰애야’, ‘작은애야’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의 친자녀를 부르는 경우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역시 표준 화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가리키는 말은 해당 며느리에게는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이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이르는 말은 ‘며늘애’, ‘새아가’와 아이의 이름을 넣은 ‘(○○) 어미(어멈)’, 아들의 이름을 넣은 ‘○○댁’, ‘○○ 처’로 정하였다. ‘며느리’라고 하면 남의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나 배우자 앞에서 낮추어 말하는 편이 자연스러우므로 ‘며늘애’로 한 것이다. ‘○○댁’이라고 하면 ‘청주댁’, ‘광주댁’ 등 여인들의 친정 동네가 떠오르지만 ‘철수댁’, ‘영수댁’ 등 이름과 같이 쓰면 혼란도 없고 또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 며느리를 말할 때에는 ‘며늘애’, ‘○○ 어미’라고 한다.



4.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

호칭어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지 칭 어	장인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아내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 장모님, 어머님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부모, 동기에게	장인(어른), ○○ 외할아버지, 장모(님), ○○ 외할머님

결혼 1년을 넘긴 김명희 씨는 남편인 이영신 씨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이따금씩은 이 일로 다투기까지 한다. 이영신 씨는 결혼 전부터 오래 사귄 친구이고 자주 김명희 씨 집에 놀러 왔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스스럼없이 대해 주었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친정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에서가 아니고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명희 씨로서는 친정 부모 면전에서 ‘장인 어른’, ‘장모님’ 하고 부르는 것은 딸을 둔 자신의 부모를 홀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영신 씨의 말은 다르다. 결혼까지 했는데 옛날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점잖게 행동하려고 일부러 배워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사 위

호 칭 어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지 칭 어	사위에게	○ 서방, 자네
	딸에게	○ 서방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 서방, ○○ 아비(아범)
	사위의 부모에게	○ 서방
	아들에게	○ 서방, 매부, 매형, 자형

김윤배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사람들이 처부모를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보다는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젊은 사위들을 못마땅해 한다. 따뜻함과 친근함은 혈연 관계가 갖는 속성이므로 남남 사이인 이들을 피를 나누고 태를 가른 혈족처럼 혈연적 유착 관계로 이끌어 가려는 부름말, 가리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계시는 데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 친인척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가깝게 지내려는 태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위의 처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부모를 부를 때 친부모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면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도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위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즈음 젊은 세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경우에 친부모처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 같다. 그리하여 표준 화법에서 처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은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원래 이는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에게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처부모를 당사자에게 직접 부를 때에나 처가쪽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부모나 동기, 친척, 남에게는 ‘장인 (어른)’, ‘장모(님)’,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한다. 이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쓸 수가 없다. 특히 친부모가 처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처부모에게 ‘-님’을 빼고 ‘장인’,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친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친부모에게는 존경한다는 생각보다는 친밀감이 앞서므로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친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른다면 자칫하면 친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

사위를 부르는 말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사위를 점잖게 부르는 ‘○ 서방’이라는 말 대신 딸을 부르듯 ‘그 애’, ‘○○야(아)’ 등 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직은 장모보다는 장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족 안에서 권력 또는 권위 구도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세대가 올라갈수록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전통적으로 사위에 대한 말씨가 ‘해라’가 아니라 ‘하계’였던 것을 생각할 때 자기 딸을 대하듯 반말을 한다면, ‘그 애’, ‘○○’ 등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장모는 사위를 어려워하여 바로 부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모가 사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위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어렵고도 귀한 손님이 아닌 셈이다. 사위는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서 처부모에게는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양 있는 처부모는 아직도 사위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언어 현실은 대체로 사위를 ‘○ 서방’, ‘여보게’ 하고 부르므로 이를 사위를 부르는 표준 화법으로 정하였다. 당사자인 사위에게 이룰 때에는 ‘○ 서방’, ‘자네’라고 하며 해당하는 딸이나 다른 동기, 친척에게도 ‘○ 서방’이라고 말하면 큰 잘못은 없다. 아들이나 다른 딸에게는 ‘○ 서방’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대로 ‘매부’, ‘형부’라고 할 수 있다. 외손자, 외손녀에게



사위를 이룰 때에는 아이들에게 기대어 ‘아버지’, ‘아빠’라고 해도 좋다. 타인에게는 ‘사위’, ‘○ 서방’이라고 한다.

참고로 말하면 평양에서는 장인, 장모를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라고도 하며 사위는 ‘싸우’라고 부른다.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골고루 있는 회사원 최아무개 씨는 결혼 전까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누나, 동생을 부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동기가 결혼하여 상황이 아주 복잡하여졌다. 형수를 부를 때에도 큰형수는 ‘형수님’이라고 하고, 둘째 형수는 ‘형수씨’라고 하며, 셋째 형수에 대해서는 그냥 ‘형수’라고 한다.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고 손아래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 또는 ‘김 서방’이라고 부른다.

도봉구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여자 형제를 한자로 표기할 때 손위가 ‘자(姉)’이고 손아래가 ‘매(妹)’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다. 그런데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가리키는 ‘누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동생의 남편은 물론 누나의 남편까지도 ‘매부’로 부르게 된 것 같다는 것이 이 씨의 생각이다. 어떻든 의미상으로 볼 때 손아래를 가리키는 ‘매’와 손위를 가리키는 ‘형’은 결합할 수가 없으므로 ‘매형(妹兄)’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누나의 남편은 당연히 ‘자형(姉兄)’이 되고 그 반대일 경우는 ‘매제(妹弟)’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남자 동기(남자 기준)

		형	형의 아내
호칭어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부모에게	형	아주머니, 형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아주머니(님), 형수(님)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형, 형님	형수(님)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지 칭 어	부모, 동기, 타인에게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동생, 아우	제수(씨), 계수(씨)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님)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먼저 남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 화법에서는 형수의 경우는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말할 때에는 ‘아주머님’, ‘형수님’이라 하고 부모에게 이 를 때에는 ‘-님’을 빼고 ‘아주머니’, ‘형수’라고 한다. 그러나 첫째, 둘째의 차 이에 따라 ‘-님’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는 않는다. 남동생의 아내는 직 접 부를 때에는 ‘제수씨’, ‘계수씨’라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제수(씨)’, ‘계 수(씨)’라고 한다. 또 표준 화법에서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 ‘자형’으 로 두루 부르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 서방’이라 한다. 이 가운데서 누 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도 지방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세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형’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어느 지방에서는 누 나의 남편을 ‘매형’, ‘자형’,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이른다. 누나의 남편 이나 여동생의 남편을 뭉뚱거려 ‘매부’로 부르는 것보다는 위 아래를 가려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준 화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매제’라는 말은 ‘매형’과 상대가 되는 말이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표준 화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이제 여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빠의 아내는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이를 때에는 ‘언니’, ‘새언니’라고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언니’, ‘새언니’ 외에 ‘올케’라고도 한다. 시댁 쪽 사람이나 남에게는 ‘새언니’, ‘올케’라고 한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르고 가리킨다. 언니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형부’라고 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형부’, 특히 남자 형제에게 말할 때에는 ‘매부’라고 한다. 여동생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 서방님’, 나이가 적으면 ‘○ 서방’이라고 한다. 또 부모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동기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라고 한다. 참고로 덧붙이면 지금 평양에서는 ‘매형’, ‘자형’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매부’만이 쓰인다. 또 평양에서는 언니의 남편은 ‘형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길을 묻기 위해 ‘아저씨’ 하고 불러 세우면 “체네(평양에서는 처녀를 이렇게 부름)가 언제 나한테 언니 줘?” 하고 농을 걸어 온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귀순한 어느 처녀(아가씨)의 이야기이다.

(2) 여자 동기(남자 기준)

		누나	누나의 남편
호칭어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지칭어	부모에게	누나	매부, 매형, 자형
	동기 및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지칭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형부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매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타인에게	누이동생	매부, ○ 서방



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3년째인 주부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알던 남편의 남동생에게는 ‘○○ 씨’라고 부담 없이 이름을 부르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아가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시부모 앞에서는 더 심각해진다. ‘○○ 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격으로 최근에 그 ‘○○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제 ‘○○ 씨’의 신부 호칭까지 새로운 걱정거리이다.

(1) 남편의 아우

호칭어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 작은아버지, ○○ 삼촌
	자녀에게	미혼자	삼촌
		기혼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타인에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 작은아버지, ○○ 삼촌

(2) 시누이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호칭어		아주버님, 서방님	서방님
지 칭 어	자녀에게	고모부(님)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42세의 주부 박 씨는 나이 어린 윗동서와의 호칭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린다. 윗동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적다. 그 동안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존대말로 형님 대접을 했고, 윗동서는 ‘자네’라는 명칭과 함께 ‘하계’를 한다. 그 간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참았으나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 대우를 받고 싶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예순 세 번째 생신날이어서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주부인 김 씨는 음식 준비에 정신 없이 바빴으나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방을 차지하고 왈자지껄 시끄러웠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으로부터 집으로 급히 오다 접촉 사고를 내었으니 지금 곧 골목길 입구의 제과점으로 10만원만 가져다 달라는 전화가 왔다. 김 씨는 평소에 미혼의 시동생을 ‘도련님’으로 불러 왔었는데 이 날은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져서 ‘삼촌’이 10만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사이 남편은 자신의 삼촌의 일로 알고 10만원을 가지고 시숙모님과 함께 제과점으로 나갔다.

같은 날 같은 집이라고 가정하자. 김 씨는 또다른 전화를 받았다. “저…… XX 아빤니다.” 이번에는 손위 시누이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다. 시누이 남편과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는 김 씨는 당황해서 얼른 “○○ 엄만데요…… 형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때 예의 그 시동생이 “어느 형님 찾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아니 아주버님이나 ○○ 아빠 말구요…… 고모말이에요.” 하였다. 조금 후에 “이 녀석아, 날 찾는 전화가 아니잖냐. 네 매형이 누날 바꾸라지 않아.” 하는 시고모의 투덜거림에 이어 “형수님이 그랬는데요. 고모 전화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우선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으로 정해졌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달리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혼인에 관계없이 ‘아주버님’으로 부르는 전통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친정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이룰 때에는 ‘시아주버니’와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 큰아버지’를 쓴다.

남편의 아우, 즉 시동생이 미혼일 때에는 ‘도련님’을 호칭어로 한다. 자녀에 기댄 명칭인 ‘삼촌’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결혼을 했을 때에



는 ‘서방님’으로 부른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에도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이다. 전통적인 말이어서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남편의 누나에 대한 부름말은 ‘형님’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부르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40살 된 손아래 시누이도 ‘아가씨’로 부른다는 것이다. 시누이를 아이들에게 기대어 ‘고모’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아가씨’가 남의 처녀를 부르는 말이어서 가족을 부르는 말로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써 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어서 채택된 것이다.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이 바른 부름말이다. 전통적으로 동서끼리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차례가 정해져서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부르고 존댓말을 써 왔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편 아우의 아내는 ‘동서’로 부른다. 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에는 ‘동서’라고 이르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 예법에 맞다.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을 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시누이 남편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전문가들이 만나 두 번이나 회의를 하였으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다가 세 번째에서야 겨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부름말은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고 ‘서방님’도 서울 지방에서 ‘○○동 서방님’, ‘○○동 서방님’ 등으로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서방님’이다. ‘아주버님’은 손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서방님’은 손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의견들을 존중한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평양에서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아기씨’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아이들에 기대어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들이 낡은 시대의 잘못된 관습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의 그릇된 말이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5년째인 김만용 씨는 아내보다 7살 위이고 아내의 오빠, 말하자면 손위 처남인 이범혁 씨보다는 4살 위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처가에 들렀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범혁 씨’라고 불렀는데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형님’으로 부르도록 엄명(?)을 내렸다. 김만용 씨는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그 후 손위 처남을 줄곧 형님으로 불러 왔다.

(1) 아내의 남자 동기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호칭어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 ○○ 외삼촌	처남, ○○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처남, ○○[이름]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님)



(2) 아내의 여자 동기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호칭어		처형	처제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형, ○○ 이모	처제, ○○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처제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

그러던 어느 날 김만용 씨와 이범혁 씨가 동석한 자리에 김만용 씨의 두 살 아래인 남동생이 합석을 하게 되었다. 김만용 씨 동생과 이범혁 씨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김만용 씨의 동생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임을 이범혁 씨가 알아차렸다.

“저, 혹시 대한고등학교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너……”

“네, 이범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너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들은 크게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으로 정하였다. 옛날부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차례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로 아래위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차례에 따라 부르는 말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지나친 남성 중심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



금은 처남과 매부 사이가 매우 가까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여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 부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손위 처남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내의 남동생은 전통을 따라 ‘처남’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본인에게 가리킬 때에는 ‘처남’ 또는 ‘자네’라고 한다.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 ‘○○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님)’를,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이라고 한다.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나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라고 하고 부모, 동기, 남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 또는 ‘○○ 이모’라고 한다.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동서’로 결정하였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한가지로 손위 동서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형님’이라고 하되, 나이가 적으면 ‘동서’라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 등을 적절히 쓸 수 있다. 아내의 여동생 곧 처제의 남편은 전통적으로 불러 오는 바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을 부르는 말로 결정하였다. 가리키는 말은 손위 동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가 쪽 사람들에게는 ‘동서’ 또는 ‘○ 서방’으로 정하였다.

손위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의 댁’이라고 부른다. ‘아주머니’가 숙모를 가리키고 또 남에게도 ‘아주머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처남의 댁’ 역시 ‘청주댁’, ‘안성댁’ 등에서 보는 것처럼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손위 처남의 아내를 직접 부르지 않고 가리킬 때에는 손아래의 경우처럼 ‘처남의 댁’이라고 한다. 또 손아래위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숙모(님)’라 하고 부모, 동기, 남들에게는 ‘처남의 댁’, ‘○○ 외숙모’라고 이른다.



8. 숙질 사이

부부 교사로서 결혼한 지 5년 된 이영란 씨는 종갓집 만며느리로서 결혼 후 전혀 엉뚱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다. 시아버지의 오 형제 가운데 밑으로 삼 형제가 남편과 나이가 같거나 두세 살씩 밑인데 예우에서 작은아버지들은 예외 없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남편보다 네다섯 살씩 적은 작은어머니들은 남편에게 거리낌 없이 반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결혼 날을 잡은 막내 삼촌이 오늘은 호텔 커피숍에서 신부측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다. 그런데 신부감은 스물 네 살이라고 하니 자신보다 아홉 살이 적은 작은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영란 씨가 남편과 함께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 그 때까지 다 소꿉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맞은편의 신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머. 선생님. 선생님, 이영란 선생님이시죠? 저 모르시겠어요? 나미예요. 김나미!”

아찔한 현기를 느끼며 영란 씨는 눈을 감아 버렸다. 자신의 교사 초년 시절에 담임을 했던 중학교 제자가 지엄하신 작은어머니로 다가와 눈앞을 깜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조카와 그 배우자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 ○○[이름] 성년: 조카, ○○ 아버지, ○○ 아범,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아가, 새아가, ○○ 어머니,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미성년: ○○[이름] 성년: 조카, ○○ 어머니, ○○ 어멈,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 서방, ○○ 아버지, ○○ 아범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지 칭 어	당 사 자 외의 사 람 들 에 게	친조카를	조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조카딸, 질녀(姪女)	조카사위, 질서(姪婿)
		누이의 자녀를	생질 (甥姪)	생질부 (甥姪婦)	생질녀 (甥姪女)	생질서 (甥姪婿)

회사원 이수호 씨는 조카를 보낼 테니까 책을 몇 권 챙겨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친구에게서 받았다. 조카가 몇 살이나고 했더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씩씩한 대학생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꽃 같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조카가 아니고 질녀로구나 생각하고 친구의 성이 박 씨니까 박 씨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다. 결국 알고 보니 누이의 딸, 말하자면 생질녀였던 것이다. 수호 씨는 전화로 그 친구를 나무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아, 누나의 딸을 왜 조카라고 해서 헛갈리게 하나?”

친구도 한 마디 했다.

“번거로운 세상 더 번거롭게 만드네.”

아버지의 형은 말로 할 때에는 모두 ‘큰아버지’이며 ‘-님’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에서는 ‘-님’을 붙일 수 있다. 조카며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님’을 붙인다. 아버지의 만형의 경우는 특히 ‘백부’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부르는 말로는 마땅하지 않고 남에게 가리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의 형을 자녀에게 기대어 말할 때에는 ‘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님)’, ‘종조부(님)’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큰할아버지(님)’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킨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큰외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님)’, ‘외종조부(님)’, ‘○○동 큰외할아버지(님)’ 등으로 한다. 큰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자녀가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아빠) 계시냐?’로 말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큰아버지 계십니까?’로 한다. 큰어머니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맞추어 말하면 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이고 결혼을 하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나이 차이가 다섯 살이 안 되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에 대하여는 경어를 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맏조카인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조카들보다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언어 예절이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무거운 책임을 가졌으므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는 ‘고모’, ‘아주머니’이다. 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대고모’, ‘왕고모’, ‘고모할머니’라고 한다. 어머니의 여자 동기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인데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이모할머니’라고 한다.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는 고모, 이모 대신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할머니’, ‘○○동 할머니’처럼 쓸 수 있다. 고모부, 이모부는 자녀에 기대어 말할 때에 고모, 이모에 맞추어 ‘고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지’, ‘○○동 할아버지’, ‘○○동 할아버지’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고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말이 없다. 이 때에는 지역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남동생은 ‘외삼촌’, ‘아저씨’이고 그 아내는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시댁 쪽의 나이 많은 남자 조카나 여자 조카는 ‘-님’을 붙여 ‘조카님’이라 한다.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이라 하고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또는 ‘질부(姪婦)’라 하며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姪婿)’라 한다. 누이의 자녀는 부를 때에는 친조카의 경우와 같으나 가리킬 때에는 ‘생질(甥姪)’, ‘생질녀(甥姪女)’, 그 배우자는 ‘생질부’, ‘생질서’라 한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부르고 남에게 가리킬 때에는 앞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사위’ 등으로 말한다.



9. 사돈 사이

(1) 위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장 어른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장 어른, [관계말]

우이동에 사는 조미숙 씨는 며칠 후에 며느리를 본다고 한다.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사돈 사이라는데 마땅한 호칭어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며느리 될 애의 어머니에게는 ‘사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며느리의 형제들에게는 며느리에 빗대어 “큰언니 수고하십니다.”, “시누이 결혼 준비에 큰올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말하지만 개운하지가 않은 것이다.

(2)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 및 조카, 동기 배우자 (형수, 올케 등)의 조카	
호칭어 및 사자에게 지칭	남자	여자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관계말]

잠실에 사는 문채옥 씨는 사위의 부모가 안 계시다. 사위의 누님이 있는데 그이는 자신에게 ‘사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럼 그 자신은 사위의 누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상계동에 사는 윤정태 씨는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의 남동생을 ‘사제’,



‘사돈 총각’, ‘여보게’ 중 어느 것으로 호칭하는 게 좋은가. 딸의 시누이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또, 딸의 시할아버지도 ‘사돈 어른’으로 부르는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대학생인 이상규 씨는 누나의 시고모댁에서 중학생을 가르친다. 누나의 시고모를 누나처럼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주머님’ 하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누나처럼 ‘고모님’ 하고 부를 때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첫째, 같은 항렬의 사돈 사이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 지칭하는 말 가운데에 발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 어른’, ‘사돈’으로 정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에는 ‘사돈 어른’, 아래일 때에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발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으로 정했다. 안사돈이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으로 한 것이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으로 정했다.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안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 어른’으로 정했다. 나이 차이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발사돈’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도 부모의 호칭어와 같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남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이고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이다. 이들 같은 항렬의 사람인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함께 경우에 따라 제삼자에 기댄 표현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부르는 사람과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사장 어른’을 택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안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 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 어른’과 ‘○○시(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 어른’으로 부르도록 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장 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조카의 이름에 기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셋째, 아래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조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도록 했다. 상대방의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외, 고종, 이종) 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쓰도록 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로 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외, 고종, 이종) 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우리말처럼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한 말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발달한 호칭어와 지칭어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가문에 따라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전에는 기성세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를 엄격히 교육하였고 자녀들은 가정뿐 아니라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예전의 그 엄격히 지켜지던 호칭어, 지칭어를 아는 이가 드물다. 또, 젊은이들은 이들을 배운 일이 없다. 새로운 세대들의 언어 예절이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체로 신세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생활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흔히 잘못 쓰는 말들

여 규 병 (동아일보 어문연구팀장)

1. 뜻이 헛갈리는 말들

㉠ ‘초토’가 잘못 쓰인 것은?

- (1) 2005년 4월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불타는 등 강원도 양양군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 (2)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초토화되었다.
- (3)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하였다.

☞ ‘초(焦)’는 ‘그을릴 초’이다. 따라서 ‘초토(焦土)’는 ‘그을린 땅’이라는 뜻이다. 불이 나서 땅이 그을린 상태이거나 불 때문에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초토’이다. 뉴올리언스처럼 비와 물과 바람으로 엉망진창이 된 곳을 ‘초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토’는 산불이 난 양양 지역이나 폭격 맞은 바그다드를 표현할 때에 적절한 말이다.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긴 뉴올리언스나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피해를 본 남아시아처럼 불이 아닌 비바람 해일 같은 자연현상으로 ‘매우 어지럽고 못 쓰게 된 모양’은 ‘쑥대밭’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 ‘버금가다’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 (1) (인천을) 중국 푸둥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2004년 8월 건설교통부 ‘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발전방안’)
- (2) 아르빌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를 누려 왔다.
- (3)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졌다.

☞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는 것’을 ‘ 으뜸’이라고 하며, ‘ 으뜸의 바로 아래’를 버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으뜸은 첫째이며, 버금은 둘째이다. 버금이 홀로



쓰일 때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드문데 ‘버금가다’라는 형태로 쓰이면 ‘둘째가 다’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동등(同等)’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1)에서는 한국 공무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을 세우면서 ‘중국의 푸둥에 둘째가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능가하는’이나 ‘필적하는’을 써야 한다. (2)에서도 ‘둘째가는’이라는 의미의 ‘버금가다’보다는 ‘비슷한’, ‘맞먹는’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낫다.

㉠ ‘갑부’가 바르게 쓰인 것은?

- (1)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세계의 갑부다.
- (2)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세계 갑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 (3) 이견희, 신격호 회장 세계 갑부 순위 후퇴.

☞ ‘갑부(甲富)’란 ‘첫째가는 부자’이다. ‘갑부’의 ‘갑’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식으로 사물의 순서를 매길 때 쓰는 ‘첫째’를 이르는 말이다. 첫째가는 부자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2) ‘갑부의 대열’, (3) ‘갑부 순위’라는 말은 옳지 않다. ‘부자(부호) 대열’, ‘부자 순위’라고 하면 된다. 다만, 범위를 좁혀 ‘한국의 갑부’, ‘부산 갑부’처럼 할 수 있다.

㉠ ‘자문’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 (2) 시장은 그 일에 정통한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 (3)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 일에 관해 자세히 자문했다.
- (4) 그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

☞ ‘자문(諮問)’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낱말이다. 특히 ‘자(諮)’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문의함’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이므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1)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라고 하면 ‘질문해 달라고 하다’와 마찬가지로 뜻이 되고 만다. 이때 ‘문의하다’, ‘도움을 구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3)에서는 아랫사람인 수석비서관이 윗사람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는 없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물음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응하다’, ‘조언하다’, ‘물음에 답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4)도 ‘물음을 받아’라는 뜻이 되므로 옳지 않다. 이 역시 ‘조언을 듣다’, ‘도움을 받다’라고 하면 된다.

다만, 어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속해 있으면서 그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밝히거나 조언을 하는 기구나 변호사 등은 ‘자문 기구’, ‘자문 변호사’처럼 쓸 수 있다.

㉠ ‘아는 척하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아는 척한다.
- (2) 그가 나를 보더니 아는 척했다.
- (3)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 ‘아는 척하다’는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거짓으로 꾸미다’의 뜻이다. ㉠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듯한 표정을 하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라는 뜻으로는 ‘알은척하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2)는 ‘그가 나를 보더니 알은척했다’라고 해야 한다. ㉢은 ‘그가 나를 알은척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알은척도 안 한다. 친구에게 알은척하지도 않고 돌아누웠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척이나 하나’처럼, ㉣은 ‘내 처지를 알은척하는 표정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보고 알은척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척하지 마라’처럼 쓰인다.

‘아는 척하다’와 ‘알은척하다’의 ‘척’은 ‘체’로 바뀌 ‘아는 체하다’, ‘알은체하다’로 할 수 있다. 다만, ‘아는 척하다’는 구(句)이므로 띄어 쓰지만 ‘알은척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 ‘회복’이 잘못 쓰인 것은?

- (1)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 피로 회복을 위해 ‘박카스’를 마신다.
- (3)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 ‘회복(回復)’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다. ‘건강 회복’은 ‘건강을 되찾음’을, ‘신뢰 회복’은 ‘신뢰를 다시 쌓음’을 뜻한다. 따라서 ‘피로 회복’이라고 하면 ‘피로한 상태로 돌이킴’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 (2)는 ‘원기 회복’으로 하거나 ‘피로 해소’라고 해야 이치에 맞게 된다.

㉠ ‘배’가 잘못 쓰인 것은?

- (1) 두께는 두 배로 늘어나고, 면적은 두 배로 줄어든다.
- (2) 속도가 5배 빨라졌다.
- (3) 물가가 10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났다.

☞ ‘배(倍)’는 ‘갑절 또는 곱절,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곱하기’이다. 이 ‘배’는 ‘들다, 늘다, 오르다, 빠르다’ 같은 말과 어울려 쓰이지만 ‘줄다, 내리다, 느리다’ 같은 말과는 어울리지 못 한다. ‘줄다’와 같은 말에는 ‘2분의 1로 줄었다, 10% 줄었다’처럼 ‘분수’나 ‘%’ 따위를 함께 쓰면 된다.

㉠ ‘-산(産)’이 잘못 쓰인 것은?

- (1) 국내산
- (2) 수입산
- (3) 미국산
- (4) 통영산

☞ ‘-산’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한국산, 미국산, 멕시코산, 외국산, 제주산’처럼 쓴다. (2)의 ‘수입’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산’을 붙일 수 없다.

2. 혼동하기 쉬운 말들

㉠ ‘붙이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 (2) 중환자에게 간호사를 붙여 주었다.
-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



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 ㉠붙이다: 포스터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찬장을 벽에 붙이다. 홍정을 붙이다. 접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경호원을 붙이다. 단서를 붙이다. 습관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한 대 올려붙이다.

㉡부치다: 일이 힘에 부치다. 부채로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책을 소포로 부치다. 남의 논을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저냐를 부치다. 토의에 부치다. 원고를 인쇄에 부치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 ‘빌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학생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다.
- (2) 조문객들은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3) 한자의 뜻(새김)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기도 했다.(시정곤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 ‘빌다’는 호소하거나 간청하거나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께 빌다’, ‘용서를 빌다’, ‘동냥을 빌다’처럼 쓰인다. (3)은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이 있는 말 ‘빌리다’를 써야 한다.

㉣ ‘당기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공사 기간을 당겨 예정보다 일찍 끝냈다.
- (2)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당겼다.
- (3) 지천으로 있는 집의 음식보다는 역시 남의 집 음식이 당기는 것이었다.
- (4)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당겼다.

☞ ‘당기다’는 ‘마음이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물건 따위를 가까이 오게 하다’, ‘시간을 앞당기거나 줄이다’라는 뜻이다. (4)처럼 피부 따위가 팽팽해진다는 뜻으로는 ‘당기다’를 써야 한다. ‘불이 옮겨 붙거나 그렇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대기다’이다. ‘바싹 마른 나무가 불이 잘 대기다’, ‘담배에 불을 대겼다’처럼 쓴다.



㉠ ‘다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인삼 다린 물(경기 김포시 농협의 제품명)
- (2) 종년이 조복을 다리다가 자 버리는 바람에 그만 깃을 태워 버리지 않았겠나?(박경리, 토지)
- (3) 바지를 다려 줄을 세웠다.

☞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라는 뜻이며, ‘달이다’는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리나라도록 끓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1)은 ‘달인’이라고 해야 한다.

㉠ ‘새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고개 드니 날 샐네.(서울 4·19국립묘지 사거리 근처 PC방 이름)
- (2) 여기서 우리 밤 썰까?(" ·현재는 폐업)
- (3)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였습니다.(김동인, 광염 소나타)

☞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날이 새다’, ‘밤이 새다’처럼 쓰인다. (2)에서처럼 목적어 ‘밤(을)’이 있으면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타동사 ‘새우다’를 써야 한다.

㉠ ‘맞추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권지예의 ‘뽕장어 스투’를 읽는 동안 내가 맞춰야 할 과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심사평)
- (2) 이 많은 부품 중에서 이것을 무엇과 맞추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 (3) 나 같으면 그런 남편만 있으면 그야말로 날마다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이광수, 흙)
- (4) 안성맞춤.

☞ ㉠ 맞추다: ① 주문하다.(양복을 맞추다.) ② 닿게 하다.(입을 맞추다.) ③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나사를 맞추다. 틀에 맞추다.) ④ 비교하여 살피다.(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 ⑤ 조화를 이루다.(발을 맞추다. 마음을 맞추다.) ⑥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다.(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하다.)



원고를 심사 기준에 맞추다.) ⑦ 어떤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다.(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다. 시곗바늘을 5시에 맞추다. 주파수를 맞추다.) ⑧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화투짝을 맞추다. 인원을 맞추다.) ⑨ 열이나 차례 따위를 똑바르게 하다.(줄을 맞추다. 일련번호를 맞추어 정리하다.) ⑩ 다른 사람의 뜻에 맞게 행동하다.(비위를 맞추다.) ⑪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않다.(약속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나서야 한다.)

㉠ **맞히다**: ‘맞다’의 사동사. 정답을 맞히다. 세 문제를 맞혔다. 화분에 눈을 맞혔다. 그 여자에게 바람을 맞혔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혔다. 화살을 과녁에 정확히 맞혔다.

※경기 안성시는 낚그릇으로 유명한 곳이다. 예부터 유기(鑄器) 가운데 안성 것을 최고로 쳐 주었다. 안성에다 유기를 주문하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나온다고 해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고유 상표를 만들면서 ‘안성마춤’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에서 먼저 ‘안성맞춤’을 상표로 등록해 어쩔 수 없이 ‘안성마춤’으로 쓰는 것이라고 한다. 안성 시민은 물론 안성시 특산물을 사는 많은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처사다.

㉡ **‘발자국’**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 (2)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 (3) 백범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다. (1)처럼 소리가 나는 것은 ‘발소리’라고 한다. 흔적이나 (3)에서와 같이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발자취’다.

㉢ **‘산자락’**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눈에 보이는 산자락의 뿌리는 모두 백두대간에 닿아 있다.
- (2) 마을을 감싼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했다.
- (3) 멀찍이 산자락에 싸여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유재용, 성역)

☞ ‘산자락’은 ‘밋밋하게 비탈져 나간 산의 밑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은 ‘산’ 또는 ‘산봉우리’라고 해야 하며, (2)는 ‘산비탈’이라고 해야 한다.

㉮ ‘틀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리다.
- (2)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틀려 있다면 틀린 신문입니다.
(이병주, 행복어 사전)
- (3)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 ‘틀리다’는 (2)처럼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또는 (3)처럼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1)처럼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뜻할 때는 ‘다르다’를 써야 한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을 뜻할 때에도 ‘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달라’처럼 ‘다르다’를 쓴다.

3. 뜻을 바로 알고 써야 할 말들

3-1. 태아(胎兒)-태어나다

‘태아’는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이다. 이 ‘태아’를 모든 동물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7월 30일치 신문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룡 태아 화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룡은 ‘알’로 번식하는 파충류다. 따라서 ‘태아’가 될 수 없다. ‘태아 화석’은 ‘알 화석’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만으로 부족하다면 ‘부화 직전의 알 화석’이라고 하면 된다.

‘태어나다’도 ‘사람이나 동물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태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므로 알로 번식하는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8월 26일치 신문도 대부분 한 동물원에서 홍학 새끼가 ‘태어났다’라고 잘못 보도했다.

알로 번식하는 난생 동물은 알을 낳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



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까다’라고 한다. 난생 동물 가운데 벌레나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을 특별히 ‘슬다’라고 하기도 한다. 또 파리의 알은 ‘쉬’라고 해서 파리가 알을 낳는 것은 ‘쉬를 슬다’라고 한다.

3-2. 선영(先塋)

신문 등에 실린 부고(訃告)를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 ‘장지(葬地)는 ○○○ 선영(先塋)’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塋’은 ‘무덤 영’이므로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장지’가 ‘조상의 무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때는 ‘선영’이 아닌 ‘선산(先山)’이라고 하거나 ‘선영하(先塋下)’라고 해야 한다. ‘선산’은 ‘선영’과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는 말이다.

3-3. 선친(先親)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인답시고 ‘선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바른 말이 아니다. ‘선친’은 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친의 고집은 닮았지만, 결단력은 닮지 않은 것 같다.”처럼 쓰는 말이지 제3자가 “그 사람의 선친은 훌륭한 분이셨다.”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한자어로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등이 있다.

3-4. 여부(與否)

흔히 ‘생사 여부’, ‘존폐 여부’, ‘진위 여부’, ‘성패 여부’처럼 쓴다.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생사, 존폐, 성패, 진위’ 등은 이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여부’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굳이 ‘여부’를 쓰려면 ‘생존/사망 여부’, ‘존재/폐지 여부’, ‘성공/실패 여부’, ‘진실/허위 여부’라고 해야 한다.

3-5. 탄신(誕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처와 예수 두 성인(聖人)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은 1949년 이 영이 제정될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의 명칭은 ‘기독탄생일’이다. 1975년 부처의 탄생일을 공휴일에 넣을 때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때 ‘기독탄생일’도 ‘기독탄신일’로 수정하였다.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로서 ‘신(辰)’은 ‘날[日]’을 나타낸다. ‘탄신일’이라고 하면 ‘일’은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생일(生日)’의 높임말은 ‘생신(生辰)’, ‘탄일(誕日)’, ‘탄생일(誕生日)’이다. 대통령령의 두 성인 ‘탄신일’은 ‘탄신’이나 ‘탄생일’, 또는 관련 종교계에서 쓰는 말로 고쳐야 마땅하다.

3-6. 미망인(未亡人)

흔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미망인’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다’는 뜻으로 여성이 스스로 낮추어 이르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같은 뜻으로 남편을 여윈 사람을 부르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실례가 될 일이다. 그냥 ‘부인’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3-7. 장본인(張本人)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인다. 다만 이 말이 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 말을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될 당사자가 부정적인 뜻으로 느낀다면 큰 실례가 될 테니 조심할 일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민주화를 이끈 주인공(주역)’처럼 구분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절체절명’이다.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라는 뜻으로 절박한 상황을 과장해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흔히 ‘절대절명(絶對絶命)’으로 잘못 쓰곤 한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연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이 쓰인다.

4. 일본어의 영향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어 찌꺼기가 우리의 말글살이를 흐려 놓고 있다. 찌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본어 또는 일본어식 조어가 마구잡이로 우리 생활에 흘러들고 있다.

4-1. 입장(立場)

‘입장’은 수많은 우리말을 죽이는 낱말이다. 일본어 ‘立場(たちば)’은 우리 말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뜻이 엄청나게 확대된 대표적인 낱말이다. 이 말은 ‘처지(處地)’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뜻이 ‘처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입장’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면 ‘입장’은 그 쓰임새에 따라 ‘처지, 위치, 형편, 상황, 자리, 직책, 방침, 태도, 자세, 견해, 의견, 주장, 판단, 해명, 생각, 체면, 시각, 관점, 인식, 원칙, 뜻, 심정, 동향, 노선, 의지, 결심’ 같은 말 가운데 하나로 바뀌 주면 뜻이 더 확실해진다. 아예 ‘입장’을 없애 버려야 뜻이 더 분명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입장 난처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처하다’라는 말이 ‘처지가 곤란하다’라는 뜻이니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여야 할지 정말 난처해지고 만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방침, 태도)

○신문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모두 실었다.

(⇒주장, 또는 삭제·양측을 대변하는)

○익삼 씨의 입장에서서는 참으로 복통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처지, 또는 삭제·익삼 씨로서는)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얼넘גיע 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

(⇒삭제·내가 난처해진다)

○비록 그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자기를 걸인이 아닌 당당한 신사로 대해 주기를 희망했다.(⇒형편, 처지)

○난 문학을 할 작정이요.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학을 할 작정ियो.

(⇨자세, 또는 삭제·불편부당한 문학을)

○저희들은 대원위 합하께오서 왜국의 유혹에 동요하시고 그동안 견지해

오시던 자주적인 입장을 버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생각, 태도, 정책)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관점, 시각, 또는 삭제·자주적으로 재정리하려는)

○다만 지금의 이 결론이, 단지 수양 자기의 억측이라든가 한명회의 보고가

허보라든가 하여야 안평의 입장이 서게 될 터인데...(⇨체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정적에 대한 적개심, 자신의 결백함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을 조부의 입장에서 읊었다.(⇨처지, 심정)

4-2. 현해탄(玄海灘)

‘현해탄’은 일본어 ‘젠카이나다(玄海灘)’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어이다. ‘대한해협 남쪽, 일본 후쿠오카 서북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인들은 ‘젠카이나다’라고 부른다. 즉 ‘대한해협’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후쿠오카 앞바다를 일컬어 ‘젠카이나다’라고 하는데 이 ‘젠카이나다’를 마치 ‘대한해협’을 운치 있게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아주 많다.

대부분 ‘현해탄을 건너다’, ‘현해탄을 오가다’, 현해탄을 넘다’ 같은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을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뱃놀이했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치에 맞겠지만 ‘일본으로 가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이다.

현해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 셈이다. 각종 지도에도 ‘Korea Strait’라고 되어 있다. ‘현해탄’은 ‘대한해협’이라 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쓰시마 섬 동쪽의 일본 쪽 해협 역시 ‘대한해협’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쓰시마 섬을 중심으로 일본 쪽은 대한해협 ‘동수도(eastern channel)’이며 대한민국 쪽은 ‘서수도(western channel)’가 된다. 이 ‘대한해협 동수도’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야 굳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4-3. 잔고(殘高) 판매고(販賣高)...

‘잔고,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와 같은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高)’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고’는 금액이나 양(量)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고’는 ‘-액, -금, -량’으로 바뀌서 표현해야 한다.

‘잔고’는 ‘잔금, 잔액, 나머지’로, ‘생산고’는 액수를 뜻할 때는 ‘생산액’으로, 규모를 말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면 된다. 다른 예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금액이나 양을 나타내는 말에 ‘고’가 쓰였다면 이는 모두 일본식 조어이므로 ‘-액, -량’ 등으로 바꿔 주어야 옳다.

4-4. 수입선(輸入先) 거래선(去來先)

‘수입선, 거래선’ 같은 말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선(先)’ 역시 일본어에서 온 것이다. 이 ‘선’은 일본어에서는 ‘상대방’이나 ‘대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선’에 이런 뜻이 없다. ‘수입처, 거래처’처럼 ‘-처(處)’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행선지(行先地)’도 일본어이다. 우리말로로는 ‘갈 곳, 목적지’라고 한다.

4-5. 세대(世帶)

가구(家口)를 흔히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어 ‘世帶(せたい)’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주민 등록 등본 등을 떼어 보면 ‘세대주’라는 항목이 있기도 하다. 우리말을 가장 정확히 써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어를 국민 모두에게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도 그대로 ‘총 2000세대 분양’ 등의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독립된 한 집안을 이룰 때에는 ‘세대’가 아닌 ‘가구’를 써야 한다. 그 집의 주인이나 가장도 ‘세대주’가 아니라 ‘집주인, 가구주, 가장’으로 써야 한다.

4-6. 내역(內譯)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내역’ 또한 일본어이다. 우리말에는 ‘명세(明細)’가 있다. 자세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업 내역, 물품 내역, 공사비 내역’ 같은 말은 ‘내역’을 ‘명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으로 바뀌 주면 된다.

4-7. 사체(死體)

문국진: 일본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체라는 것은 동물의 사체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송장, 시체가 되지요. 사람과 동물은 구별합니다.

우에노 마사히코: 일본은 한자 제한으로 ‘시(屍)’와 ‘사(死)’를 통일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전부 통일해서 ‘사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시(屍)’라는 한자를 없앴습니다.

문국진: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사체 부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물의 사체를 부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문국진,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4-8. 그 밖의 것들

고수부지(高水敷地)⇒둔치, 강터	곤색(紺色)⇒감색, 진남색, 검남색
굴삭기(掘削機)⇒굴착기(掘鑿機)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기라성 같은⇒쟁쟁한)
노견(路肩)⇒갓길, 길섶	다데기⇒다짐, 다진 양념
다시(出汁)⇒맛국물	부(分)⇒푼(8부 능선⇒8푼 능선, 3부 다이아몬드⇒3푼 다이아몬드)
부지(敷地)⇒터, 대지	선착장(船着場)⇒나루
소데⇒소매(소데나시⇒민소매)	소라색(空色)⇒하늘색
수순(手順)⇒차례, 순서	시건(施鍵) 장치⇒잠금 장치
시말서(始末書)⇒경위서	시합(試合)⇒겨루기, 경기
십팔번(十八番)⇒애창곡	아나고⇒붕장어
오뎅(御田)⇒꼬치 ※요즘은 오뎅이 ‘어묵’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임.	와사비(山葵)⇒고추냉이
전향적(前向的)⇒긍정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발전적	정종(正宗·まさむね)⇒청주(淸酒) ※정종은 일본 마사무네(正宗) 가문에서 빚은 술에서 유래함.
지리⇒맑은탕	진검(眞劍) 승부⇒정면 승부
혹성(惑星)⇒행성(行星)	

공문서 바로 쓰기

이 정 미 (국립국어원)

1. 공문서란

공문서(公文書)는 좁은 의미로는 공공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행정 기관 내부에서 작성되고 시행되는 문서와 행정 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문서,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문서는 물론이고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를 포괄한다.

2. 공문서 바로 쓰기 _____ 해서 중요하다

공문서의 문장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서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 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문서의 문장이 모범적인 문장으로 작성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생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문장을 바르게 쓰도록 이끌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3. 공문서의 문장은 _____ 한 글이어야 한다

공문서의 문장은 바른 글, 쉬운 글, 명확한 글, 논리적인 글, 간결한 글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공공 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규범에 맞는 글쓰기로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문서는 공무원끼리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시되거나 고지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문서는 일종의 보고서나 공고문 형식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므로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글을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전후 논리가 분명해야 하고, 내용이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공문서의 표기는

4.1.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른다

■ 회계년도/회계 연도

실제 공문서 자료에서는 특히 두음 법칙에서 벗어난 오류형이 자주 나타난다. 두음 법칙에 따르면 한자어의 첫머리에는 원칙적으로 ‘ㄱ’ 또는 ‘ㄴ’(ㄱ, ㄴ, ㅋ, ㆁ, ㅠ 앞)을 쓸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존 명사의 첫머리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년도’에서 ‘년도’는 ‘2006년도’의 의존 명사 ‘년도’에서 잘못 유추해 적은 오류형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두 단어가 붙어 있어 ‘년도’의 ‘년’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년도’는 두 단어이며 설령,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라 할지라도 뒤 단어의 첫머리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1> 년간 경보가 올린 적이 →

2> 신청인은 7번란까지, 투입양 →

☞ ‘난(欄)’과 ‘양(量)’은 명사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나 한자어 뒤에 이어져 한 덩어리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독자란(讀者欄)’, ‘작업량(作業量)’의 ‘란’, ‘량’처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접축율/접축률

한자의 음은 본음과 속음이 있는데 음운적인 조건이나 한자어에 따라 관용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경우는 그 소리대로 적는다. ‘率’은 본음이 [률]이나 모음이거나 ‘ㄴ’ 뒤에서 ‘이자율(利子率)’, ‘할인율(割引率)’처럼 [율]로 소리가 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본음으로 소리가 나므로 각각 그 소리대로 적는다.



3> 공과금 인상을 →

4> 승락하고 →

☞ ‘諾’은 본음이 [낙]이나 ‘수락(受諾)’, ‘허락(許諾)’처럼 관용적으로 속음 [락]으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각 굳어진 소리에 따라 적는다.

■ 자본금이 미달되/미달돼

일반적으로 널리 범하는 맞춤법 오류형은 공문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되-’는 ‘-다’든 ‘-어’든 무슨 어미가 붙어야 문장에 쓰일 수 있으므로, 문장에서 ‘미달되-’는 부적절하다.

5> 단가 계약이 체결되었습을 공고합니다. →

☞ ‘체결되었다’의 명사꼴로 ‘체결되었습’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습’은 ‘체결되었습니다’의 ‘-습니다’에서 잘못 유추해 적은 오류형이다.

6> 소숫점 아래 →

☞ 한자어 사이에서는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6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어선을 매입하고져/매입하고자

공문서는 공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비표준어가 쓰여서는 안 된다. 실제 공문서 자료에서도 비표준어를 쓴 사례는 아주 드문 편이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익숙하게 쓰이는 비표준어 유형이 간혹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준 어미는 ‘-고자’이며, ‘-고져’는 옛말로 비표준어이다.

7> 이를 개선코져 →

8>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



4.2. 띄어쓰기에 유의한다

띄어쓰기는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띄어쓰기에 대한 무관심 또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공문서에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나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4.2.1. 의존적 명사

▣ 과정을 마친자/마친 V자

의존 명사는 전형적으로 ‘-ㄴ’, ‘-르’와 같은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 말은, 앞말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9> 제출한바 없으므로 →

☞ ‘제출한바’의 ‘바’는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에서 쓰인, ‘앞의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어미 ‘-ㄴ바’의 ‘바’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0> 물품을 매입하는데 집행하고 →

☞ 의존 명사 ‘데’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데 흔히 ‘~한다. 그런데~’의 의미로 쓰이는 어미 ‘-는데’의 ‘데’와 혼동되어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존 명사 ‘데’에는 ‘에’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미 ‘-는데’의 ‘데’에는 이것이 어색하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 업무추진시/업무 추진 V시

명사류 뒤에 바로 오는 의존적인 명사들은 용언류의 관형질 뒤에 쓰인 경우와 달리 접미사처럼 인식되어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띄어 써야 한다.



11> 공사중, 피해자측 →

☞ ‘시’, ‘중’, ‘측’ 같은 경우에는 명사류뿐만 아니라 ‘규정을 어겼을 신에는’, ‘조사하는 중이다’, ‘이익을 보는 측에서’와 같이 관형꼴 뒤에서도 쓰이므로 의존 명사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 구청장과 직원간 대화의 날, 범위내, 1997.9.말경 →

☞ 관계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간’은 ‘10년간’의 ‘-간’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미사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한다.

■ 토지 또는 건물등/건물 ∨ 등

‘등’은 열거된 말의 수가 1개인 경우 열거가 아니라 복수라 하여 흔히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오등은~”에서의 ‘등’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등’은 인정되지 않고 열거의 의존 명사 ‘등’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등’은 열거되는 말의 수에 상관없이 열거의 의미로 쓰는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복수의 의미로 쓰는 경우에는 ‘등’ 대신 ‘들’을 붙여 써야 한다.

4.2.2. 한자어 명사의 연결체

실제 공문서 자료를 보면 한자어 명사의 연결체를 대부분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특히 2글자로 된 명사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거의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어 여부를 따져 각각이 단어라면 띄어쓰기 기본 원칙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물론 두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경우라면 반드시 붙여 써야 하고, 관련 집단에서 제한된 의미로 쓰이는 전문어라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13> 문서번호/시행일자/내부결재/관련근거 →

14> 협조사항, 다음사항, 기일엄수 →

15> 해당여부 검토필요, 올바른 어문사용, 친절·모범직원 →

16> 3일전, 협의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



4.2.3. 접사

의존적이며 단어의 앞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는, 역시 단어 앞에 오는 관형사와 혼동되어 띄어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붙여 쓴다.

17> 재∨시공, 사전 미∨협의회, 제 일차 교육 →

18> 승인∨받다, 미보완∨되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위(를) 받다’, ‘문제(가) 되다’, ‘계(를) 하다’에서 ‘받다’, ‘되다’, ‘하다’는 동사이다. 그러나 행위나 변화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는 이 동사들이 접사로 변한다.

4.2.4. 전문어 및 고유 명사

■ 대외경제 협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모두 붙여 쓸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기금, 특별 회계, 위원회, 제도, 시책 따위의 명칭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 역시 이에 따라 붙여 쓸 수 있으나, 법령을 언급할 때 쓰는 ‘같은∨법’, ‘같은∨규정’ 따위는 띄어 쓴다.

1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기관 이름 뒤에 전문어를 쓰는 경우에는 전체를 전문어로 보고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앞의 기관명은 고유 명사이므로 별도로 띄어 쓴다.

2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

22>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

■ 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

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



고유한 명칭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단위별로 붙여 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관, 법인, 단체의 이름은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24> 학교법인대일학원 →

☞ 학교 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합자 회사, 주식회사 등이 법인명이나 회사명 앞에 올 경우에는 뒷말과 띄어 쓴다.

4.2.5. 수와 단위 표시

수와 단위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가 아라비아 숫자이거나 단위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수와 단위를 붙여 쓸 수 있다. 한편, 수 자체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데 이는 수를 만 단위로 끊어서 인식하는 동양적 수 개념에 따른 것이다. 띄어쓰기 외에도 수를 적을 적에는 이러한 동양적 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25> 천톤, 100여명, 2만불시대, 미화200,000,000달러 →

26> 35백만, 12,070천 →

27> 2할5푼, 월2푼 →

☞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소수점 이하는 각 단위별로 띄어 쓴다.

4.2.6. 조사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쓰며 여러 조사가 한꺼번에 올 때도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데 조사가 2글자 이상으로 이어진 경우 조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앞말과 띄어 쓰는 사례가 자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28> 신청 시▽마다, 관보 게재일▽보다, 2005. 9. 23.▽까지 →

29> 체결일로▽부터 →



30> 이∨같이 시행한다, 3일 이내∨이어야 →

31> 조합∨뿐만 아니라, 충격∨만큼 피해가 크다 →

4.2.7. 기타

■ 각1부/각∨1부

관형사는 뒷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한 글자로 된 관형사는 접두사와 혼동되어 붙여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2> 매회계 연도, 전부서장, 타자치구 →

33> 본청, 본제품, 우리청 →

☞ ‘본(本)’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거나 가까이 있음’을 뜻하는 관형사로서 뒷말과 띄어 쓴다. 이를 순화해 쓰는 ‘우리’ 역시 관형사는 아니지만 대명사이므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이용바랍니다/이용∨바랍니다

전혀 붙여 쓸 이유가 없는 단순한 구이지만 습관적으로 또는 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단어 별로 띄어 써야 한다.

34> 기한지켜 제출하기, 따로붙임, 사전 협의없이 →

35> 체결해야하고, 줄게되는, 하지말고 →

☞ ‘-어 ~’류와 ‘-ㄴ 듯하다’류의 본용언·보조 용언 연결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 외의 연결체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36> 2005. 12월중, 1996.11.22.위 업체가 →

☞ 년월일은 ‘~년∨~월∨~일’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년’, ‘월’, ‘일’ 대신 온점을 찍기도 하는데, 이때 온점 대체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띄어쓰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4.3. 부호를 그 용도에 맞게 쓴다

▣ 온점/마침표

온점 ‘.’ 은 문장의 끝이나 연월일 대신, 표시 문자 다음에 두루 쓰이는데, 이 가운데 문장의 끝에 쓰이는 온점을 마침표라 한다.

37> 불임 ~친절인 접수 내역. 1부. 끝. →

38> 인사과-23678호(2005.10.10.) 관련. →

☞ 마침표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끝에 쓰며 구 뒤에는 쓰지 않는다.

39> 별도의 진행 순서가 없음 →

☞ 문장의 구조를 갖추고 끝에만 용언의 명사꼴로 끝난 경우는 문장에 준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40> 2005. 10. 27까지, 2005. 7. 29(금) →

☞ 온점을 ‘연월일’을 대신해 쓴 경우는 문장의 종결과 무관하므로 마지막 ‘일’에 해당하는 ‘.’를 지울 이유가 없다.

▣ 기타 부호

다양한 부호들의 용도를 잘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부호를 사용한다.

41> 남영역~서울역 간 →

☞ 구간을 나타내는 경우 ‘~’를 쓸 수 있으나 ‘간’이라는 의존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이므로 쓸 필요가 없다.

42> 세관·경찰용 선박 →

☞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가운뎃점을 쓰는데, 이때 각 단어는 대등한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5. 공문서의 표현은

5.1. 알맞은 단어를 사용한다

5.1.1. 가능한 한 쉬운 말, 순화된 말을 쓴다

민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문서에서 어려운 말은 가능한 한 쉬운 말로 고쳐 쓰고 순화 대상어는 순화하여 쓴다.

- 43> 이를 결한, 승인을 득한, 군복무를 필한 자 →
- 44> 업무를 관장하다, 확행하기 바람, 말소하다 →
- 45> 상기 업종, 소정 기일, 귀책사유 →
- 46> 행정지도하에, 출장차 갔다가 →
- 47> 5. 27(금) 17:00한 명단을 입력(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2. 정확하고 명확한 단어를 쓴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문서에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 48> 연 25%의 연체 이자율을 납부하여야 →
- 49> 아파트 건설에 적합되도록, 각종 증빙 서류 등이~으로 작성할 경우 →
- 50>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국고에 수납하여야 →
- 51> 동 증명을 제출하여야, 구유 재산 →

5.2. 문장을 알맞게 구성한다

5.2.1. 문장 성분의 관계에 유의하여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 52>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 후, 시상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
- 53> “별첨” 양식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3일 전 총무과 제출 →
- 54> 가능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5> 총무과-12901(2005.10.7.)호와 관련입니다. →

5.2.2.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유의한다

56>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7> ‘민원 설문서’ 양식을 비치(7곳), 민원함에 투서하는 방법 →

58>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59>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2.3. 어구나 절은 서로 대등한 구조로 연결한다

60> 현황서의 교부 또는 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61> 진단이 확정된 경우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5.2.4. 조사와 어미를 바르게 사용한다

62> 시상자에 대하여 인사상으로 우대함 →

63> 이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

64> 이를 확인치 않으므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65> 사적 축소 조정 시에는~원형 보존이 불가함으로 이전 복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

66> 이번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이루어졌다. →

5.2.5.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중복된 표현은 피하고, 문장 길이는 50자 전후로 길지 않게 한다. 긴 문장



은 관형절 등을 따로 떼거나 병렬 접속된 것을 나누어 길이를 조절한다.

67>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합니다.→

68>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한 후 1993.10.20자로~ →

5.3. 문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5.3.1.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표현한다

공문서에서 번역 투(특히 일본어) 문장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근대 공문서 양식의 성립 과정에서 일본 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공문서 특유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번역 투 문장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우리 문장으로 고쳐 쓴다.

69>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

70> 처리함에 있어, 지급함으로써 →

71> ~할 것을 지시하다 →

72> 지급 불필요 경비, 용역 지연 발주로 →

73> 검토 없이, 결재 없이 →

74>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

75>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

76> 교육실시계획 하달 시 →

5.3.2. 권위적인 표현은 피한다

관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벗고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가능한 한 권위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77> 빠짐 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

78>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 →



번호	♠ 정 답 ♠
1	연간
2	7번 ∨ 난, 투입량
3	인상률
4	승낙하고
5	체결되었음
6	소수점
7	개선코자
8	변경하였기에 이를
9	제출한 ∨ 바
10	매입하는 ∨ 데
11	공사 ∨ 중, 피해자 ∨ 측
12	구청장과 직원 ∨ 간, 범위 ∨ 내, 1997. 9. ∨ 말경
13	문서 ∨ 번호, 시행 ∨ 일자, 내부 ∨ 결재, 관련 ∨ 근거
14	협조 ∨ 사항, 다음 ∨ 사항, 기일 ∨ 엄수
15	해당 ∨ 여부 검토 ∨ 필요, 어문 ∨ 사용, 친절 · 모범 ∨ 직원
16	3일 ∨ 전, 협의 ∨ 후, 여건 ∨ 속
17	재시공, 미협의 시, 제일차/제일 ∨ 차
18	승인받다, 미보완되어, 문의하시기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 특별 ∨ 위원회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종합 ∨ 소득세 부과 ∨ 처분
2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취업규칙
22	수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2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 지하철 ∨ 공사
24	학교법인 ∨ 대일학원/ 학교 ∨ 법인 ∨ 대일 ∨ 학원
25	천 ∨ 톤, 100여 ∨ 명, 2만 ∨ 불 시대, 미화 ∨ 200,000,000달러
26	삼천오백만/3천5백만/3,500만/ 35,000,000, 일천이백칠만/1천2백7만/1,207만/ 12,070,000
27	2할 ∨ 5푼, 월 ∨ 2푼

번호	♠ 정 답 ♠
28	신청 시마다, 게재일보다, 2005. 9. 23.까지
29	체결일로부터
30	이같이, 이내이어야
31	조합뿐만, 충격만큼
32	매 ∨ 회계 연도, 전 ∨ 부서장, 타 ∨ 자치구
33	본 ∨ 청, 본 ∨ 제품, 우리 ∨ 청
34	기한 ∨ 지켜, 따로 ∨ 붙임, 협의 ∨ 없이
35	체결해야 ∨ 하고, 하지 ∨ 말고
36	2005년 12월 ∨ 중/2005. 12. ∨ 중, 1996. ∨ 11. ∨ 22. ∨ 위 업체가
37	붙임 ~친절인 접수 내역 1부 끝
38	인사과-23678호(2005.10.10.) 관련
39	별도의 진행 순서가 없음.
40	2005. 10. 27.까지, 2005. 7. 29.(금)
41	남영역 서울역 ∨ 간/남영역~서울역
42	세관용 · 결찰용
43	빠뜨린, 얻은, 마친
44	말아 처리하다, 꼭 하기, 지워 없애다
45	위, 정해진 날짜, 책임이 있는 사유
46	행정 지도를 받아, 출장하러
47	까지
48	연체 이자
49	적합하도록, 작성될
50	조처하여, 납부하여야
51	동일한 증명서, 구 소유
52	협의한, 인사상으로 우대함.
53	의거하여~총무과에 제출함.
54	가능한 한
55	관련된 사항입니다.
56	규칙 중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	투서하게 하는
58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번호	♠ 정 답 ♠
59	적극적으로
60	현황서를 교부하거나
61	입원 또는 수술을 한 경우
62	시상자를
63	에너지의
64	않음으로, 방지함으로써
65	불가하므로
66	입찰로서
67	과업 지시서는
68	한다. 그 후
69	일반직과
70	처리하면서, 지급하여
71	~하도록
72	지급할 필요가 없는, 용역 발주를 지연하여
73	검토하지 않고, 결재받지 않고
74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75	더욱
76	교육실시계획을 하달할 때
77	참석하기 바랍니다.
78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말 다듬기

박 용 찬 (국립국어원)

제 1 장 우리말 다듬기란?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순화’란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말을 없애서 우리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말을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 순화라 하면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입니다.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순수 우리말 쓰기’에 해당하고,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쉬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에서 ‘순화’는 상황에 따라 ‘純化’를 가리키기도 하고 ‘醇化’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한자어이지만 둘 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어나 언어와 호응하여 쓰일 때에는 ‘純化’보다는 ‘醇化’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국어 순화(國語醇化)’, ‘언어 순화(言語醇化)’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 직후 ‘국어 순화’의 주된 관심사는 ‘일제 잔재 언어(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순화(醇化)’보다 ‘정화(淨化)’가 더 널리 쓰였습니다. ‘정화’가 ‘순화’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순화’와 ‘정화’는 각각 영어의 ‘refinement’와 ‘purification’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화’란 말이 일반화된 건 19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런데 ‘순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이들은 모두 ‘순수 우리말 쓰기’와 더 관련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쉬운 우리말 쓰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즉, ‘순화’와 ‘정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어 순화’라 하여 가리켜 왔던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 가운데 전자에 더 주안점을 둔 말입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어 순화’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순화’는 일반 국민 대부분에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한 말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 ‘순화’와 ‘정화’를 달리 이르는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고,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말 다듬기’는 삼척동자라도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입니다. 따라서 ‘순화’와 ‘정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ㄱ. 우리말 다듬기는 왜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대대적으로 순수 우리말로 바꾼 일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복 직후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한 ‘정화(淨化)’ 차원의 우리말 다듬기가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말 다듬기는 프랑스의 순화 정책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자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순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로서 우리의 ‘순수 우리말 쓰기’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에서 벌이는 순화 정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의 차용에 관한 한 거의 방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3년부터 일본 국립국어연구소를 통하여 간헐적이지만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와 거리가 멉니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해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어의 공



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도 우선적으로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선 곤란합니다.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요즘의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입니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본래 자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처럼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ㄴ.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봄.)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언어의 청산으로 시작된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처럼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주로 영어)를 다듬을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쓸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들은 저절로 서양식 외국어를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많이 그리고 빈번히 쓰는 일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한 외래어·외국어는 모두 다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말



로 완전히 정착한 외래어까지도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였습니다(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쪽에서 ‘우리말 다듬기’라 하여 지금껏 아무 불편 없이 써 왔던 말까지도 생소한 다른 말로 바꿔 쓰도록 강요하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외래어·외국어를 쓰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심리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언어 차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은 더더욱 불가피합니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모두 외국어이기에 그것을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국립국어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에서 서양식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수 서양식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순수 서양식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서양식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입니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그런데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는 말(신조어)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



르면 “2002년 신어”(408개), “2003년 신어”(656개), “2004년 신어”(626개) 가운데 서양식 외래어는 총 608개로 37.0%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974개로 전체의 57.6%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심화되어 몇백 년 뒤에는 우리말에서 순수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양식 외래어보다도 훨씬 작아질지 모릅니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신조어 수 (1,690)	78	443	608	195	77	276	13
백분율 (100%)	4.6	26.2	37.0	11.5	4.6	16.3	0.8

그런 면에서 외래어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 절차 없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방적인 ‘쇠귀에 경 읽기’나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ㄷ.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즐기치게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이 1991년 1월 23일 개원한 이래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말만 해도 2,200여 개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극히 낮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우리말로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을 선정하고 ‘다듬은 말(순화어)’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다듬어 쓸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는 항시 뒷북치는 일쑤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feedback, 수용자 반응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된 조



정 작용) 없이 다량으로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다듬은 말은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경직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어법,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코너킥(corner kick)’의 다듬은 말로 ‘구석차기’, ‘모서리차기’ 말고 다른 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 7월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마련하여 우리말 다듬기에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에서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일반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생활의 주역이 일반 국민이라면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데서 제 입맛에 맞는 ‘다듬은 말’(순화어)을 결정할 권리도 일반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다듬은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건 지나친 강권(強勸)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언어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단기간의 조그만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여 꾸준하게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ㄱ. 어떤 말을 다듬어 써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어떤 원리로 다듬을 말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듬은 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듬은 말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채 보급되지 못하고 국어사전 속에 사장되어 있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듬을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듬을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난해한 한자어)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 ‘쉬운 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우리말 다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일본식 발음의 서양식 외래어인 ‘쓰레빠(slipper)’·‘사라다(salad)’ 따위를 ‘슬리퍼’·‘샐러드’ 따위로 고쳐서 쓰는 일이나, 영어·일본어·한문 번역투 문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고쳐 쓰는 일은 ‘바른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어, 속어, 은어, 욕설, 유행어 따위와 같은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은 ‘고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가정부’, ‘운전사’, ‘장애자’ 따위를 ‘가사 도우미’, ‘기사(님)’, ‘장애우’ 따위로 바꾸어 쓰는 일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을 좀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다듬어 쓰는 일로서 이 또한 ‘고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따위와 같은 어휘를 주로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표기, 발음,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서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특히, 영어) 남용이 커다란 사회 문제 및 언어 문제로 대두하였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같은 어휘를 시급히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할 대상으로 봐서, 주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어휘를 적절한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미 우리말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언어생활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다듬을 말을 선정할 때에는 ‘정착도(定着度)’를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말의 일부로 굳어져 버린 외래어(정착도가 아주 크거나 높은 외래어)는 다듬어 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200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에서는 엄밀한 기준이라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정착도의 기준으로 삼아 다듬어 쓸 말을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네티즌(netizen)’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수준의 말로 봐서 다듬을 쓸 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하여 다듬어 쓰기로 한 말은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래어로 보기 어려운 외



국어 수준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정확도가 아주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이라 하여 이런 말들을 모두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 차용어(잠시 쓰이다 말 말)나 유행어(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서 쓰이는 말)인데 이들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양식 외국어를 학습시켜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적시성(適時性)과도 관련됩니다. 임시 차용어나 유행어로 쓰이는 외국어 차원의 단계를 지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크거나 높아진 말을 다듬을 말로 선정해야 우리말 다듬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ㄱ. 어떤 말로 다듬어 쓰나?

우리말 다듬기의 성패는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한자어, 신조어, 옛말의 활용 등 여러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얼마간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다듬은 말로 되도록 한자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는 친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는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라서 굳이 한자어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보다는 ‘쉬운 우리말 쓰기’를 더 고려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한자어는 다듬은 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슬로 푸드(slow food)’, ‘미션(mission)’ 따위의 다듬은 말로 ‘안전문(安全門)’, ‘여유식(餘裕食)’, ‘중요임무(重要任務)’ 따위와 같은 한자어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쓰레기편지(---便紙)’, ‘꾸림정보(--情報)’, ‘자동길(自動-)’ 따위[각각 ‘스팸 메일(spam mail)’, ‘콘텐츠(contents)’, ‘무빙 워크(moving walk)’ 따위의 다듬은 말]도 다듬은 말의 일부로 한자어가 활용



된 예입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신조어입니다. 다듬어 쓸 말에 대응하는,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듬은 말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꾸어 쓸 만한 말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말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웰빙(well-being)’, ‘이모티콘(emoticon)’, ‘컬러링(color ring)’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참살이’, ‘그림말’, ‘멋올림’ 따위가 이 사이트를 통하여 새로 만들어 쓰게 된 대표적인 신조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크게 저항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처럼 용언 어간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저항을 느끼게 하는 축에 속하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반면 ‘두루누리’, ‘몰래제보꾼’[각각 ‘유비쿼터스(ubiquitous)’, ‘파파라치(paparazzi)’의 다듬은 말]처럼 부사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이전에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으나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별 저항을 느끼게 하지 않는 축에 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합니다.

옛말 활용 여부도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옛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잊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말입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볼 때엔 옛말 활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듬은 말로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도 따로 없고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 쓰기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옛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울통신’처럼 ‘어우르다’의 옛말인 ‘어울다’를 활용한 신조어가 ‘로밍(roaming)’의 다듬은 말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선 옛말을 활용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옛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듬은 말로 순수 우리말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누리꾼’, ‘늘찬배달’[각각 ‘네티즌(netizen)’, ‘퀵서비스(quick service)’의 다듬은 말] 따위는 각각 ‘누리’, ‘늘차다(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순수 우리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한 예입니다. 이렇게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 순수 우리



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낯선, 이제는 옛말처럼 받아들여지는 순수 우리말을 다듬은 말로 활용할 때가 아주 낮이 선 옛말처럼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듬은 말은 되도록 최선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일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다듬은 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 다듬기란 정답을 맞히는 문제 풀이가 아닌 것입니다. 최선의 것만을 찾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시간만 늦추다간 우리 언어생활이 온통 수많은 외래어·외국어로 도배(?)될지도 모릅니다.

제 2 장 우리말 다듬기 실제

국립국어원은 합부로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이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매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그 말을 대신하여 쓸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다듬은 말은 총 124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1	웰빙 (well-being)	몸과 마음의 안녕과 행복.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일.	참살이
2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찾길에 떨어지거나, 열차와 타는 곳 사이에 발이 끼는 따위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문.	안전문
3	스팸 메일 (spam mail)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보내는 전자 우편.	쓰레기편지
4	이모티콘 (emoticon)	감정이나 모양, 또는 소리 따위를 컴퓨터 자판의 각종 기호와 글자를 그림처럼 조합해서 나타낸 것.	그림말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5	올인 (all-in)	선거나 정책 따위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일.	다걸기
6	콘텐츠 (contents)	각종 디지털 정보나 자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꾸림정보
7	파이팅 (fighting)	주로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	아자
8	네티즌 (netizen)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누리꾼
9	무빙 워크 (moving walk)	평지나 약간 비탈진 곳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 모양의 기계 장치.	자동길
10	슬로푸드 (slow food)	천천히 먹는 음식. 또는 ‘만들어서 먹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음식.’	여유식
11	방카쉬랑스 (bancassurance)	은행에서 보험사와 연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	은행연계보험
12	미션 (mission)	목표/목적. 임무/과업/의무. 중요한 일.	중요임무
13	유비쿼터스 (ubiquitous)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서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갖은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두루누리
14	퀵서비스 (quick service)	물건을 원하는 곳에 빠르게 배달함. 또는 그런 배달.	늘찬배달
15	로밍 (roaming)	통신 회사끼리 제휴를 맺어 서로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곳에서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어울통신
16	컬러링 (color ring)	통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기존의 단순한 기계음 대신 음악이나 음향 효과음으로 바꾸는 일. 또는 그런 음악이나 음향 효과음.	멋울림
17	포스트잇 (Post-it)	한쪽 끝의 뒷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 종이나 벽에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종이쪽.	붙임쪽지
18	코드프리 (codefree)	디브이디(DVD) 플레이어에 설정해 놓은 코드를 해제하여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디브이디라도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빗장풀기
19	클린 센터 (clean center)	공직·공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내부 조직.	청백리마당
20	내비게이션 (navigation)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	길도우미
21	하이브리드 (hybrid)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	어우름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22	블로그 (blog)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	누리사랑방
23	드라이브 (drive)	어느 한 방향으로 무리하게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	몰아가기
24	스타일리스트 (stylist)	옷이나 실내 장식 따위와 관련된 일에 조언을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	맵시가꿈이
25	파파라치 (paparazzi)	불법 사실을 캐내어 보상금을 타 내는 사람.	몰래제보꾼
26	그린 프리미엄 (green premium)	녹지대가 많아 공기가 맑을 뿐만 아니라 조망권·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는 데 따라 본래의 아파트 값에 덧붙이는 값.	환경덧두리
27	플리 바기닝 (plea bargaining)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	자백감형제(도)
28	매스티지 (masstige)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합성하여 새로 만들어 낸 말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대중명품
29	와이브로 (WiBro)	휴대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이나 기술.	휴대누리망
30	노미네이트 (nominate)	어떤 상의 후보자로 지명되는 일.	후보지명
31	마리나 (marina)	해변의 종합 관광 시설.	해안유원지
32	커플 매니저 (couple manager)	결혼 정보 회사에 소속되어 서로 어울릴 만한 남녀를 소개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새들이
33	박스 오피스 (box office)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흥행 수익을 이르는 말.	흥행수익
34	빅 리그 (big league)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따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나 등급에 속하는 리그.	최상위연맹
35	헝그리 정신 (hungry精神)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끈한 의지로 역경을 헤쳐 나가는 정신.	맨주먹정신
36	투잡 (two job)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갖는 일.	겹벌이
37	브랜드 파워 (brand power)	기업체의 상표가 가지는 힘.	상표경쟁력
38	엑스파일 (X file)	아직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한 문서나 서류.	안개문서
39	게이트 (-gate)	정치가·정부 관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	의혹사건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40	메신저 (messenger)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문자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지창
41	소호 (SOHO)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	무점포사업
42	오프라인 (off-line)	‘온라인(on-line)’에 상대하여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이 아닌 실재하는 공간, 또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를 가리켜 이르는 말.	현실공간
43	옴부즈맨 (ombudsman)	어떤 기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	민원도우미
44	터프가이 (tough guy)	박력이 있거나 완력이 센 남자.	캐남아
45	블루투스 (blue tooth)	정보 기기들 간 반경 10m 안에서는 선 없이도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리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또는 통신망).	쌈지무선망
46	드레싱 (dressing)	야채, 육류, 생선 따위의 식품에 치는 소스.	맛갈장
47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기구.	가온머리
48	블루오션 (blue ocean)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새로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일. 또는 그런 시장.	대안시장
49	퀄리티 스타트 (quality start)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공을 던지면서 자책점을 3점 이하로 막아 내는 일. 또는 그런 경기.	선발패투
50	피싱 (phishing)	개인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	정보도둑
51	호스피스 (hospice)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임종봉사자
52	셀프카메라 (self-camera)	자기 자신을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일.	자가촬영
53	후카시 (ふかし[吹かし])	실제로는 별 볼일 없으면서도 남에게 대단하거나 멋있어 보도록, 어깨나 눈에 잔뜩 힘을 주거나 목소리를 착 깔거나 말을 과장하여 하는 따위의 일.	품재기
54	후룩쿠 (フロック[fluke])	우연이나 행운으로 손쉽게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일. 또는 진짜가 아니거나 실제와 다른 것.	어중치기
55	실버시터 (silver sitter)	가족 대신 노인을 보살피 주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업.	경로도우미
56	교례회 (交禮會)	어떤 단체·조직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날이나 일을 계기로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모임이나 행사.	어울모임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57	스탠더드 넘버 (standard number)	시대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늘 연주되고 사랑받아 온 곡.	대중명곡
58	플래그십 스토어 (flagship store)	한 기업에서 만들어 낸 여러 상품·상표를 한곳에 모아서 홍보·판매하는 매장.	체험판매장
59	선틱 (sunting)	창문, 자동차 등의 창유리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기 위해 유리에 덧댄 검은색의 얇은 필름. 또는 그런 필름을 덧대는 일.	빛가림
60	그룹 홈 (group home)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숙자, 장애인, 가출 청소년 등이 자립할 때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규모 시설. 또는 그런 봉사 활동이나 제도.	자활꿈터
61	원톱 (one top)	영화나 드라마 따위에서 홀로 주연을 맡아서 극의 전반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배우. 또는 그런 일.	홀로주연
62	디펜딩 챔피언 (defending champion)	전년도 또는 지난 대회에 우승자나 우승 단체.	우승지킴이
63	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시험 삼아 내보내는 프로그램. 또는 시험 방송.	맛보기 프로그램
64	스포일러 (spoiler)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영화의 주요한 내용, 특히 결말을 미리 알려서 영화 보는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	영화해살꾼
65	로고송 (logo song)	특정 상품, 회사, 개인을 널리 알리는 데 쓰는 노래.	상징노래
66	풀 세트 (full set)	관련 있는 물건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다모음
67	컬트 (cult)	소수의 조직화된 신앙 집단.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엔 낯설고, 괴이적인 면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찬사를 보내거나 좋아하는, 독특한 문화.	소수취향
68	드레스 코드 (dress code)	어떤 모임의 목적, 시간, 만나는 사람 등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옷차림새.	표준옷차림
69	다이 (DIY)	품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일.	손수짜기
70	캐포츠 (caports)	운동하기에 편하면서도 평상시 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음, 또는 그런 복장.	활동복
71	캐리어 (carrier)	배낭을 메듯이 어린 아이를 간편하게 업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든 유아 용품 가운데 하나.	아이업개
72	스파이웨어 (spyware)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개인 정보를 빼내어 가는 프로그램	정보빼내기 프로그램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73	다크서클 (dark circle)	눈 아랫부분이 그늘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	눈그늘
74	트리트먼트 (treatment)	머리(털)에 영양과 수분을 주는 데 쓰는 물질.	머릿결영양제
75	파트너십 (partnership)	둘 이상의 개인, 조직·단체, 국가가 규칙적으로 함께 일하는 관계.	동반관계
76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명인, 대가, 거장 등이 직접 하는 수업.	명인강좌
77	매치업 (match-up)	둘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이 서로 짝을 이루거나 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맞대결
78	팩션 (faction)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화 예술의 갈래.	각색실화
79	퍼블리시티권 (publicity權)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肖像)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초상사용권
80	클러스터 (cluster)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한군데 모여서 서로 간에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사업 전개,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인력과 정보의 교류 등에서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 곳.	산학협력지구
81	캡처 (capture)	방송 장면이나 비디오 이미지를 손쉽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따로 담아내는 일.	장면갈무리
82	뉴타운 (new town)	도시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가 지정하여 재개발하는, 도시 속의 도시를 이르는 말.	새누리촌
83	타임 서비스 (time service)	정해진 시간에 한하여 값을 많이 깎아 주거나 덤을 많이 없어 주는 판매 활동.	반짝할인
84	오픈 하우스 (open service)	건설사나 건설업자가 본보기집(모델 하우스)이나 체험관 같은 곳을 만들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는 그런 경우.	열린집/집열기
85	백댄서 (back dancer)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가수의 뒤편에서 함께 춤을 추며 공연하는 사람.	보조춤꾼
86	치어리더 (cheerleader)	운동 경기에서, 관중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응원 구호를 외치는 사람.	흥돋움이
87	스카이라운지 (sky lounge)	고층 건물의 맨 위층에 자리한 휴게실.	하늘쉼터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88	바우처 제도 (voucher制度)	주로 하위 계층의 소비자(수요자)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증표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어떤 특정한 재화(상품)를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복지상품권제도
89	프로슈머 (prosumer)	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같이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가리켜 이르는 말.	참여형소비자
90	디엠 (DM←Direct Mail)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편지나 광고 전단 따위의 인쇄물을 특정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일. 또는 그런 인쇄물.	우편광고(물)
91	메세나 (Meceanat)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그러한 활동	문예후원
92	스팟 광고 (spot廣告)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이에 나가는 광고.	반짝광고
93	슈터링 (shootering)	슛인지 센터링인지 애매하게 골문 쪽을 향하여 공을 차는 일.	골문어림차기
94	로드 무비 (road movie)	주인공이 여행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여정영화
95	세트 피스 (set piece)	축구에서 프리킥, 코너킥, 스로인 이후에 일어나는 조직적인 플레이.	맞춤전술
96	키맨 (key man)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주가 되는 인물.	중추인물
97	언론 플레이 (言論play)	주로 정치 또는 연예계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이르는 말.	여론몰이
98	아카이브 (archive)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자료전산화
99	휘핑 (whipping)	주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위에 올려놓는 크림을 가리켜 이르는 말.	거품크림
100	유시시 (UCC)	주로 방송·인터넷에서, 정보나 볼거리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인 시청자나 누리꾼이 직접 생산·제작하는 콘텐츠를 가리켜 이르는 말.	손수제작물
101	체리 피커 (cherry picker)	신용 카드 회사나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만 누리고는 정작 신용 카드는 사용하지 않거나 금융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는 사람.	금융암채족
102	핫팬츠 (hot pants)	주로 여성과 아동이 입는, 아주 짧고 몸에 꼭 맞는 바지.	한뼘바지
103	스킨십 (skinship)	직접적인 신체 접촉. 또는 정서적 교류를 통한 융합.	피부교감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104	슬롯머신 (slot machine)	주로 성인 오락실에서 동전을 집어넣고 화면에 똑같은 그림 세 개가 나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도박용 게임기를 이르는 말.	성인오락기
105	피처링 (featuring)	주로 대중음악 분야에서, ‘어떤 악기를 중심으로 한 노래나 음악에서 특별한 인상을 주도록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일.	돋움연주
106	코드 (code)	생각의 경향이 서로 같은 것을 가리켜 이르는 말.	성향
107	홀드 (hold)	야구에서, 중간 계투 요원으로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나와서 마무리 투수에게 이기고 있는 채로 공을 넘겨주는 일.	중간구원
108	펜트하우스 (penthouse)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의 꼭대기에 있는 매우 값비싼 주거 공간.	하늘채
109	브런치 (brunch)	아침 겸 점심으로, 늦게 먹는 아침 또는 일찍 먹는 점심.	어울참
110	원샷 (one shot)	가득 채운 술잔을 한번에 남김없이 다 마시는 일.	한입털이
111	홈베이킹 (home baking)	가정이나 집에서 빵이나 과자를 직접 구워 먹는 일.	손수굽기
112	퓨레/튀레 (purée)	과일을 삶거나 갈아서 가는 채로 걸러 걸쭉하게 만든 것.	과립즙
113	시즌 (season)	‘○○○ 시즌 1’, ‘○○○ 시즌 2’, ‘○○○ 시즌 3’ 등처럼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제작하여 방송할 때 제목의 이름으로 덧붙여 쓰이는 말.	~번째 이야기
114	브이오디 (VOD) 서비스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TV)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동영상물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다시보기
115	에스오에스 (SOS)	급하게 구원이나 원조를 요청하는 말을 통틀어서 두루뭉수리로 이르는 말.	구원요청
116	오마주 (homage)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일.	감동되살이
117	치킷 (chick-lit)	새로운 여성 문학 작품의 하나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	꽃띠문학
118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사람이나 사물을 상징하는 특징, 특성.	으뜸상징
119	케이터링 (catering)	계약을 맺고 특정 단체에 급식을 하는 것.	맞춤밥상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120	샘플러 (sampler)	음식과 관련해서 특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일종의 표본을, 음악과 관련해서 여러 음반에서 한 곡씩 선별하여 만든 작품집을 가리켜 이르는 말.	맛보기묶음
121	프리 사이즈 (free size)	특별하거나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치수.	열린치수
122	비트박스 (beat box)	손과 입을 이용하여 강한 악센트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일.	입소리손장단
123	그라피티 (graffiti)	일반적인 벽화와 달리,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어서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	길거리그림
124	머스트 해브 (must have)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물건이나 제품.	필수품

제 3 장 일본어투 용어 다듬기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부터 ‘국어 정화(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본어 잔재를 우리말로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어 다듬기는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어 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본어 잔재는 한일 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 우리말 상당수가 일본어에 밀려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의 일본어 다듬기는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어를 접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리, 즉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바’, ‘찌라시’, ‘빼끼’, ‘와꾸’, ‘앗사리’, ‘나시’, ‘뽀록나다’ 등의 순 일본어와 ‘노견(路肩)’, ‘대금(代金)’, ‘망년회(忘年會)’, ‘사양(仕様)’, ‘선불(先拂)’, ‘수순(手順)’, ‘수입(手入)’, ‘지입(持込)’, ‘지참(持參)’ 등의 일본 한자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는 ‘기스’, ‘마후라’, ‘쇼바’, ‘미션’, ‘부란자’, ‘다시방’, ‘백비러’ 등의 순 일본어, 일본식 발음의



영어, 일본식 영어 등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건축, 봉제, 인쇄 현장에서도 일본어 잔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학술 분야는 온통 일본 한자어 천지입니다. 고전 음악 분야만 보더라도 ‘광시곡(狂詩曲)’, ‘기상곡(綺想曲)’, ‘야상곡(夜想曲)’, ‘소야곡(小夜曲)’, ‘조곡(組曲)’ 등의 일본 한자어가 다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률, 화학, 식물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 국어학, 국사학, 국악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어 잔재를 지금까지처럼 계속하여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치우쳐서 다듬는 건 곤란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국수(國粹)적인 것으로 비쳐서 역효과만 날 뿐 앞으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일본어 잔재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의 일본어 다듬기입니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순 일본어는 ‘후까시’, ‘뽀로꾸’, ‘빠까빠까하다’ 등처럼 점점 속어화해서 일반인은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건축, 봉제, 인쇄, 방송 현장의 용어도 해당 기술자가 아닌 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학술 분야의 일본 한자어는 학자가 아닌 한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일본어 잔재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본어 잔재를 다듬어야 합니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잔재를 찾아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 통합의 밑바탕이 되므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법조문의 국어 순화

허 철 구(창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법조문의 국어 순화는 순화 대상의 단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용어의 순화이고, 다른 하나는 구·문장 표현의 순화이다. 전자는 단어, 후자는 그보다 큰 구나 문장 차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 단어의 순화도 상당히 포함하여 때로 전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경우에도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는 식의 순화는 일단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순화는 전자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단어 차원에서 순화한 용어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공하다→제공하다, 신입증→청약서, 월당→매월, 이식→이자, 횡도→건널목

이와 같이 용어 즉 단어 중심의 순화는 광복을 전후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어 순화의 주된 흐름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1976년의 국어순화세칙¹⁾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서는 순화 대상으로 “발음·어휘·문법·맞춤법·언어활동을 포함하되, 어휘의 순화를 먼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법률 용어가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 용어의 순화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법제처는 1985년부터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발간하는²⁾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법률 용어는 민감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치고 다

1) 1977년 「국어순화자료」 제1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다만 이는 1985년 제1집, 1986년 제2집, 1990년 제3집, 1994년 제4집 식으로 다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듣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률 용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덜 전문적인 단어들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본격적인 법률 용어들은 노력에 비하여 거의 성과가 없는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한 법조문이 갖는 표현, 문체 등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구나 문장 차원의 순화는 비교적 근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90년대 중후반기에 들면서 학계에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성과로 2001년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등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2000년부터 제정·개정되는 법률의 어문학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시작하였다.³⁾ 이 글은 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문장 중심의 순화 성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문장 차원 순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법률의 문장들이 읽어 나가기에 수월치 않다는 점은 법전을 한 번이라고 들추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제정·개정된 법률(안)⁴⁾에서도 여전히 다음 같이 어렵고 딱딱한 표현들이 자주 보인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하는”
- 국고금은 적기에 지출에 공여하여야 한다”
- 공용에 공하거나”
- 급속을 요하여”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위원 23명)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4)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 ‘국고금관리법안’, ‘선박 및 플랫폼의 해상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위 예들은 문장 차원의 순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법조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행위”, “안전을 해칠 정도로 망가뜨리는”, “국고금은 알맞은 때에 지출되어야 한다”, “공용으로 쓰이거나”, “사정이 매우 급하여” 등 쉬운 표현으로 나타낼 여지가 있다면 문장 차원의 순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도 법제처의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내세운 기본 원칙에는 문장 차원 순화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 쉬운 법령 문장 : 어려운 한자말과 그 밖의 외래어를 순화해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 뚜렷한 법령 문장 :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을 다듬고 문법과 논리에 어긋남이 없는 뚜렷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 반듯한 법령 문장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을 지키는 반듯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 :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를 가다듬어 문체가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단어에서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법조문을 순화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3. 용어의 순화

1) 어려운 한자어

법조문에서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는 생소한 한자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법률을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고쳐 쓸 여지가 있는 법률 용어들은 쉬운 말로 다듬어 쓴다.⁵⁾

5) 이 글의 법령 예문들은 주로 2006년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정비한 ‘건축법’, ‘도로법’, ‘도시 개발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대주택법’,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인용한 것이다. 일부는 필자가 2000년부터 법제처의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다루었던 다수의 법률안에서 가져 왔다. 편의를 위하여 일일이 법률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교부하다 → 내주다

· 소방·방화시설평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내주어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

· 제1항제4호의 신고를 해태한 자는 → 게을리한

경유하다 → 거치다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는 때에는 → 거치는

경감하다 → 덜다

·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덜기

소요되다 → 들다

·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 드는

저해하다 → 해치다

· 터미널使用者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 → 해치는

초과하다 → 넘기다

·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넘길

경과하다 → 지나다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난

이상의 예들은 그동안 법률 용어 순화에서 이미 다듬어진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조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던 것들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 용어들은 법조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들로서 그 순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법, 동조, 동항, 동호 →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같은 법

· 동조제1항을 제외한다 → 같은 조

본법, 본장, 본조 → 이 법, 이 장, 이 조

· 본조신설 1996.12.30 → 이 조 신설

이에 비추어 보면, ‘전항, 전조’ 등도 ‘앞 항, 앞 조’로 순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항 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각 가리키는 말로서 ‘전단,



후단'이라는 어려운 표현도 종종 법조문에서 사용되는데(“제1항 중 후단에 서”), 이 역시 ‘앞부분, 뒷부분’과 같이 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용어들은 일상 생활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생경한 말들이다. 법조문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쉬운 말로 다듬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轉貸]
→ 다시 대여해서는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詐僞] → 거짓, 속임수
-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올려야
-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 되살

지나치게 줄인 한자어도 어렵게 느껴지므로 순화 대상이 된다.

- | | |
|------------------|----------------|
| 재축 → 재건축 | 세수 → 세대 수 |
| 공중 → 공사 종류 | 추완하다 → 추후 보완하다 |
| 예가 → 예정가격 | 실중량 → 실제 무게 |
| 표의자 → 의사표시자 | 가용(家用) → 가정용 |
| 수수료의 액 → 수수료의 금액 | |

2) 일본식 한자어

초기 우리나라 법률이 일본의 법률을 옮긴 경우가 많아 그 용어가 일본식 용언인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특히 법률에서 흔히 쓰이는 것들로서 순화할 경우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 당해 → 그, 해당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
 - 그 내용과 당해 기관의 조치사항을” → 해당 기관
- 멸실되다 → 없어지다
 -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 없어진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회의에 부치는



특히 위에서 ‘당해’는 법조문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한 단어만 다듬어도 법조문 전체의 느낌이 새로울 수 있다.

3) 지나친 본말

법령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일상 구어와 먼 본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문장의 격조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으나 지나친 경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지나치게 구어와 멀리 떨어진 본말들은 일상적인 준말 표현으로 순화한다.

아니하다 → 않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아니 → 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 된다

~하여 → ~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서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 이었 → 었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 자였음이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였던

(모음으로 끝난 명사) 이어야 → 여야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 자여야

4) 부적절한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은 “일, 이, 삼, …”이 올바른 독법이다. 이를 “하나, 둘, 셋, …”과 같이 읽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 둘, 셋, …”을 나타내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것은 옳지 않다.

“2 이상의 필지” → 둘 이상의 필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어느 하나에

“2 이상의 시, 도 또는 군” → 둘

한편 개월수를 나타내는 법조문의 전통적인 표현은 ‘1월, 2월, …’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달을 나타내는 말과 혼동될 우려가 크므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는 방식대로 ‘1개월, 2개월, …’ 같이 나타내는 것이 좋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 6개월을

5) 상용 용어

전문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나 법조문에서 상용되는 용어들로서 순화할 여지가 있는 말들이 있다.

및 → (1)와/과 (2)반점(.) (3)그대로 둠

-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시설과 장소를
- 제1항 및 제2항” → 제1항과 제2항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 위치·규모 및 構造·設備의 변경등” → 위치와 규모 및 구조와 설비의

법률에서 흔히 쓰이는 단위명사 ‘인(人)’은 사람을 셀 때 신분에 따라 人, 口, 頭로 구분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말로 계급적 권위 의식의 잔재이다. 따라서 이를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名)’으로 순화한다.

인(人) → 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명, 15명

‘기타’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말이고, 고유어 표현으로 쉽게 고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순화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워낙 굳어진 말이어서 다른 말로 고치기에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냥 두고 써도 좋다. 주의할 점은 ‘기타’든 순화한 말이든 그 앞말 뒤에 반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기타



-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 , 그 밖에
-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 → , 그 밖의
- 잔액, 기술료 등 기타 수입금” → (그냥 됨)

내(內), 상(上), 하(下), 간(間) 등 의존명사나, 관형사 ‘동(同)’ 등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도 가급적 좀더 쉬운 표현으로 다듬는 것이 좋다.

- 내(內), 상(上), 하(下), 간(間) → 안, 위, 아래, 사이
- 한도 내에서” → 안에서
 - 대륙붕 상에 있는” → 위에
 - 국민보건상 위해를 가할” → 국민보건에
 - 집행관 또는 공증인의 참여 하에” → 참여 아래
 - 이틀간” → 이틀 동안
- 동(同) → 그
- 또는 동 플랫폼” → 그

접미사 ‘당’도 법률에 종종 쓰이는데 ‘~에, ~마다, ~의’ 등과 같이 다듬으면 문장을 더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당(當) → ~에, ~마다, ~의
- 마리당 삼천 원” → 1마리에 삼천 원(씩)
 - 시간당 1000원” → 1시간에 1000원(씩)
 - 40명당 삼백만 원” → 40명마다 삼백만 원(씩)
 - 학급당 인원 수” → 학급의 인원 수

다른 말 뒤에 덧붙는 ‘유무, 여부’ 등은 군더더기 표현인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순화한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둔다.

- 유무, 여부 → 불필요한 경우 삭제
-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 장애
 -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 체결하였는지를
 -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그냥 됨)



· 전염병 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 (그냥 둬)

4. 구 표현의 순화

법조문에는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다. 이들은 일상 언어와 비교하여 그 의미가 다르거나, 잘 쓰이지 않거나,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표현은 법조문에 빈번히 등장하므로 그냥 둘 경우 전반적으로 법조문을 어렵게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내지’는 일상 언어에서는 ‘또는’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에서 ~까지’의 의미로 쓰여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기 위하여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다듬는다.

A 내지 B → A에서 B까지

·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에 불구하고’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다. 그래서 일상 언어 생활과 가깝게 ‘~와 관계없이’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워낙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여 다소라도 고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그냥 둔다. 다만 이 경우, 국어사전은 ‘~에도 불구하고’를 올바른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의를 생각하여 ‘~에’로 그냥 둔다.

~에 불구하고 → (1) ~와 관계없이 (2) 그냥 둬

·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37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로 하여금’도 좀더 간결한 국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로 하여금 → ~에게, ~을/를, ~이/가

·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 참고인을 조정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비·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자에게

‘승인을 얻다, 동의를 얻다’는 ‘승인을 받다, 동의를 받다’에 비하면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당연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듬어야 한다.

승인을 얻다, 동의를 얻다 → 승인을 받다, 동의를 받다

-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을 받아야

-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 동의를 받아

‘동등이상의’는 법조문에 종종 등장하는 말인데, 일상 언어나 다른 분야의 글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 어려운 낯선 표현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동등이상의 → 같은/동등한 수준 이상의

-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같은/동등한 수준 이상의

5. 문법의 순화

법조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여기에서는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그 순화 방안을 소개한다.

1) 사물주어의 오류

유정물이 아닌 사물이 주어가 되어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의 조례가 정하는’, ‘대통령령/~부령/정관이 정하는’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에서는 ‘조례’ 등이 그 스스로 행위 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없는 비인격체임에 불구하고 주어로 나타나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 불필요한 목적어

목적어를 문두로 옮기고 나서, 원래 그 목적어가 있던 자리에 ‘이를’의 목적어를 추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결국 목적어가 중복된 셈이므로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삭제
-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 삭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삭제

특히 이는 준용규정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준용 조항은 (1)“~에 관하여는/~의 경우에는 제0조를 준용한다”, (2)“제0조는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2)는 적용되는 조항을 나타내는 ‘제0조는’을 문두로 내세워 화제나 주제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뒤의 동사 ‘준용한다’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하여 ‘이를’을 보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목적어가 중복되었다. 이에 따라 (1)의 표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 ~의 규정은 …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과도한 피동문

우리말은 되도록 유정물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피동문이 적다. 부득이 논리 목적어가 문장의 화제가 될 경우 피동문으로 바뀌는 영어와 달리 목적어를 ‘~는’의 형식으로 문장 첫머리에 내세우는 방식을 택한다. 그런데 영어나 이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에서는 사물주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동문이 많다. 주체가 유정물인데도 피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되도록 능동문으로 다듬는다.



-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에 대하여” →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에 대하여
-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4) 조사의 오용

여러 가지 조사가 오용된 경우가 있다. 단순히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을 떠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문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순화하여야 한다.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그 목적어로 ‘~을’을 갖는다. 그런데 법조문에서는 ‘~에 위반하다’를 전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어 큰 문제이다. ‘~에’라고 하려면 ‘~에 위반되다’처럼 자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한자어 순화 차원에서 ‘위반하다’는 ‘어기다’로 다듬을 수도 있겠으나, 법률적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워낙 익숙한 단어여서 그냥 두도록 한다.

~에 위반하다 → ~을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규정을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처분을

‘갈음하다’는 ‘~을’의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다. 흔히 ‘~에 갈음하다’라고 쓰나 이는 잘못이다. 단, 법조문에서는 ‘갈음하다’보다는 ‘대신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친숙한 표현임을 들어 ‘~을 대신하다’로 순화한다.

~에 갈음하다 → ~을 대신하다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에 부족하다’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비문법에 가까운 표현이다.

~에 부족하다 → ~보다 적다, ~에 미치지 못하다 등

-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 채납액보다 적을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 결원 수보다 적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 적립금이 부족할

‘관계없다/관계있다’는 앞말로 ‘~에’를 취할 수 없으며, ‘~와/과’를 취하는 것이 옳바르다.

~에 관계없다/관계있다 → ~와/과 관계없다/관계있다

-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보험과
-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 내용과

‘소급하다’ 역시 ‘~에’를 취할 수 없으며, 방향이나 목표점을 나타내는 ‘~로’를 취하는 동사이다.

~에 소급하여 → ~로 소급하여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기산일로

‘법에 정하는’과 같은 표현은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이 경우 ‘법’이 하나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는’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다.

~에 정하는 → ~에서 정하는

-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이 법에서 규정한

처격조사 ‘에’는 화초, 회사 따위의 무정물에 쓴다. 사람 등 유정물에는 ‘에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람)에 속한 → ~에게 속한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 소유자에게

법조문에 주제어의 중복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불필요한 주제어의 중복은 주제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문장을 어색하게 만든다. 주로 ‘~은 ~하는 경우에는’와 같은 형식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은 ~하는 경우’처럼 뒤의 말을 ‘은/는’을 삭제하여 주제어가 아니게 만든



다.

~은/는 ... ~은/는 → 뒤의 ‘은/는’ 삭제

-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 경우

5) 시제 표현

법조문에서는 현재형 ‘~하는 때, ~되는 때’를 사용하고, 문맥에 따라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때, 될 때’나 과거형 ‘~한 때, ~된 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와 달리 ‘때’는 ‘~한’이나 ‘~하는’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다. 법조문에서는 흔히 이와 같이 쓰나 “휴지·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때”에서 보듯이 어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그 시제 표현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하는 때 → 할 때, 하는 경우

되는 때 → 될 때, 되는 경우

한 때 → 한 경우 (하었을 때로 고치지 않음⁶⁾)

된 때 → 된 경우 (되었을 때로 고치지 않음)

-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할 때, 하는 경우
-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 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인정될 때에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 해당될 때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 한 경우에는

6) 이와 같이 항상 ‘하었을 때, 되었을 때’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좀 지나친 점이 있다. 이를테면, 법조문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들을 항목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경우, 된 경우’ 보다는 ‘하었을 때, 되었을 때’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한 경우 당해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 등.



-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 발생한 경우에는
-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된 경우에는

6. 부자연스러운 표현의 순화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독서에 불편을 준다. 이 점에서 법조문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은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야 한다.

1) 지나친 명사 위주의 표현

공문서 등에 흔히 보이는 폐단의 하나로서 지나치게 명사 위주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조문에서도 흔히 보인다. 이들은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호환성을 높이기

“심의요구한 사항” → 심의를 요구한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 기능을 회복하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하는 데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 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이와는 꼭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법조문을 보다 자연스럽게 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 → 권리를 침해하게 될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운송용으로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 무주택자가 된

“문화유산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수집·보존” → 균형 있고

때로는 고정된 표현으로 순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단



어를 피하여 쉬운 표현으로 풀어 쓰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약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 적출·이식이 합리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러한 점은 법조문의 순화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어 표현을 대체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기존의 용어 중심의 순화는 기계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어려운 일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단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풀어 쓰는 등 한층 다양한 방식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예를 다루는 고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 일본어식 표현

단어뿐만 아니라 구적 표현도 일본어의 영향을 입은 것들이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특히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을 필요로 하다’는 일본어 표현(~を 必要にする 場合)에서 온 것이다.

~을 필요로 하는 → ~이 필요한

- 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 → 감가상각이 필요한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가 필요한
-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 검역이 필요한

‘~에 있어서’ 역시 일본어 표현(おいての, においての)에서 온 것이다.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 ~에서, ~할 때, ~의, ~할 경우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승진에서
-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할 때
-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 별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 처리할 경우

3) 조사 ‘의’의 남용

조사 ‘의’가 남용되는 데 대하여, 일본어 ‘の’의 사용이 두드러진 일본 법령을 옮겨 왔기 때문이며, 온 데 따른 원인과, ‘~의’로 이어지는 어구가 하나의 법률용어처럼 인식되어 이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법 제정자의 심리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송실대학교 2005. 11. 30. 법제처 용역과제 보고서). 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순화할 수 있다.

<삭제>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 건축물의 건축 금지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조사>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18세 미만인 자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현 교체>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 실행을 선고받고

<기타>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보험등에 가입할 의무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한다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 국민연금기금에서 들어온 전입금, 국가 보조금

4) 그 밖의 것

정의조항에서 보이는 표현 ‘~이라 함은’은 다소 군더더기라는 느낌이 있다. 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다듬는 것이 좋다.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정의조항) → ~(이)란 ~을/를 말한다

·“임대주택”이라 함은 賃貸目的에 제공되는 建設賃貸住宅 및 買入賃貸住宅을 말한다.
→ 임대주택이란



다음은 형벌을 표현할 때 상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의 선고’를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는 한 단위로 본 것이나, 결과적으로 어색한 표현이다. ‘선고를 받다’를 한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 실형을 선고받고

양벌조항에서 보이는 표현 ‘~하는 외에’ 역시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이 ~한 때에는 ~하는 외에 ~한다(양벌조항) → ~이 ~한 경우에는 ~할 뿐만 아니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와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용언을 동명사형으로 만들고 조사 ‘으로써’를 결합한 표현 역시 명사 위주의 표현과 유사한 데가 있다. 이는 용언형으로 풀어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으로써 → ~여(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 높여서

·어법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 조성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 확립하여

~에 의한/의하여/의한다 → ~에 따른/따라/따른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따라

흔히 법조문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 ‘~의 규정에 의한’ 역시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의 규정에 의한 → (1)~의 규정에 따른 (2)~에 규정된 (3)~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 제1항의

처격을 나타내는 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에게, ~에’이다. 그런데, 특히 법조문에서 ‘~에 대하여, ~에 관하여’를 상투적으로 사용하여 매우 눈에 거슬린다.⁷⁾

~에 관하여/대하여 → ~에게, ~에

·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경주사업자에게

· 파견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에게

· 자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시험에

·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운영 등에

7.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일반적으로 국어순화의 영역 밖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글은 근래의 법률 정비 사업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띄어쓰기

법률은 특히 띄어쓰기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다. 법률은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1963년에 들어서야 전면적인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을 정도이다.⁸⁾ 이러한 법률의 보수성은 여전하여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붙여 쓰는 관습이 남아 있다. 이 점을 새롭게 다듬는다.

우선 법령 제목은 띄어쓰기를 한다. 법률이 띄어쓰기를 실시한 이후에도 법령명은 지속적으로 붙여 써 온 것이 관례였는데, 이것은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었던 것이다. 법령 제명을 띄어 쓰면 어디부터

7) 이를 대격 ‘~을/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 PMS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시설을

· 안전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안전 전문 기관을

8) 졸고(2002) “법률의 띄어쓰기”(새국어생활 12-1) 참조.



어디까지가 법령의 이름인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되 제목 전체를 낫표(「 」)로 묶어 준다.

- 명사 연결체로 된 법령명의 경우 의미 단위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8음절 이상인 경우 의미 단위가 현저히 나뉘는 곳에서 띄어 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 조사, 부사, 어미가 있는 법령명은 띄어 쓴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관명, 단체명, 위원회명, 부서명 등은 고유명사와 같이 취급하여 한 단위로 붙여 쓴다. 다만, 이에는 띄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명사 연결체인 경우에는 붙여 쓴다.

“건설교통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미나 조사가 들어 있으면 띄어 쓴다.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어원적으로 이질적인 성분이 연결되면 띄어 쓴다. 낱말의 생성 형태가 같지 않아 붙여 쓰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 기관명과 직책 사이는 띄어 쓴다.

“문화관광부 장관”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 연결체는 붙여 쓴다. 이에는 해당 법률에서 일반적인 용법에 비하여 더 전문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정의 조항 등에서 정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모두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붙여 쓴다.

“양벌규정, 체납처분, 보전산지, 수산동식물, 소유구조”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평균지가변동률”이라 함은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이하 “환경영향컨설팅사업”이라 한다”

정의 항목에 조사나 의존명사 ‘등’이 있으면 띄어 쓴다.



“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 연결체라도 8음절을 초과할 경우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띄어 쓴다.

“어업허가 유효기간,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전문 용어가 아니라 단순한 명사가 연결된 경우에는 당연히 띄어 쓴다.

“신규 어업면허, 토지 소유자, 위반 사실, 통보 시기, 전입 절차”

규정을 인용할 때 ‘조, 항, 호, 목’ 등은 모두 띄어 쓴다.

“제5조제2항제4호” → 제5조 제2항 제4호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 → 제1항 제10호의 개선명령

그 밖에 관형사, 의존명사, 접미사 등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따른다. 법조문에서 빈번한 오류를 보이는 예들을 따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사 ‘각’은 띄어 쓴다.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 조, 각 항, 각 호, 각 목

‘안, 밖, 전, 후, 중, 시, 내, 외,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특별히 앞말과 한 단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범위 안에서, 변경 전, 계획 수립 시, 기일 내, 규정된 사항 외, 기간 중에, 10년 이상, 5년 이하, 3개월 미만, 1년 이내”

의존명사 ‘등’도 앞말에 띄어 쓴다.

“면허등의 기준” → 면허 등의

“자격의 취득등에 관하여” → 취득 등에

이 밖에 많은 띄어쓰기의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르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띄어쓰기를 언급한 것은 특히 이 예들이 법조문에서 띄어쓰기를 엉망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것들이어서 순화 차원에서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2) 문장부호

과거의 법률은 문장부호 역시 보수적인 면을 보였다. 이를테면 문장이 끝난 경우 온점(.)을 찍은 것도 띄어쓰기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과 시기를 같이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문이 다른 분야의 글쓰기에 비하여 특별히 문장부호가 보수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률문에 자주 등장하는 연월일 표기에서 온점을 빠트리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연, 월, 일 사이를 띄어 쓰지 않는 점도 마찬가지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개정 2000.1.28” → 개정 2000. 1. 28.

8. 마무리

이 글은 법조문의 구와 문장 차원의 순화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미처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법률 용어의 순화 문제는 기존의 순화 자료집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와 문장 차원의 순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지만 쉬운 법령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 결과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문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그만큼 국어 어문의 수준도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 이 글이 가급적 실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하였다.

문장 차원의 순화와 별개로 전문적인 법률 용어의 순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이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용어들이 변함없이 법조문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의제(擬制), 권원(權原), 상린관계(相隣關係), 석명권(釋明權), 소추(訴追),
작량(酌量), 축조해석(逐條解釋), 계속(繫屬), 촉탁(囑託), 대위(代位),
계리(計理)



법률 용어는 그 전문성 탓에 숙명적으로 어려운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말들은 그 한자를 보아도 뜻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랜 기간 굳어진 전문 용어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낯설기 짝이 없는 말들이 횡행하는 법조문의 현실을 생각하면 선뜻 손을 놓기도 어렵다. 현행 법률에서 ‘셈’과 관련한 용어를 열추 몇 개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개산하다, 기산하다, 산정하다, 환가하다, 상계하다, 산입하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가 쓰이지만 정작 “셈하다”와 같은 쉬운 말은 법조문에서 쓰이지 않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산하다→어림셈하다’나 ‘상계하다→맞계산하다’와 같이 좀 더 쉬운 말로 고칠 여지가 남아 있다면 법률 용어의 순화도 한층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일은 적지 않은 인내와 노고를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화술 훈련

황 인 우 (서울여대 겸임교수)

1. 말하기의 중요성 : ‘말을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 속도와 감성이 중시되면서 ‘흥미롭고 조리 있으며 아름다운 말’은 글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 말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줄이고, 서로의 전문성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말하기 능력을 키워 보자.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말하기의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말을 다듬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2. 공적(公的)인 말하기 : 감정보다 의미가 중시되므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일상 회화에서는 말의 비약이나 생략이 가능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의사 소통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리감만큼 객관적인 성향을 갖게 되므로 그러한 자유로움이 허용되지 않는다. 듣는 이는 말하는 이가 사리에 맞게 표현하는지 조목조목 따지려 든다.

또한 청중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몸짓이나 억양의 변화, 유머나 비유 등의 생생한 표현을 살려 내야 하므로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이 중시된다.

☉ 화법(話法)

언어 표현

음성 표현(화술 훈련: 낭독→암송→연술)

신체 표현

3. 음성 표현 : 알맞은 성량과 속도(1분에 345음절 낭독)에 정확한 발음과 억양

☞ 바르게 쓴 글을 잘 낭독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금세 외워지기 마련이므로,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펼쳐 나온다는 것이 ‘화술 훈련 기법’이다. 마라톤을 하기 전에 100미터 달리기를 연습하듯 낭독 연습을 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음성 표현의 단위들을 정복해야 한다.



4. 호흡과 발성 : 복식 호흡으로 배에 힘을 채우고,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낸다.

☞ 자세를 바로 하고, 복식 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 마신 후 천천히 내뱉는다. 심호흡을 하면 연구개(軟口蓋)가 벌어지고 후두가 내려가며 횡격막이 팽창된다. 이 때 호흡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고, 몸 전체를 통해 증폭되어 퍼지면서 조음 기관(調音器官)에 의해 구체적인 음가(音價)를 지니게 된다.

소리는 공기가 부딪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 멀리까지 전달된다.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소리를 내야 제대로 발성이 되고 공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한층 부드럽고 밝은 울림소리를 낼 수 있다.

문

호흡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태도의 지표를 맞게 연결하십시오.

- | | |
|------------------|----------------------------|
| (1) 빠른 호흡 | 긴장에 대한 불안감 |
| (2) 들숨 쉬기 | 진실한 감정이나 행동과 연관됨 |
| (3) 가슴 위쪽 낮은 호흡 | 흥분과 두려움, 성급함, 극단적 기쁨 또는 불안 |
| (4) 복부로부터의 깊은 호흡 | 감정과는 분리된 생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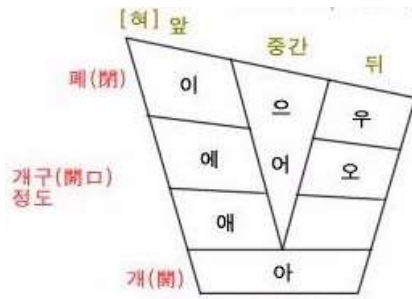
5. 정확한 발음 : 입을 크게, 혀를 빠르게, 입술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 말을 하며 발음 잘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았자 부자연스럽게 말의 흐름만 깨뜨릴 뿐이다. 미리 한글 자모의 체계를 바탕으로 거울을 보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쳐 나간다. 발음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절 연습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이 좋다.



<모음의 체계>

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ㅓ	ㅗ	ㅕ	ㅛ
저모음	ㅘ		ㅚ	



<자음의 체계>

	입술소리	혀끝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예사소리	ㅂ	ㄷ, ㅌ	ㅈ	ㅊ	ㅎ
거센소리	ㅃ	ㄸ	ㅉ	ㅑ	
된소리	ㅍ	ㅌ, ㅍ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구두(口頭)연습 표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나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	다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라	라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마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	바	버	벼	보	보	부	뷰	브	비
사	사	서	서	소	쇼	수	슈	스	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자	저	저	조	조	주	쥬	즈	지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쥬	츠	치
카	카	커	커	코	코	쿠	큐	크	키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튜	트	티
파	파	퍼	퍼	포	포	푸	퓨	프	피
하	하	허	허	호	호	후	휴	흐	히

☉ 발음 연습 문안

- (1) 전주의 동물원 기린원에 목이 긴 기린이 많이 있다.
- (2) 한양양장점 옆 한영양장점, 한영양장점 옆 한양양장점.
- (3) 음력 칠월 칠일은 평창 친구 친정 삼촌 칠순 잔칫날.
- (4) 배가 아파 배 밑에 나가 배를 먹는데, 지나가던 뱃사공이 배가
맛없는지, 배가 아파 그러는지 묻데.
- (5) 저기 있는 말뚝이 말 땀 말뚝이나, 말 못 땀 말뚝이나?
또 저기 저 땀들이 내가 땀 땀들인가, 내가 땀 땀들인가?
- (6)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땡고, 안 깐 콩깍지면 어땀나?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 장단음(長短音-字高低)

의미 구별과 품위 있는 정확한 발음, 아름다운 억양을 구사하기 위해 살려 써야 한다. ‘어, 여, 위’의 장음은 고음(高音)이다.

(어:[ㅡ + ㅏ], 여:[ㅣ + ㅡ + ㅏ], 위:[ㅓ + ㅡ + ㅏ])

예

- (1) 갈다(바꾸다)/갈 : 다(연마하다)



- (2) 놀리다(조금 태워 눈케 하다) / 놀 : 리다(누름을 당하다)
 (3) 묻다(땅속에 넣고 가려지게 덮다) / 묻 : 다(질문하다)
 (4) 배다(츰츰하다) / 배 : 다(뱃속에 가지다, 스며들다)
 (5) 가장(家長) / 가 : 장(假裝) 감사(監査) / 감 : 사(感謝)
 (6) 부자(父子) / 부 : 자(富者) 방화(防火) / 방 : 화(放火)
 (7) 선수(先手) / 선 : 수(選手) 성인(成人) / 성 : 인(聖人)
 (8) 정당(政黨) / 정 : 당(正當) 향수(鄉愁) / 향 : 수(享受)

문

장음인 단어에 밑줄을 그은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오.

- (1) 매일같이 노는 게 일이야.
 (2) 새로 산 새집이 참 보기 좋아.
 (3) 연구실에서 점심에 김밥을 먹었지.
 (4)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그림이 아닐 수 없어.

6. 올바른 억양: 의미 전달과 강조, 정서 표현에 중요하게 쓰인다.

☞ 하나의 내용을 담아내는 세기, 높낮이, 길이 등의 운율적인 자질인 억양은 언어적인 내용과는 분리된 음성적 요소로서 하나의 체계이자 의미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억양이 올라가면(↗) 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하고, 억양이 내려가면(↘)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다. 굴곡이 있거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비꼬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유보하는 표현이다.

☞ 억양의 유형

	완전올림 (~어요?)
상승	
	반올림 (~니까?)
평판 -----	
	반 내림 (~니다.) - 사무적, 정중한 어투
하강	
	완전내림 (~어요.) - 감정적, 친근한 어투



문

괄호 안의 뜻으로 말하려면, 어느 어절에 강세를 주어야 하는지 표시하십시오.

- (1) 영선이가 집에 갔다고 그랬어?: (아니면 집에서 이리로 온다고 그랬던가?)
- (2) 영선이가 집에 갔다고 그랬어?: (정말로 갔는지 모르겠다.)
- (3) 영선이가 집에 갔다고 그랬어?: (아니면 누가 갔나?)
- (4) 영선이가 집에 갔다고 그랬어?: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에 가지 않았을까?)

☉ 쉼과 상대적인 음높이

억양의 단위는 쉼으로 구분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다음을 말할 준비를 하고, 듣는 이는 말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게 된다. 쉼을 통해 다시 채워진 호흡이 분출되며 긴장을 유지한 채 점점 높아져 서술의 어간을 정점으로 상대적인 음높이를 만든다. 그러다가 힘이 소멸되어 점차 낮아지며, 근육의 이완으로 인한 여음(餘音)을 만든다.

☉ 강세

어절을 규정하며 억양의 기본 요소인 말의 리듬과 관련된다. 올바르게 억양을 구사하려면 강세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강세 규칙
- ① 무거운 음절(장음이나 이중 모음, 받침소리): 개:편, 어려워, 오매불망
 - ② 무거운 음절이 없는 어절 끝: 이미, 국어사
 - ③ 격음이나 경음의 앞: 가르치다, 아저씨

문

음가(音價)를 적고, 각 어절의 강세 음절을 표시한 후 읽어 보시오.

- (1)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 (2) 위대한 사:상을 담은 음악적인 소리를 정복하러 왔다.
- (3) 그림달은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다.
- (4) 신:용카드는 필요할 때만 쓸래요.

7. 낭독 연습: 완벽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술 훈련의 요체이다.

☞ 글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



악한 다음 그 의미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들려주기 위해 다양한 음성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먼저 눈으로 읽는 묵독(默讀)으로 전체의 주제를 파악한 후, 억양 단위 위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검토한다. 어떻게 이어 가고 나눌 것인지, 강조점과 속도, 어조를 가늠해 대략 부호로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분절부터 시작해 어절 강세, 억양 순으로 연습한 다음 내용에 맞도록 감정을 살려 실제로 소리 내어 읽는다.

문

다음 문장을 낭독해 보시오.

- (1)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 (2) 그럼요, 소식이 끊겨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니에요?
- (3)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 (4)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몫을 정:확히 따져 봅시다.

8. 연술(演述): 드디어 공적인 말하기를 펼치는 순서이다.

☞ 이 때 마음가짐은 스스로 즐겁게, 남에게는 서비스 정신으로 임한다. 준비를 철저히 했으므로 말할 때는 오로지 서로 소통하는 감정을 즐기면 된다. 상대방의 반응을 헤아리며, 2인3각 경주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다. 논리와 재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중저음(中低音) 톤으로 차분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절도 있는 몸짓으로 신뢰감을 보태고, 여유 있는 웃음과 유머를 곁들인다면 많은 이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

다음의 시를 감정에 맞게 온몸으로 표현해 보시오.



빈: 집

기 형 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쫓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아: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없는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대화와 인간관계

전 정 미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 의사소통과 대화

1-1. 말하기 강좌는 왜 필요한가?

☞ 인간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장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다. 첫 언어인 울음으로 생리적 욕구를 표출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언어의 수준이 달라져 간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말하기 능력도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능력이 국어 관련 능력이고, 그 가운데서도 ‘표현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말하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배운 절차를 따라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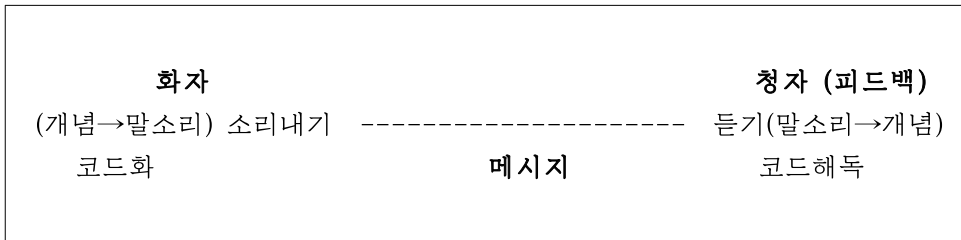
☞ 1977년도에 나온 상식백과라는 책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위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하기가 누구에게나 두려운 요소라는 것은 말하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2. 의사소통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라는 일종의 코드로 바꾸는데, 이것을 코드화(encode)라고 한다. 한편 청자는 코드를 해독함으로 전달된 내용을 이해한



다. 이것을 코드해독(decode)이라 한다. 그러므로 코드화는 개념을 말소리로 바꾸는 것이고 코드해독은 말소리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전달되는 언어기호의 연속체를 **메시지(message)**라고 하고, 화자가 코드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청자가 코드 해독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의사소통의 과정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과 이해 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아내: 여보.

남편: 응?

아내: 이번 휴가는 우리 좀 폭 쉬었다 싶게 좀 쉬어 봐요.

남편: 좋지.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일에 시달렸어.

아내: 우리, 이번 휴가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동남아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남편: 동남아 여행? 그게 쉬는 거야? 괜히 돈 버리고 시간 쓰고 몸만 피곤하지. 작년에도 휴가 갔다가 고생만 잔뜩 했잖아. 이번 휴가만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자고. 난 정말 좀 쉬어야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내: 당신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이창덕 외, <삶과 화법> 중에서)



의사소통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화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3.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의사소통의 방법이란 메시지가 청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나 수단과 같은 매개체를 말한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하나의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지닌 오관을 기초로 한다.

(1) 청각 의존적인 의사소통 방법

- ① 말소리
- ② 심리적 반향음
- ③ 음향효과
- ④ 목소리 조절

(2) 시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문자
- ② 상징
- ③ 수화

(3) 촉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악수나 포옹
- ② 점자
- ③ 태도마

1-4. 대화의 정의를 알아보자.

☞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대화를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화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하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자유로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면서 집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대화이다.

1-5. 대화의 요소는 무엇인가?

☞ 대화도 위의 <그림 1>과 같은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누가	-	화자
누구에게	-	청자
무엇을	-	메시지

1-6.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가?

☞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화자는 대화의 필요를 느끼고 대화를 위한 경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한다. 청자는 전달된 기호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고, 정보를 저장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보낸다.

기본적으로 화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청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 역할은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화제를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중심적 욕구에 빠지기가 쉽다.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1-7. 대화 참여자의 자기중심적 욕구란 무엇인가?

☞ 대화 참여자는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 말하든지 상대방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해서 청자가 되면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든 상대방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조절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화법에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8. 메시지가 찰흙이라고?

☞ 메시지는 말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내용을 말한다. 위의 <그림 1>에서 메시지는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대상체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는 의미는 과거의 경험과 그 정보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는 벽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고정되어서 청자에게도 그 모습대로 전달되는 요소가 아니고 청자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찰흙과 같이 모양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나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달리 전달된다.

대화를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화를 주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투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는 주사약과는 달라서 말의 효과는 화자가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메시지를 구성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나요?

☞ 메시지는 고정된 ‘벽돌’이 아니라 유동적인 ‘찰흙’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빚어질 수 있다. 메시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과 청자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Reardon 1987).

2.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 되기

2-1. 대화와 인간관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하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모두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눈빛, 손짓, 목소리, 자세 등과 같은 요소들도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내가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신호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측면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된다.

2-2. 대화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모든 사람은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영역과 다른 사람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립을 피해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자기만의 독립된 자리를 필요로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양면성이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청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
에서부터 출발한다.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친절한 말을 하
면서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움추러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방이 자기의 독립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
이다. 이와는 달리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
보가 없어도 일상적인 이야기나 잡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 인간의 두 가지 측면 : 독립과 유대관계

☆ 인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거리: 심리적 거리 · 물리적 거리

2-3. 정보가 있는 대화가 좋은가? 친교적인 대화가 좋은가?

☞ 어떤 대화도 정보만 있을 수는 없고 정보는 전혀 없이 친교를 목적으
로만 대화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사업가들은 정보 중심의 대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핵심에 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고, 시시한 사교적인 이
야기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방
식은 그리스나 일본, 아랍의 사업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무적
인 이야기의 밑바탕이 되는 사교적 관계 수립을 위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친교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4. 독립의 영역이 중요한 남성과 유대관계가 중요한 여성

☞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원하고, 여성들은 유대관계를 유
지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Tannen 1986). 그래서 남성들의 대화는 정보 전
달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여성들의 대화는 친교 유지를 주기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인 화자와 이상적인 청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남
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거나, 집안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



고, 잡담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주고받고 있는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수다를 떠다는 편견으로서가 아니라 친교 유지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오해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5. 남성과 여성의 대화스타일은 같을까? 다를까?

☞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대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동성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보다 이성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다.

① 남성 : 내게 새로운 정보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화다.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을 할 경우 그것은 나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만 한다.

② 여성 : 내게는 무엇이든지 화제가 된다. 대화란 공받기 놀이와 같은 것이다. 그냥 말을 주고받고 이어나가면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민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와 공감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면 된다.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 쭈우욱~!

(예) 아내: 오늘 밖에서 별 일 없었어?

남편: 응.

아내: 난 오늘 신발 하나 샀어. 이거 봐. 예쁘지?

남편: 응, 좋은데.

아내: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어?

남편: 얼마데?

아내: 이거 원래 5만원 하는 건데, 만오천 원밖에 안 줬어.

남편: 거기 신문 좀 줘봐.

아내:

남편: 아, 참.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집에 온다.

아내: 뭐? 우리 집에 온다고?

남편: 응.



아내: 이번 금요일에? 왜?

남편: 집들이를 안 했잖아. 한 열 명 정도 올 거야.

아내: 그럼 미리 의논이라도 좀 하지. 나 그날 동창회 있는데.

남편: 다들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 그리고 그런 일까지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아내: 누가 허락 받으랬어? 말이라도 해 주면 좀 좋아?

남편: 지금 말하잖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준비해.

아내: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중국집에 시키든지.

남편: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현호 외, <대화와 인간관계의 기초> 중에서)

2-6.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하는 목적은 같을까? 다를까?

(1) 남성과 여성은 대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

남성은 독립성 지향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다. 친구들과끼리 어울리지만 넘나들지 않는 영역을 구분해 놓고 지낸다. 독립의 틀에서 대화하는 남성은 지위를 바탕으로 상하관계를 기준으로 대화를 나눈다.

여성은 친밀성 지향적이다. 아주 깊은 부분까지 심리적으로 교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꾀한다. 유대관계의 틀에서 대화하는 여성은 균형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대등관계를 기준으로 대화를 나눈다.

(예)

아내: 여보, 이것 좀 옮겨 주세요.

남편: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질색이야.

아내: 그럼, 한 집 살면서 그런 말도 못해요?

남편: 글썄,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아?

(예)

아내: 여보, 무슨 일 있죠? 뭐예요? 말해 봐요.

남편: 아무 것도 아니야.



아내: 아무 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 기분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잖아요.

남편: 여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마. 자, 이제 나를 좀 혼자 있게 해 줘. 응?

아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나와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럴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당신知道吗? 나는 당신한테 버림받는 기분이라구요. 말을 해야 해결을 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데 말도 안하는 거잖아요.

남편: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 으아악! 제발 나 좀 내버려둬!

(2) 남성과 여성은 대화를 하는 목적도 다르다.

남성은 대화를 나누는 내용에 대해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보성을 추구한다. 그에 비해 여성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남성은 해결책을 찾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고를 하게 된다.

(예)

여: 수술 끝나고 나면 흉터가 남을까봐 고민이에요.

남: 그럼 성형하면 되지 뭐.

여: 당신도 흉터가 보기 싫다는 거죠?

남: 아니야. 난 아무 상관없어.

여: 그런데 왜 성형수술하래요?

남: 당신이 흉터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

여: 그러니까 당신도 흉터가 생기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남: 난 진짜 아무 상관없다니까 왜 그래?

여: 아무 상관없다니요, 그럼 당신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 당신 눈엔 신문밖에 안보여요? 나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남: 왜 또 시비야?

여: 왜 나랑은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남: 할 말 있는 사람이 말해? 왜 할 말이 없냐고 시비만 걸면 어떡해?

여: 당신이 신문 보는 시간의 반의반만 나랑 얘기해도 내가 행복할 거예요.

남: 글썄,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구현정, <대화의 기법> 중에서)

2-7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 남성과 여성은 두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남성의 두뇌는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성의 두뇌는 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두뇌 구조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생활 태도의 차이, 대화 습관의 차이를 만든다.

☞ 남성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한다.

남자의 두뇌는 특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다. 우뇌와 좌뇌의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두뇌를 스캐닝해 보면, 거의 귀머거리 상태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걸어 다니거나 이런저런 화제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양치질도 하고 전화도 받지만 남성은 이를 닦을 때는 이 닦는 일만 생각한다.

☞ 여성은 간접화법을 좋아하고 남성은 직접화법을 좋아한다.

여성의 두뇌는 과정 지향적이고 그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즐긴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다중트랙의 간접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문장은 짧고, 직접적이고, 해결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곧 자기중심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이해하는 태도가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3. 대화는 음성언어로만 이루어질까?

☞ 대화가 언제나 음성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달하는 말보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또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말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

잘했다, 잘했어.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에 의하여 30~35 % 정도가 전달되며 65~70 %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무언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동작언어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1. 목소리는 변할 수 있는가?

☞ 사람의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 높낮이, 빠르기 등을 다르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크기가 작고 낮아진다. 운동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소리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위급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평소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하게 된다.

목소리의 특성은 습관적이기도 하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목소리가 큰 식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크고 높은 소리로 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작고 낮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듣기 좋은 목소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도 한다.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3-2. 눈으로 말할 수 있는가?

☞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눈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과 마주쳐야 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눈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규제하기도 하고, 반응을 전달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 눈은 예로부터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눈의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른 시선을 피해 모른척한다. 시선이 마주칠 때 ‘왜?’ 또는 ‘나?’와 같은 반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원하는 신호로 우리는 시선을 마주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거나 지루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시선을 피하게 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덮이는 현상은 수업 내용에 흥미가 없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문화에 따라 눈 마주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들여다보는 것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대화할 때 학생이 교수의 눈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래 마주보면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나이가 위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똑똑히 뚫어지게 보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사람으로 여긴다. 눈을 통한 의사소통은 문화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화 도중 시선을 너무 피하면 관심이 없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불신을 나타내므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에 ‘내 눈 똑똑히 보고 말해.’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도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여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대화 상대자와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3.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표정은 언어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음성언어에 의한 메시지 전달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표정은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태도, 반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표정 속에는 한 개인의 모든 정보(마음의 상태, 특성, 건강, 개인성,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가 들어 있으므로, 그 사람의 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가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고 표정이 무뚝뚝하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또 그것을 대답할 때, 심지어 결혼식 같이 즐거운 행사에서도 웃음은 절제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혼인할 때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와 같은 말이 있어 특히 여성에게는 웃음을 금기시하는 풍토마저 있었다. 소설 속에서도 여성의 웃음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도구로 그려지면서 웃음이 많으면 품행이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웃음만큼 좋은 의사소통 방법도 없다. 열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 몸짓을 읽으면 사람이 재미있다.

☞ 몸짓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욕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각 문화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울고, 웃고, 화날 때 펄펄 뛰는 일, 손들어 인사하기, 배가 아프면 배를 만지는 시늉을 하는 행위 등은 보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짓은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배우게 되므로 문화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1) 엄지손가락은 늘 최고인가요?

☞ 손가락 움직임은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돈을 나타내지만 미국에서는 “O.K” 나 “Good”을 의미하고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을 올릴 경우 미국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의 표시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성공의 표시이고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에게는 “우두머리” 혹은 최고라는 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 일부 지방에서 이러한 행위는 무례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다가 한바탕 싸움이 붙고 만다고 한다.

손바닥을 벌리는 것은 결백, 정직, 충실과 복종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 손바닥을 사용하는 자세가 있다.



순종적인 손짓



우세한 손짓



권위적인 손짓

하나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이 행위는 거지가 돈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정직한지 못 한지의 여부를 보는 방법은 손바닥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고 싶을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자신의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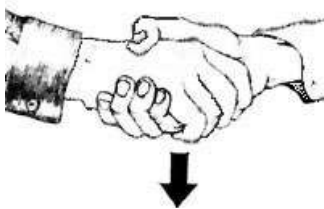


(2) 다리를 꼬고 이야기 하지는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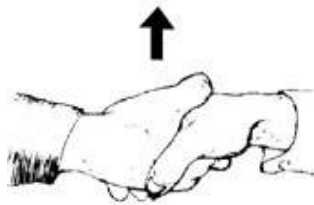
☞ 다리를 꼬는 자세는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가슴에 팔을 x자로 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며 초조함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하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논쟁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3) 악수 할 때 손등이 보이나요?

☞ 악수하는 것은 기원전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행하였던 행위이다. 현대의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는 악수가 인사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악수할 때 내미는 손의 모양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손등이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경우는 타협이나 순종을 의미한다.



우월감을 나타내는 악수



순종적인 악수

(4)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꾸 피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① 친밀한 거리 (15cm~46cm) : 자신의 소유물처럼 보호하는 지역이므로 오로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 ② 개인적 거리 (46cm~1.2m) :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낼 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 ③ 사회적 거리 (1.2m~3.6m) : 낯선 사람이나 배달원, 가게 주인, 새로 온



종업원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유지하는 거리이다.

- ④ 공공적 거리 (3.6m 이상)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 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유지하고자 하는 거리에 대하여 파악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연 습>

① 신문 보는 남편과 다림질하는 아내의 대화

의자를 등 뒤로 돌려 상대방과 30cm 정도 떼어놓고 비스듬히 앉아 보자.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해 보자. 어떤 변화가 오는가?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

② 부모의 손에 매달린 자녀와의 대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일어서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바로 앞의 바닥에 그대로 앉는다. 그런 자세로 서로 이야기해 보자. 2분이 지나면 서로의 위치를 바꾸고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언어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음성언어 외에도 목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더 다양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작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더 관심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이다.

국어생활의 쟁점

김 진 해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1. 들머리

-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다중적인 언어생활
 - 언어를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언어활동. 그런데 언어는 객관적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존재. 또한 언어는 언어 내적인 논리로만 정연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층위가 중층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성됨. 특히 그것이 언어정책 등 국가에 의해 제도화·규범화·단일화될 때 그 속에 담긴 다양한 함의나 복선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제도와 규범은 개인을 규정하기 때문.
 - 개인의 문제(건강, 교육, 희망 등)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듯이, 언어도 개인과 사회 간의 긴장 속에 존재. 그 긴장을 망각할 때 개인은 외롭고 우매한 ‘섬’이 됨.
 - 익숙한 질문과 익숙지 않은 질문
 - 익숙한 질문: 이게 표준어 맞아? 어떻게 띄어 쓰지? (How, What)
 - 익숙지 않은 질문: 표준어가 꼭 필요해? 한글맞춤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건가? (Why)
- ⇒ ‘왜’에 대한 질문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며 시민 공간(civil space)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



<국어생활의 쟁점들>

- 정책적 차원 : 한글과 한자, 표준어와 사투리(방언), 한글맞춤법, 한국어와 영어(영어 공용화, 영어마을, 국제자유도시 내 영어공용), 언어순화 등
- 그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국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와 언어 효과 발생
예) 호칭, TV 자막, 구호, 안내문·공문, 대화, 통신 언어 ...∞.
- 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으로 존재

○ 토론을 이끄는 읽기 자료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연주회장의 피아노 앞에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4분 33초”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연주회장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참을성 없는 청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덧붙여져서 음악은 ‘연주’되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장소를 대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연주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미술관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어떠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명한 예측, 경험의 안정성을 어졌을 때 우리는 불편해 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바탕에 깔린 무의식을 의심할 때 비로소 일상사의 근저에 흐르는 통념, 관습, 편견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사회나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도 고정된다. 옷깃을 여며야 하는 곳이 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하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옷깃을 여밀 곳에서 옷웃을 벗을 수도 있고 통탕거리며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연구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여기서 관계자란 누구일까?’ 하는 환청이 들렸다. 교수는 관계자인가, 거기에 연구실이 없이 동료 교수를 만나러 가는 교수는 관계자인가, 학생은 관계자인가, 교직원도 관계자인가, 서적 판매상은 관계자인가, ‘배달의 기수’ 아저씨는 관계자인가? 그 말은 분명



‘불일’ 없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금지의 언어일 텐데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뜻말은 크기와 색깔과 상관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옥죄다. 늘 ‘나는 관계자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그걸 며칠 전에 ‘여기는 교수 연구동입니다’라는 문구로 바꾸고 있었다. 어찌 보면 둘 모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같다. 단도직입이나, 에둘러 표현하는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는 교수연구동’이라고 써 놓아도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뀐 문구에 기뻐다. 너무나 ‘싸늘하게’ 중립적인 안내문이 마음에 들었다. 똑같은 통제의 말이지만 그 판단을 ‘나’에게 맡기는 강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서관 열람실을 나오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하지 않은 책을 갖고 나가면 책에 붙어 있는 전자 칩을 인식하여 “삐” 소리가 요란하게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도서관 차단기 위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벨소리가 울려 놀라셨죠? 열람대로 와서 문의하세요.”

도서관 이용객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는 말이다. 개폐기의 벨소리를 오직 ‘책 도둑’의 징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수나 착각을 이해하는 말이자, 책 도둑에게 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전해 준 사진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다.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쇼핑물 안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던 안내문이라는데, 내용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진기 그림에 ‘You can take pictures’라는 영문까지 친절히 달아두어 ‘마음껏’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안내문이 많다. 안내문은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표현한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각성시킨다. 또한 안내문은 본질상 대중에 대한 동원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안내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짧은 시간 자신의 자격을 따져 보게 만든다.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며 입산 금지이며 접근하면 안 되며 후면 주차를 해야 하며 무슨 요일에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되며 사장님을 만나려면 먼저 비서실을 경유해야 하며 8시 2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조용히 해야 하며 앉아야 하며 서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금지와 위압과 구분의 언어가 득세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긍정과 열림과 경계를 허무는 언어가 넘친다. 안내문이 없는 사회는 경계도 질서도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일 수도 있지만, 안내



문이 난무하는 사회는 편 가르기와 배제가 난무하는 사회일 수도 있다. 안내문을 피할 수 없다면 대중의 자발적 선택, 유쾌한 동의를 얻어내는 안내문이길 바란다. 밀어내는 언어보다는 끌어당기는 언어, 뺏어내는 말이기보다는 포용하는 말이길 바란다. 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행동의 결정권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알려면 안내문을 보라. 교묘해지는 것, 그게 민주화이다.

- 김진해, <밀어내는 언어, 끌어당기는 언어 : 안내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8호.-

2. 한글 · 한자(한자 폐지) 논쟁⁹⁾

1) 발단

- 1945. 12. -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 :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을 수 있음”
- 1948. 10.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도 있다.”
- 1951. 9. - 상용한자 1,000자 제정, 공포
- 1965. 3. - 국어교과서에 한자 노출(단독표기)
- 1968. 10. - 대통령 한글전용 지시. 교과서에 한자 삭제
- 1970. 3. - 초중고 교과서 한글전용
- 1972. 8. - 중고교 교육용 한자 1,800자 선정 발표(중학교 900자, 고교 900자)
- 1973. 3. - 중고교 교과서 한자 병용

9) 한글·한자 논쟁(한글전용, 국한혼용)에 대해서는 고길섭(2005),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도서출판 엘피 참고.



2) 한자 폐지론자

(1) **최현배** : 인류 사회의 문자사·문화사의 발전단계로 보아 한자의 폐지는 필연……. 문자사를 보면, 뜻글자는 소리글자로 변하고 말았다. 한자가 아무리 연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내 소수 유한계급의 봉건적 문자이라, 대중의 문자, 생활의 문자를 삼고자 함에는 도저히 그 불리와 불편을 견딜 수 없게 됨에 …….

- 민중적 관점

(2) 주장 내용

- 한자는 나라 망친 글자이므로 없애야 한다.
- 한자 안 써도 우리말에 잘 맞게 쓸 수 있다.
- 한자는 비능률적이어서 비현대적이다.
- 한자는 대중적이지 않고 교육적 귀족주의와 문화적 계급주의이므로 비민주적이니 없애야 한다.
- 한자 폐지는 민족의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다.
- 한자 폐지 반대는 일종의 보수적 타성의 결과이다.
- 한자로는 고유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기 불가능하다.
- 한자를 신성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 한자는 예술적이 아니다.
- 한자 폐지는 문자 발달사상, 문화발달사상 자연적 진보 과정이요, 적극적 혁명이다.
- 한자 폐지와 한자어 폐지는 다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 한자 폐지 운동은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한자 사용은 2중 생활의 고통과 부담을 지자는 것이다.
- 한자 교육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을 과학연구와 일반 문화연구에 노력하자.



3) 한자 폐지 반대론자(국한혼용론자)

(1) 주장 내용

- 한자가 아니고는 성명의 표기가 분명하지 못하다.
- 한자는 예술적인 글자이다.
- 한자를 폐지하면 동양 문명의 기초가 근본부터 파괴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의 근본 사상은 유물론적 공리론에 있는 까닭에 안 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은 편협한 국수주의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
- 한자는 동양의 공통 문자이며, 한자어는 동양의 공통어이므로 버릴 수 없다.
- 한자는 상형표의문자이므로 직각적(直覺的)·시각적 장점을 버릴 수 없다.
- 한자어는 유의어를 풍부하게 한다.
- 한자어는 조어력이 풍부하다.
- 한자어는 과학적이어서 과학적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
- 한자를 폐지하면 대부분의 한자어가 문제가 될 것이니, 이를 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인공적 비자연적 어휘 증가로 혼란을 초래한다.
- 한자어만의 독특한 어감을 무시할 수 없다.
- 과거 천여 년 간 한자를 써 왔고 현재도 써 온 것을 보면 한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 대립적 관점 정리

질 문	한글전용론자	국한혼용론자
한글전용 / 한자 혼용을 해야 하는 이유	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 한글은 가장 현대적이고 쉬운 글자. 습득 시간 단축. 요컨대 한자에 대한 한글의 절대 우수성이 그 이유	한글은 음운 풍부, 발음기호적 성격을 겸한 표음문자, 한자는 조어력·함축성·축약력 뛰어난 표의 문자이니 적절히 조화 필요. 사전에 70% 한자, 전문용어 대부분이 한자이므로 한자 익혀야 뜻 파악이 분명하게 되고 어휘 확장 용이
한자교육의 방식	‘한자’ 교육이 아닌, ‘한문’교육 필요. 중학교에서 한문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	한자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 초등 학교에서 1,000자 정도 습득. 중고 교과서는 괄호 삭제해서 노출해야.



질 문	한글전용론자	국한혼용론자
득과 실	득 : 배우고 쓰는 데 경제적, 컴퓨터 사용 용이, 한자를 한글로 적어 놓아도 읽는 속도 느리지 않다. 실 : 없다. 전통의 고아가 된다는 것도 한문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면 한다.	득 : 국민 지성 고양, 교육 효과 증진. 어휘 의미 파악 용이하여 학술발전 가능. 젊은이들의 전통문화 이해 용이. 실 : 없다.
한자전용 / 한자 혼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전용법의 '다만' 조항 삭제하고 이 법을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2,000자 정도의 상용한자 제정해 신문, 잡지, 출판물에 혼용하면 효과적이며 인종의 사고력과 어휘력 향상, 발음 교육과 전통성 회복에도 효과적

4) 한글 · 한자의 주술화, 신화화

(1) 한자 폐지론자의 상대적 우월성

- 대중들의 민주적 삶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ex. 한자폐지 반대론자의 경우 한자를 ‘남자다움’이나 ‘권위’에 일치시키고 있어 당시 유행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 없이 전통적 문자 인식론에만 얽매임. 반면 한자폐지론자의 경우 일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의 악몽을 역사적 경험으로 교훈 삼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을 강조).

- 당시 한글보급과 문맹퇴치 문제와 직결되었으므로 한자폐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었음.

- 미 군정청 학무국의 여론조사(1945.12) : 일반인은 88.2%, 교육자는 56.7%, 전체적으로 72.9%가 찬성.

(2) 문제점

- 일반 대중의 요구와 달리 지식인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한자폐지 반대 경향.

- 백남운(학술원 원장; 중도좌파, 월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역임) : 국가 법령과 같은 강력으로 결정된다 할지라도 여론을 토대 삼지 않는 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사실 학무국의 한자 폐지 정책은 80명가량의 교육심의회 위원들의 절대 다수가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사를 대중과 지식인들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공표 후 여론 조사)

(3) ‘비행기’와 ‘날틀’

- 한자폐지 반대론자들의 새말만들기 비판

• 김형규('47.『조선어의 과거와 미래』) : ‘산에 가자’를 ‘뫼에 가자’고 하면 의미 안 통할 것.

• 이희승('47.『조선어학논고』) : ‘순우리말이 정답다고 해서, 한자말을 모조리 없앨 듯이 새말을 지어내는 일은 자아의식에 충실한다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새말만들기 비판. 그는 ‘물리학’을 ‘몬결학’, ‘수학’을 ‘셈갈’, ‘전기학’을 ‘번개갈’, ‘비행기’를 ‘날틀’로 지어냈다고 비난.

- ‘비행기’, ‘날틀’ 논쟁의 왜곡

• 최현배가 ‘비행기’를 ‘날틀’로,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어느 학자가 최현배의 주장에 반론을 펴면서 “한자를 폐지하게 되면 ‘학교’는 ‘배움집’, ‘비행기’는 ‘날틀’,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 ‘전차’는 ‘번개 딸딸이’나 ‘번개 수레’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자 최현배가 “한자와 한자어를 구별해서 쓰라”고 주장한 것이 와전.

• 최현배(글자의 혁명) : “‘學校’ 대신 ‘학교’로, ‘電車’ 대신 ‘전차’로 적자는 것일 뿐”

- 그러나 한글전용을 지나친 말바꾸기로 일관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피하지 못함. 물론 최현배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개인적 언어실험으로 한정해야지 공식에 있다고 공식적 언어정책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은 잘못. 왜냐하면 언어실험은 대중들에 의해 선택,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정태진 : 「한자 안쓰기 문제」(1946)

- ‘점진적 폐지론’ 제시 - 두 주장을 각각 방임주의와 박멸주의라고 모두 비판.
- 한자폐지에 앞선 준비 미비/한자폐지 위해서 한자 배워야 한다는 등의 근거
- 시기적 제한, 자수의 제한, 어휘의 제한, 사용범위의 제한, 자획의 제한 (약자사용), 일본식 한자어의 폐지, 2중어의 폐지 등 제시

(5) 관념적 민족주의의 오류

• 시비과정에서 한글과는 한글전용을 ‘애국행위’로 한자혼용을 ‘비애국행위’로 비약. 국한혼용과는 한글전용을 ‘공산주의, 빨갱이 주장’으로 매도. 한자파들은 걸핏하면 신문도 읽지 못하는 ‘대학생 한자 실력론’¹⁰⁾을 들고나오는 반면, 한글학회는 ‘최만리’의 상소를 즐겨 사용.

- 문자개혁은 현대사회의 세계적 추세. 현대적 삶에는 대중들에 있어서 문맹 퇴치, 문자생활은 필수적.

- 즉 서구문화에 영향을 받아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전면적인 문자생활이 불가피.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자는 지배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었고, 게다가 배우고 사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민대중과는 거의 무관.

- 중국은 청말(清末)에 이미 한자를 ‘네모난 귀신’이라고 적대시하여 1930년대 경부터 라틴화 새글자 운동이 열풍 불(노신 :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 일본은 1866에 한자폐지론 제기. 우리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 곧 중국처럼 방언 문제에 시달리거나 일본처럼 가나-한자의 혼용 문제 같은 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는 대중들의 현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글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자폐지론자들이 안에 대한 고민 없이 곧바로 한글전용론으로

10)다음은 ‘영터라’로 대답한 몇 가지 예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 4필의 말을 타고 돌아옴. 곧 성공하여 온다는 말.

일석이조(一石二鳥) - 밤은 하나로되 아침이 다르다.

여인숙(旅人宿) - 여자들이 있는 잠자는 곳

명약관화(明若觀火) - 쓴 약일수록 효과가 있다.

고희기념(古稀紀念) - 고대 희랍 축제일

삼강오륜(三綱五倫) - 낙동강 · 두만강 · 한강, 청, 홍, 백, 흑, 남



연결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전통문화가 계속 발목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대중들이 글자생활로서 한글만을 욕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한자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함.

- 즉 심정적 동의와 현실의 구조는 다르기 때문.

-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이라는 대중적 글자보다 한자라는 비대중적 글자가 개인적으로 더 과시의 원천이 되기 때문.

- 이는 한글전용론자들이 비난하듯 ‘사대사상’이나 ‘노예근성’과는 무관. 설명 허위의식일망정 대중들의 삶을 구성하는 현실의 요소.

- 한글과는 한자의 비민족성만 보려했지, 한글의 현실 사용과정에서 지배의 논리와 민중들의 해방사상이 중층적으로 얹혀 투쟁하고 있음을 보려하지 않음. 이는 한글과 사람들이 이미 억압적 국가장치의 주재자로 기능하려고 하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 그들은 집권자나 국가권력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어문정책상의 해계모니를 장악(4.19 혁명 시 시국선언서 작성에 한자파인 이회승, 조운제가 가담한 반면, 한글학회 쪽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배알, 최현배는 미군정 때부터 문교부에서 어문정책 주도한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 발휘).

- 한글전용은 엘리트주의적 발상 :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쉬운 한글만 쓰자는 논리는 일면 민중적·대중적·민주적 성격을 띄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들의 문자적 욕망을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 발상. 한문을 전문가들의 특권적 영역으로 제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 허물기는 대중들의 민주적인 문자 활동의 기초. 문자는 특권적 전문가의 표시, 해설, 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의 육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선택은 대중들 자신의 권리이다¹¹⁾.

11) 우리나라의 문자생활이 한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복잡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자교육 및 필요에 따라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신문 하나 못 읽는다는 한자파의 주장에 한글과는 신문을 한글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게 개조되지 않는다. 대중들의 욕구는 한글에만 있지 않고



- 요컨대 현대적 삶과 관련하여 대중들의 언어적 욕망이 복잡한 층위로 형성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통로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여 몰아넣는 것은 ‘관념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5) 현실적 대안 - 표기보다 이해를

• 한자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 그리고 한자가 섞인 예전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한자를 배운다면 ‘쓰기’보다 ‘읽기’ 중심의 학습이 적절하다.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만 안다면 이런 목적으로 한자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은 글을 쓰는 도구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한자를 필기구로 쓸 줄 몰라도 인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한자 학습은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한글전용은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한글전용은 문자생활에 국한된다. 한자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한자 학습이 불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말 어휘를 구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필요한 수만큼의 한자를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한자를 표기에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말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배주채 1999: 88~89).

3. 영어 공용화 논쟁¹²⁾

- 영어는 우리(또는 나)에게 무엇인가?
- 영어를 공용화하면 국어의 순수함,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가? 반대로 영어를 자유롭게 쓰면 세계인이 되는가?
- 그런데 언어는 순결한가?(순결한 적이 있었는가?)

한자에도 있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대중들은 지식인과 달리 한글전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자 문맹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 한글관련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사실 뒤에는 1970년대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에서 ‘상용한자 1,800자’나 ‘천자문’ 따위들이 마찬가지로 수없이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12) 영어 공용화 논쟁과 관련하여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pp. 73-184에 실린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를 읽어보길 권한다.



○ 읽기 자료 1

"영어 능동적 도입해야" - 「공용어 주장」 동조

함 재 봉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타적 민족주의는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올바른 것, 즉 보편타당한 것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기준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성이란 곧 '강자의 것'이라는 냉소적인 주장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대국이나 할 수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 민족국가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뿐이다.

실제로 한민족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기약해왔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보편적인 사상과 철학,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불교를,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근세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상과 제도는 특정 민족과 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굴절되고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래문명과 문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살찌웠다는 역설 아닌 역설이 성립된다. 불교와 유교는 '외래' 문명이지만 우리 특유의 모습으로 일구어 왔다.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한문, 즉 중국 글자로 되어 있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보물들이다. 그러면서도 한문이라는 국제어로 쓰여졌기에 보편성도 확보하고 있다.

민족문화는 결코 불변의 고정태가 아니다. 늘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결코 무국적의 보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우리의 문화',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기약해보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얘기들이다. 북거일씨의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민족주의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수용하는가이다. 북거일씨는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보다 빠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여



기에 그의 역설이 있고 동시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철학적, 사상적 도전이 있다.

그렇다면 영어를 국어와 함께 우리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이 진정 한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한자를 도입하였듯이 영어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결과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의 변형은 역시 한국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한글, 한자와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사용과 발전을 전제로 한 영어의 도입은 한국인의 인식의 지평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한국문화는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 고유의 사상과 미풍양속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영어라는 국제어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어 공용어 채택 여부는 철저하게 민족과 국가의 실익 차원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지 반민족주의적인 발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읽기 자료 2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남 영 신 (사전학자,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저자)

요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도 상당히 다양해져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장들이 제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최근 간행된 소설가 복거일 씨의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에 실려 있는 주장들은 그런 부류의 하나로 보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독이 들어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어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 제국' 시대에는 민족주의나 민족어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이는 대단히 '용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동해 표기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여러 부정적인 민족주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만 따진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



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 아쉬운 쪽은 일본이 아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민족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약소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국제기구에 하소연하는 것인가? 그가 주장한 우리 사회의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민족주의 죽이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는 것이다. 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놀랍게도 단순하다. 지금은 미국을 지도국으로 하는 ‘지구 제국’ 시대이고 이 시대에는 영어가 국제어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구 제국’ 중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영어를 처음부터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민족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국어와 함께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가 밝히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으나 공용어인 영어만 잘하면 그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천박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으로 보는 생각도 단순하고 위험하기는 그가 배척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어를 국제어로 보고 국어까지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하여 국어 속에 들어와 있는 ‘쓰리, 와이로, 히야카시’ 같은 일본어 찌꺼기를 되살려 쓰자고 주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일본어는 영어와 같은 반열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국어는 아무렇게나 의사소통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되는 하급언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1천 년 전에 자기 정체성을 잃고 국어를 중국어의 하위 언어로 전락시켜 우리 문화와 민족의 자주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던 신라의 지식인이 21세기를 앞두고 환생한 것이 아닌지 착각하게 한다.



○ 읽기 자료 3

열린 민족주의를 찾아서 한국은 민족주의 과잉…… 영어 공용어는 현실

북 거 일 (소설가)

이 글은 줄저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를 비판한 남영신 씨의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에 답하는 글이다. 남씨의 글을 읽으니, ‘민족주의와 민족어는 너무 예민한 주제들이어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민족주의와 민족어에 관한 내 생각은 지금 인류 사회들이 느슨하게나마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국경 안에서 끝나는 일은 드물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또는 환경 문제 등. 이번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아프게 일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영어가 실질적 국제어로 자리 잡았다.

놀랍지 않게도, 이제 민족주의는 점점 현실에서 유리되고 비적응적으로 되어간다. 특히 다른 민족들과 민족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닫힌 민족주의’를 지닌 사람들은 둘레에 괴로움을 끼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힌다.

민족주의적 열정은 불이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 사회에 활력이 넘치지만, 잘 못 다스리면, 많은 것들을 잃는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잘 다스려서 ‘열린 민족주의’로 다듬어내야 할 것이다. 남씨의 주장과는 달리, 나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민족주의에 대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논지는, 민족주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 나타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군함을 보내 시위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국내 정치를 겨냥한 과잉 대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자, 바로 그 대통령은 서둘러 경제 부총리를 일본에 보내 원조를 요청했다. 그나마 돈도 빌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공허한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국제어와 민족어에 관한 내 주장을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로 요약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국제어로 자리잡은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손해가 이미 너무 크고 앞으로는 더욱 커질 터이므로, 경제 논리



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삼도록 만든다는 것이 내 주장의 바탕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는 생존에 결정적인 기술이 되었고, 모두 영어를 배우는 데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아직 모국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부터 이어폰을 끼고 영어 회화를 배우는 중년들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그런 투자는 효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나는 일단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공용어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물었다. ‘만일 막 태어난 당신의 자식에게 영어와 조선어 가운데 하나를 모국어로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것을 권하겠는가? 한쪽엔 영어를 자연스럽게 써서 세상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일상과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고 영어로 구체화된 많은 문화적 유산들과 첨단 정보들을 쉽게 얻는 삶이 있다. 다른 쪽엔 조상들이 써온 조선어를 계속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영어를 쓰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평생 갖가지 불이익을 보고 분초를 다투는 정보들을 뒤늦게 오역이 많은 번역으로 얻어서, 그것도 이용 가능한 정보들의 몇 십만 분의 일이나 몇 백만 분의 일 만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삶이 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자식에게 권하겠는가? 아예 그에게서 선택권을 앗겠는가?’.

○ 읽기 자료 4

민족과 민족어

김 진 해 (경희대)

북거일씨(이하 ‘북씨’)가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한 이래 언론이나 컴퓨터 통신에서는 허다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씨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세계화(그의 용어를 빌자면 ‘지구제국화’)되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와 민족어를 버리자는 것이다.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로 모든 언어를 표준화(standardization)시키자는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하나의 ‘지구 제국’이라는 바벨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미래학자’ 북씨는 영어가 단 하나의 국제어로서 거의 모든 부면에 쓰일 것이며, 민족어들은 점점 활력을 잃고서 차츰 사라져 중국에는 ‘박물관 언어’가 되어 일부 학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나가는 마당에 민족어를 고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절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모국어를 계속 떠받드는 것은 언어가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것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런 질문을 해 보자.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해명되면 언어로서의 민족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복씨의 주장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은 국가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일한 민족어(national language)로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통 한국 표준어, 즉 한국어 중에서 표준화된 방언을 말한다. 표준화된 방언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동일화·동질화의 한 부분으로써 ‘표준화’를 성취한 결과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어의 표준화가 필요했던 것은 생필품의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져서 통일화된 국내 시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족어로서의 표준화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상품 거래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은 이런 것이다. 복씨가 영어를 지구 제국의 표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그의 예측은 세계가 이제 상품, 문화, 언어, 의식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동일화·동질화·단일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인간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힘을 놓치고 있다. 복씨는 언어가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골라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자, ‘세계를 형성하는 힘’이다. 곧 물질적 성격을 갖는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면서도, 그것을 운용하는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미 부여에 따라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곧 언어는 수동적인 도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의식에 관여하고 사회 질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어는 그저 보편적·중립적으로 인간 사고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자신의 의도대로 구축하고자 현실에 개입한다. 즉 언어는 사회 질서를 재구축하는 힘이 있다. ‘서클’을 ‘동아리’로, ‘MT’를 ‘모꼬지’로 바꾸려는 언어적 실천은 퇴화한 우리말을 살리는 의미 외에도, 영어에 압도된 한국 사회에 대한 언어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씨클’이나



‘MT’에 없던 의미가 새로 생기고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80년대에 여대생들이 남학생 선배에 대하여 ‘형’이라고 명명했던 것도 당시 ‘오빠’라는 단어 주위에 맴돌던 ‘약하고 의존적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인식을 깨려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동시에 쓰려는 것이나, history를 herstory로 바꾸려는 노력은 언어가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언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명 방식의 차이(쿠데타/혁명, 사태/운동/항쟁, 광복절/해방절), 동일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명명(재(財)테크/돈놀이, 근로자/노동자, 협의/협상, 사용자/자본가) 등을 보면 언어가 세계를 그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키고 세계를 재구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조건, 직업에 따라 언어의 운용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언어는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공간이다. 언어 자체는 객관적이고 평등할지 몰라도 그것이 운용되는 현실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표준어와 사투리, 지식인 언어와 민중 언어,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 부자 언어와 빈자 언어, 국제어로서의 영어와 민족어로서의 한국어, 영어를 잘 쓰는 교수와 잘 안 쓰는 교수 사이에는 일정한 사회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성의 언어적 외화는 현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한다. 복씨가 제기한 영어 공용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이 철저히 관철되는 현재의 국제 질서에 그대로 편입하고 싶다는 고백이다. 민족어를 없애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제안에도 언어가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영어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이다. 언어로만 놓고 보면 영어가 언어적 패권을 잡고 있으니 서자인 우리말은 버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제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 도리어 언어적 패권에 도전하면서 주체를 형성할 것이냐, 무장 해체를 통해 주체를 상실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곧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지구 제국’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 하면 민족주의가 없어지고 진정한 지구 제국이 되려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한 제조건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단힌’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예들을 보면 그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역사성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동해/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하여 한국인의 ‘단히고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독도 분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일본의 책략은 방기한 채 ‘둘 사이에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라고 하면서 어색한 한일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합리적 선택은 독도를 주자는 것인 듯).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로 넘어가면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동해는 주인 없는 공해이므로 그 이름에 딸린 ‘실익’이 없다고 한다. 실익도 없는데 쓸데없이 열 내지 말자는 것이다(이도 ‘일본해’로 하자는 말인 듯). 남북한이 어렵게 성사시킨 컴퓨터 자판 통일안에 대해서는 모든 표준이 협상이 아닌 경쟁을 통해 정해지며,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 뻔한데 무엇 하려고 정치적 타협을 하냐는 것이다.

여기까지 미치면 복씨의 영어 공용화 주장이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 경제의 논리, 지배/종속의 논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설계한 ‘지구제국’은 사실은 미국 중심의 지구와 다름 아니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최종 목표가 공존·공영이라고 속단할 수 있는가? 미국적 이익이 철저히 관철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의 영어 공용화 주장은 힘의 역학 관계와 불평등 구조가 엄존하는 세계 현실에서 동화적 세계를 꿈꾸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는 그러한 구조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판결한다. 그가 본 미래는 화려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책략은 빈곤하다. 곧 ‘주체’와 ‘실천’의 포기.

○ 읽기 자료 5

민족어의 미래

도 정 일 (경희대)

(1) 21세기는 한글과 한국어에 어떤 운명을 예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완곡한 것이다. 훨씬 급진적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그것은 “21세기에도 한글-한국어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두 질문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민족어문이 인접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모종의 ‘변화’ 가능성에, 후



자는 민족어문의 ‘소멸’이라는 훨씬 과격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모종의 변화’란 민족어문의 존속이라는 전제 위에서의 언어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지위, 세력)를 의미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어문체계의 약화, 쇠퇴, 소멸과 어떤 다른 어문체계에 의한 ‘전면적 대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민족어문의 미래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별 적절성도 진지성도 없는 것으로 들릴 지 모른다. 언어의 통시적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 언어에 발생하는 역사적 변화라는 것은 어문 체계(language)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퍼포먼스/빠를 차원의 것이며 따라서 민족어문의 전면적 소멸이나 대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정치적 지위 변화라는 것도 민족어문이 존속하는 한 그리 걱정할 일은 못된다. 그것이 존속하는 한 지위의 부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 한글-한국어는 소수 부족언어가 아니라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어이고, 민족어는 민족 자체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 전개가 없는 한 소멸하거나 소멸의 위기로 몰리지 않는다. 한국어는 한반도에 영토 기반을 둔 7천 5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고, 이 규모는 천(千) 또는 백(百) 단위의 사용 인구를 가진 소수 부족언어나 만(萬) 단위 수준의 소수민족(독립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 언어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구학적 영토적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에 걸친 사용의 역사를 가진 토착 민족언어는 외부 영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을 이겨내는 강한 내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공용문이었었던 한자의 영향이나 일제 식민통치세력에 의한 민족어문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어가 살아남은 것은 그 내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셋째, 한국어는 5백 년 역사의 문자체계, 높은 문자해독-사용률(literacy), 문화적 기반, 대중매체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족어의 발전을 위한 교육-어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학적 규모와 영토 기반, 전승체계와 문자사용력, 전통과 문화적 토대, 매체환경, 국가적 어문정책 등은 한국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위기상황의 고려도 부적절한 것이게 한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할 때, 위험 상황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병리적 공포의 산물이거나 잘 해야 가장 한가한 순간의 ‘과잉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3) 언어의 소멸은 ‘소멸의 조건’이 ‘생존의 조건’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소멸의 조건들은 상당한 복잡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1) 천재지변이나 역병에 의한 사용인구의 격감과 중국적 소멸, 2) 정복집단에 의한 피정복 집단의 언어적 통합(예: 남북미의 경우) 혹은 그 반대 현상(바이킹어, 노르망디어, 만



주어처럼 소수 정복집단의 언어가 다수 피정복집단의 언어에 흡수되는 경우), 3) 식민지배에 의한 토착 언어의 말살, 4) 강력한 외부 영향에의 장기적 노출, 접촉, 교류의 결과 지배언어에 의한 약체언어의 변화와 흡수(아프리카, 러시아, 태평양 지역, 오세아니아, 유럽, 중국) 등이다. 최근 언어소멸 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자들과 유네스코 조사(『소멸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지도』, 유네스코, 1996)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6천 개의 언어들 가운데 3천 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멸해가고 있고 위기 언어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남은 3천 개의 언어들 중에서도 21세기말까지 약 2천 4백 개 정도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추정을 따를 때 다음 세기말까지 살아남을 언어는 6백 개 정도에 불과하다. 언어소멸의 원인과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자연적 원인에 의한 소멸의 속도가 빨라진 것은 15세기 ‘정복의 시대’ 이후 19세기-20세기 중반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이다. 이 5백 년 동안 없어진 언어는 아프리카, 남북미, 오세아니아, 북중부 유럽, 시베리아, 동남아 등 세계 전지역에 걸쳐 약 1천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미국) 지역에 국한해도 약 270개의 토착 인디언 부족언어들 가운데 현재 남은 것은 약 40개 정도이다. 그러나 향후 21세기의 백년간 소멸하거나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수는 지난 5백 년간의 소멸어 숫자를 훨씬 상회한다. 이런 사정은 20세기말 현재 세계의 언어적 자원들을 고갈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이 강화된 조건들, 혹은 소멸의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세력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번 조건(천재지변, 역병)이 21세기에도 언어소멸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적다. 무력에 의한 정치적 세력변화에 해당하는 2)번 조건(정복과 복속)과 3)번 조건(식민지배) 역시 언어소멸의 21세기적 조건 구성요인으로서는 그 작용 정도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은 것은 4)번 조건 — “강력한 외부 영향에의 장기적 노출, 접촉, 교류의 결과 지배언어에 의한 약체언어의 변화와 흡수”이다. 다른 세 개의 조건들이 약화된 대신, 이 마지막 조건은 20세기말 현재 유례없는 심도와 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그 강화의 정도는, 현재로는 미미해 보이는 변수들을 무시할 경우, 향후 21세기 전반부 50년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강력한 외부 영향’이란 무엇인가? ‘외부 영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지칭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변화로서의 단일 세계시장체제의 대두이다. 자유시장 체제는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단위 국민국가와 사회들이 ‘적응’을 강요받고 있는 신질서이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영역이며 국가 간 생존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다. 이



새로운 세계 환경으로서의 시장체제는 사실상 모든 단위국가들의 편입과 적응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외적 환경’을 형성하고 단위국가-사회들이 생존을 위해 그 신체제에의 적응 기술과 게임 규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내적 환경’을 구성한다. 외적 환경의 이 자발적 내부화 현상(“변해야 산다”, “무한경쟁의 시대”, “국제규범에 맞추기”)은 시장체제적 규범과 게임룰의 내면화에 비강제성을 띄게 함으로써 외적 환경변화로서의 세계화를 ‘강력한’ 것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역사상 가장 특수한 요인이다. 세계화한 단일 시장체제는 말하자면 21세기 전반부 혹은 세기의 전 기간에 걸쳐 단위국가들에게 안팎 구분이 불가능한 ‘전면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이 될 모든 경향들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5) 단일 세계시장체제가 ‘전면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이 된다는 것은 그 체제가 단순히 경제 층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층위를 넘어 21세기 단위 국민국가-사회들의 생존방식과 행태, 가치체계와 신념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사회조직, 정의(定議)의 체계(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로서의 교육과 문화 등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측은 적어도 지금의 추세로 판단할 때 결코 맹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이미 현 정부는 세계체제에의 적극적 적응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시장논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다른 어떤 논리나 가치보다도 선행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이른바 ‘신지식인’ 운동에 깔려 있는 내적 동기는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도구적 지식과 방법지(方法知, know-how)를 다른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비판적 지성보다도 우위에 두려는 것이다. 이는 도구이성으로 비판이성을 대체하고 목적합리적 기술 ‘지식’으로 비판적 ‘지성’을 전면 경질하기 — 곧 기술지식의 권력체제화를 추구한다.) 민족어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 영역’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신환경의 대두를 배경으로 해서이다. 앞서 거론한 언어소멸의 조건들 가운데 1)번에서 3)번까지의 요인들이 한국어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4)번 조건의 현대적 전개는 다른 국지 언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어의 운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possibility)과 개연성(probability)을 구비하고 있다.

(6) 이 영향의 가능성-개연성을 검토하는 데는 민족어의 유구한 존속이나 현재적 생명력(vitality)의 정도, 어문체계에 대한 지식 같은 기준보다는 민족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몇 개의 다른 요인들을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고려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가) 경제 층위에서의 민족어의 위신(prestige) 약화와 추락
- 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언어 이데올로기의 대두 — 지배언어의 공용어화
- 다) 민족어의 유지 발전에 대한 의지의 약화와 재능 결핍
- 라) 민족어의 제2언어 혹은 방언화

가)와 나)가 거시적 요인들이라면 다)와 라)는 미시적 요인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번의 ‘위신약화 요인’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는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 나)번 요인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게 하거나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이다. ‘강력한 외부 영향’과의 조우에는 과거 소수 부족언어들이 소멸의 길을 걸은 것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데 소수 언어의 사용 자체가 그 사용자들에게 불리했거나 최소한 적응의 소득(실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소수언어집단 말고도 숙주국(host-country)에의 빠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민집단-가족의 경우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소수 언어집단과 이민집단의 경우 그것은 단위 집단의 결정에 따른 미시적 현상임에 반해, 지금의 세계체제에서 상대적 약체성을 경험하고 있는 다수 국지 언어들의 경우 위신 약화는 초국가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21세기 세계시장체제에서 누리는 위신의 정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에서 보면,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령의 압박에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할 경우, 나)번 요인(“언어 이데올로기의 대두와 지배언어의 공용어화”)이 등장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언어 이데올로기’가 의미하는 것은 세계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어이지 방언이 아니라는 판단의 공적 정책화, 다시 말해 지배언어의 적극적 정책적 채택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어 혹은 지배언어는 ‘영어’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미 ‘영어의 공용어화 필요성’이라는 제안이 사회적으로 거론된 바 있고, 영어로 작품을 쓰겠다는(?) 작가도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기업체에서는 회의와 문서작성에서 영어의 기준언어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직은 미시적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이 관(官), 교육, 매체, 텍스트 등의 공영역으로 공식 확대될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어 위축 요인은 강화된다. 이 전망에서 말하면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는 영어와 민족어의 지위를 일단 평등화하는 ‘이중언어정책(bilingualism)’의 공식 채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7)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어 위축 요인들이 강화될 때 이 추세에 맞서서 민족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민족집단 내부의 의지와 재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역사상 그리고 지금도, 다수언어 환경으로의 적응이



라는 현실적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족사회나 소수민족의 경우에도 지배언어와의 이중언어적 혹은 다언어적 공존이 반드시 토착언어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소수언어집단 내부에 자기 언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재능이 살아 있을 경우이다.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어 지키기의 의지와 재능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미시적 차원에서의 선택, 결정, 실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국지 토착어나 민족어의 위축-소멸은 가속화하기도 차단되기도 한다. 만약 그것이 가속화의 방향을 취할 때, 라)번 요인(“민족어의 방언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지배언어 앞에서 민족어는 제2 언어로 내려앉고 그 지위는 국지적 ‘사투리’로 강등되며 그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역시 결정적으로 추락한다. 물론, 긴 역사와 다수 사용인구를 가진 한국어가 불과 백 년 사이에 (그 백 년간의 변화 속도가 제 아무리 빠르고 그 압박이 강하다 하더라도) 전면 소멸의 위기에 처할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이상의 요인들이 장기에 걸쳐 집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민족어의 방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방언의 조건이 오래 지속되고 지배언어의 세력이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어의 점진적 소멸이라는 상황 역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8) 세계화 환경이 심화시키고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도 민족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참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 문맥의 일부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로는 국민국가의 권능 위축, 문화의 탈영토화와 탈문맥화로 인한 문화 잡종화, 문화적 지속성(집단기억과 정체성)의 파괴, 개인-집단들의 연대와 충성의 방식에 발생하고 있는 탈국경화 현상, 정보 네트워크-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과 과학-공학기술 및 소통기술(communications technology) 영역에서의 특정언어의 지배력 강화, 문화생산 방식과 소비문화의 세계적 획일화 경향, 지배언어(현재의 영어)의 매체 장악력 증대와 정보 생산-습득-유통 과정에서의 세력확장, 다문화(multicultural) 환경의 심화 등은 이미 주목되고 있는 변화들이다. 물론 이상의 요인들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민족어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다든가 일방적으로 문화의 획일화만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때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낙관의 근거들은 상당 부분 허약한 것이라는 판단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창조적 대응의 방식과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21세기적 상황 전개가 민족어의 운명에 몰고 올 수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를 사유하고 상상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약간의 유보를 두고 말한다면, 경제 영역은 민족어의 미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정치 영역은 치적 과시를 위한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이벤트’나 꾸며내고 선전 홍보용 밀레니엄 경축행사를 위한



‘잔피’ 같은 것이나 생각해내느라 여념이 없다. 매체들의 경우에도 밀레니엄은 진중한 사유의 대상이기보다는 거품성 상품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밀레니엄의 도래를 민족-민족어-민족문화에 연결지어 생각해보려는 의지와 사유능력의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9) 민족어 문제는 왜 중요한가? 세계의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일은 왜 필요한가? 민족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봉착하는 질문은 언어적 다양성의 가치와 국지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러므로 파괴될 수 없고 일단 파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가치라면, 언어의 다양성도 인간의 문화생태계 유지에 극히 중요한 가치이다. 그 다양성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특성의 가장 찬란한 구현이며 창조성, 상상력, 세계 인식방법, 표현력, 소리와 부호화의 보고(寶庫)이다. 어떤 단일어도 그 자체로는 이 같은 다양성을 모두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언어 다양성은 거대한 문화적 자원임과 동시에 인간과학의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멸 속도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기말까지 이 같은 언어 자원의 약 90퍼센트는 사라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위적 복구가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이며 인간의 지적 정신적 능력의 궁핍화이다. 과거 한때 부족어의 소멸을 조장했던 유수의 국가들이 자국내 소수 언어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투자를 증대시키고 인력 양성과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언어 다양성의 파괴로 인한 인간 능력의 궁핍화가 문화생태계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산법이긴 하지만,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이 지닌 거대한 힘은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해답’들이 그 다양성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생물다양성과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은 말하자면 해답을 기다리는 문제들의 보고가 아니라 “문제를 기다리는 해답”의 창고이다. 인간은 아직도 장구한 역사시대를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그가 지금까지 발견한 문제보다는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더 많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파괴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선취적 해답체계를 인간이 제 손으로 고갈시키는 행위가 된다.

(10) 도구적 언어관은 언어에 대한 정당한 인식방법이 아니다. 언어에는 소통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적 성격이 있지만, 언어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존재의 실현’에 있다. 언어를 ‘인간 존재의 집’이라 말할 때의 그 존재의 집이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존재를 실현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세계어가 아니라 국지 토착어--인간 개체가 태어나 성장한 바로 그 부족언어이고 민족언어이다. 세계화의 문맥 속에서도 개체 인간의 가장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모태는 구체적 국지성(locality)의 환경이지 추상적



세계성(globality)의 문맥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시장체제적 적응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국지 토착어의 위축과 소멸의 조건을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은 창조적 삶의 모태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국지 언어의 위축과 소멸은 곧바로 국지성의 약화와 소멸을 초래하고 이는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를 궁핍화한다. 도구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은 지배의 논리에는 봉사할 수 있어도 존재의 실현과 공존이라는 목적에는 봉사하지 않는다. 기술주의적 도구주의는 삶의 한 방편일 뿐 목적은 아니다. 21세기에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민족어와 소수 언어들은, 몇몇 국제 언어를 제외하고는, 제2, 제3 지위의 방언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위기 국면에 개입하여 언어 다양성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와 재능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읽기 자료 6

한-일 영어 현실 비교

로버트 파우저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교수 응용언어학)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일본 불경기가 극에 달했던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피상적인 개혁으로는 되지 않는다. 포맷을 새로 해야 하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운영체제(OS)를 갈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자문 ‘21세기 일본구상 간담회’ 보고서 가운데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완전히 이중 언어,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뒷받침과 영어 인프라가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을 이 두 가지를 통해 비교해보자.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영어는 여전히 시험용 언어다. 그러나 일본은 나름대로 영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정은 더 나쁘다. 극소수의 영어 교사를 제외하면 영어로 자신 있게 교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 교사를 데려 올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낮은 급여, 예산의 제약, 그리고 한국적 ‘장벽’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한국의 대학 분위기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대학은 그런 시도조차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사정이 좋다. 교사들 급여가 한국보다 좋아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너지는 교실’이라는 얘기에 불구하고 인재들이 학교로 모인다. 비판도 있었지만, AET(Assistant English Program)를 통해 수만명 영어 원어민이 1980년대 중반부터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 교과목 내에 영어 집중코스를 만들어 넣은 중·고등학교도 있다. 아사히신문 ‘대학 랭킹 2000’을 보면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10%가 넘는 대학의 전체 63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65개나 된다.

영자 신문과 출판 수준도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 지방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영어 번역·교열의 질도 높으며 관광 안내에는 오자나 이상한 표현이 거의 없다. 인쇄 매체의 영어 수준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간다. 언어산업에서 일본인들과 영어 원어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인들의 영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을 새로 포맷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벽’을 허무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와 교육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력하며,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보듯, 이중 언어는 결코 모국어를 해치지 않는다. 제2, 제3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기 나라를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고 지역 문화와 글로벌 문화를 둘 다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을 보인다. 2030년이면 단일문화, 단일언어로 남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생활양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벽’만 고집하면 한국은 20세기 박물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4. 나오는 말

- 다시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도구인가, ‘존재의 집’인가? 아니면?

청소년 언어문화의 이해

박 종 호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1. 어느 낯선 별에서 온 외계어?

앙용 뷔 ㄴㄹㄹ ㄷ. 글 올린 ㄷㄹㄹㄹㄹㄹ ㄹㄹㄹ 앙얼뤼폰 아글 얼ㄹㅣ냥
ㄹㄹ♣ 장난 ㄹㄹ ㄹㄹ 하. 랩흔 ㄹㄹㄹㄹㄹ 꺼될뻔.”

(안녕 베이비. 나 00이야. 글자 올린 이유는 내가 안 올리면 누가 글 올리겠냐? 장난이구. 심심하길래. 예쁜 00이는 꺼질게)

쌤 방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껏, 섭 (수업) 씬 (시험)

아까비→까비→깁→꺼 (아갑습니다.)

오Iㄱ=IIㅇㄱ듀 ㅎ1ㄱF 땡글ㅇㄱ넨 (외계어두 우리가 만들어낸)

울ㅎ1꺼희능 (우리끼리는)

한글희환iii (한글이야!!!)

울희능, 너누-IIㅎr그 놀긔 ㅅ1러iii (우리는 너네하고 놀기 싫어!!)

오1ㄱ=IIㅇㄱ 날음뽀르 (외계어두 나름대로)

ㄱH성01있꺼흥,iii (개성이 있다구!!!) ”

1) 다음 말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을 순서대로 꼽아 보세요.

① 나이스 ② 오케이 ③ 브라보 ④ 하이 ⑤ 캡짱

2) 다음 짝지은 말 가운데 청소년이 더 많이 쓰는 말을 골라 보세요.

① 패스하다 ----- 넘어가다

② 럭셔리하다 ----- 고급스럽다

③ 패스워드 ----- 비밀번호



- ④ 답글 ----- 리플
- ⑤ 닭튀김 ----- 치킨
- ⑥ 꿈 ----- 드림
- ⑦ 느낌 ----- 필
- ⑧ 왜 ----- 와이

3) 청소년이 말할 때 즐겨 쓰는 ‘줄—’이란 말의 뜻을 적어 보세요.

- ① 그만 하라. (됐다. 됐거든)
- ② 기분이 좋지 않다.
- ③ 신경 쓰지 않겠다.
- ④
- ⑤
- ⑥

2.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엿보기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양명희, 2005, 국립국어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사용에서 관심 가는 내용을 뽑아 보았다.

1) 말하기

부모님께 대한 아침 인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53.8%)이 아침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이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바쁜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격식적인 인사 생활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아침 인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다. 대체로 ‘안녕히 주무셨어요?’(51.6%)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잘 잤어요’, ‘잘 잤어’ 등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고 대답을 해 주었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대



답을 해 주든 대부분의 학생들(87.4%)이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의 인사 생활에서는 청소년들이 예의를 잘 갖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 생활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상대는 동성 친구(71%)였으며, 그 외에 어머니(14%), 이성 친구(7%)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특목고>인문계>실업계 순으로 동성 친구와 더 많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이야기하는 소재는 학교생활(36.8%)>운동 등 취미 생활(18.3%)>영화, 텔레비전 프로(14.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의 학생들이 강북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가 많다는 것을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강남의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40.5%)이 가장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대화 시간이 길고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대화 시간이 길었다. 실업계 학생들이 비교적 인문계 학생들보다 입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는 80.6%의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화는 하루에 ‘1~4회’ 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는 67.6%의 학생들이 5회 이상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화보다는 문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대화(채팅)는 절반이 좀 안 되는 학생들(44.3%)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나 2시간 이상 한다는 학생도 15.3%가 되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인터넷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는 주로 동성 친구(63.6%)이고 그 다음은 이성 친구(27.9%)였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체로 잘 전달한다(52.8%)고 생각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1/3 정도(33.6%)의 학생들만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한



다고 대답해 사회적 통념과 달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대부분(75.1%)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욕을 사용하며 욕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욕은 씨발(씨댕, 씨팔, 씨새끼), 존나(졸라, 조까), 미친(돌았나, 또라이) 순이었다. 학생들은 욕보다는 은어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41.4%) 많이 사용하는 은어는 즐, 뽀, 헐 순이었다.

2) 듣기

청소년들의 듣기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시간 조사 결과 학생들은 라디오(22.4%)보다 텔레비전(80%)을 약 4배 정도 더 많이 보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32%). 계열별로는 실업계, 인문계, 특목고 순으로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디오는 실업계, 특목고, 인문계 순으로 라디오를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도 텔레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대체적으로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특목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듣는 이유로는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5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높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로 ‘집중력이 부족해서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듣는다’고 대답한 학생들(38.5%)도 1/3이 넘었다.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재미있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집중력을 증대시켜 주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끝까지 잘 듣는 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듣는 것(72.8%)으로 응답하였으며, 인문계 학생들이 특목고나 실업계 학생들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읽기

청소년들의 읽기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신문 읽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무료 배포 신문(37.8%)을 가장 많이 보며 그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신문(32.5%)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종이 신문은 17.2%의 학생들이 본다고 대답하여 청소년들이 일간지 종이 신문보다는 무료 배포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신문을 훨씬 많이 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간지 종이 신문보다 무료 배포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신문은 기사의 양도 적고 흥미 위주의 기사가 많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주로 보는 면은 연예면과 스포츠면으로 연예면은 여학생들이, 스포츠면은 남학생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대체로 한 달에 1~2권의 책을 읽으며(43%), 거의 한 권도 안 읽는 학생들(38%)도 1/3이 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책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90%)으로 나타났다.

만화책을 거의 보지 않는 학생(47%)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학생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의 학생들이 강북의 학생들에 비해 만화책을 더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으며, 책을 읽은 후에도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아 효율적인 독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쓰기

학생들은 대부분(68%)은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손으로 편지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으로 편지를 쓸 때는 ‘심심할 때’, ‘안부를 전할 때’, ‘이성 친구에게 연애편지를 쓸 때’라고 응답하였는데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연애편지를 쓸 때 손으로 편지를 쓴다는 응답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왔다(39.3%).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4.6%), 사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1~2회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은 주로 성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기는 반 이상의 학생들(53.5%)이 거의 쓰지 않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쓰는 학생은 1/4(25.9%) 정도였으며, 매일 쓰는 학생도 적지만(6.4%)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사용을 많이 하여 하루에 5회 이상을 쓰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7.6%).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자 사용률이 높으며 계열별로는 특목고>인문계>실업계 순으로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림말(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는데(93.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자 사용뿐 아니라 그림말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림말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쉽기 때문(5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거리의 외국 문자 간판에 대해서는 1/3 이상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37.3%)고 응답하여 외국 문자 간판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 간판을 썼으면 좋겠다’고 한 학생 역시 1/3 정도였고, 1/5 정도는 ‘외국 문자 간판이 세련되어 보이고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한 간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더 나아가 외국 문자를 사용한 간판을 세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어휘 사용

경어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한 항목에서 학생들은 선생님께 질문할 때 ‘여쭙다’(26.3%)보다 ‘묻다’(39.6%)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실업계와 인문계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보다 ‘묻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생님들의 증언으로 ‘여쭙다’의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묻다’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생겨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존대 어휘에 대한 교육의 부실로 보아야 할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친구들끼리 말할 때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는 ‘꼰대, 쌤’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거나(39.8%),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51.5%), 과목을 말하는 것으로(45.5%)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높임말을 사용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였으며 부모님이나 형, 오빠, 누나, 언니와 이야기할 때는 높임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반말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화제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50.4%)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30.6%)으로 나타났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채팅언어, 전자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

- 채팅 언어, 이모티콘 같은 청소년들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볼 수 있는가?
- 언어가 아니기에 쓰지 말고,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전자말이 글말이나 입말과는 전혀 다른 의사 소통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3-1. 전자말, 전자 언어를 보는 눈

사람들은 마침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말의 몸으로 쓰기에 이르렀다. 전자로 소리의 파동을 보내서 글말로 바꾸고(전신), 목소리를 그대로 줄에 실어 보내고(전화), 목소리를 키워서 널리 퍼지게 하고(확성), 목소리를 붙잡아 두었다가 다시 되살려내고(축음·녹음), 드디어 입말과 글말을 손쉽게 붙잡아 두었다 다시 되살려내고(컴퓨터), 이것을 눈 깜박할 사이에 어디든지 주고받게 하는(인터넷, 손전화) 일들을 전자의 힘을 빌려 해내게 되었다. 입말이나 글말을 붙들어두고 되살려내고 주고받고 하는 기술로부터 이제는 전자 기계가 스스로 말하고 듣는 기술에까지 이르렀다. 전자 기계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말하기도 하는 날이 어느 사람의 삶 안에 들어오는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이처럼 전자공학의 힘으로 입말과 글말을 함께 아울러 쓸 수 있게 된 이들 기계의 말을 통틀어 전자말(電子語, electron language)이라 부른다.



전자말은 말의 진화에서 세 가지 놀라운 탈바꿈을 일으켰다. 첫째는, 입말과 글말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게 했다. 입으로 주고 귀로 받는 소리의 입말과 손으로 주고 눈으로 받는 글자의 글말을 함께 아우르게 되었다. 말하면서 곧장 사라지던 입말을 고스란히 붙들어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글말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목소리로써만 담아낼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느낌의 결까지 고스란히 지닌(입말) 채로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글말) 새롭고 놀라운 몸으로 탈바꿈했다.

둘째는, 주고받을 적에 걸리는 시간과 공간의 담을 헐어내 버렸다. 겨우 백 년 동안 같고 닮았을 뿐인데 전자말은 입말이나 글말로는 꿈조차 꿀 수 없이 넓은 공간을 눈 깜짝하는 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공간으로는 지구 구석구석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구 바깥을 떠도는 위성을 지나 다른 행성까지 가는 위성과의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간으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의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말과 글말이 간혀 있던 시간과 공간의 담을 헐어내고, 빛의 속도로 한없는 공간을 오가는 말로 탈바꿈했다.

셋째는, 그림과 사진을 말의 몸으로 끌어들었다. 입말의 몸인 소리와 글말의 몸인 글자를 아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자말은 온갖 그림과 사진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끌어들여 제 몸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른바 이미지니 영상이니 하는 것들을 말의 몸으로 끌어들여 전자말은 사람의 경험 세계를 엄청나게 넓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상에 없는 사물까지 그림으로 그려서 몸으로 삼아 전자말은 엄청난 세계까지 담아내는 말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놀라운 전자말의 탈바꿈은 인류의 문명사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글말을 쓰면서 인류의 문명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을 전자말에 이끌려 인류의 문명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다가오는 전자말의 문명이 어떤 것일지 가늠하지 못한다. 전자말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전자말이 글말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곧장 사라져버리는 입말을 붙들어두려고 생겨난 것이 글말이라면 전자말이 그 몫을 훨씬 더 잘 해내기 때문이다. 글말이 담아낼



수 없었던 입말의 소리까지 담아내면서 글자는 물론이고 그림과 사진까지 담아내는 전자말이 널리 쓰이면 글말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말이라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만만치 않은 기계 장치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장 커다란 아쉬움이다. 글말도 도구에 기대야 하지만 전자말의 기계는 그것과 견줄 수 없이 복잡하고 거창하다. 기계가 복잡하고 값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없어 불평등이 또한 글말보다도 훨씬 두드러진다. 기계 장치를 끊임없이 개량하여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하지만 그것이 조물주의 선물인 입말처럼 손쉬운 것에 이를 수는 도무지 없다. 다만 사람의 슬기가 전자말의 아쉬움을 어디까지 없애갈 수 있을지 내다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입말과 글말을 아우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세상을 끌어들이는 전자말은 입말과 글말과는 또 다른 규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소리와 글자와 그림과 사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자말의 몸이 입말과 글말이 입던 단순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글말을 끌어들이는 해도 일단 전자말이 되고 보면 글말의 규칙은 그대로 배겨나지 못한다. 샘, 방가, 추카 따위처럼 음절이 줄여지거나 ㅋㅋㅋ, ㅎㅎㅎ 따위처럼 음소만으로 줄여지거나 심지어 TT, TT, ^^, *^*, *^^* 같은 부호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말의 본질이 글말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글말의 규칙을 들이대며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일이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전자말의 규칙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일 뿐이다. (김수업, 『배달말 가르치기』, 46~ 48쪽)

3-2. 전자말 교육과정 고민하기

1) 전자말의 위상

전자말은 입말, 글말을 싸잡는 것으로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말이다. 전자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입말, 글말에는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국은 새로운 언어에 대해 각자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자말을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넣어 가르쳐 왔다. 우리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전자말의



내용체계를 세워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리그물(인터넷)이라는 큰 틀의 전자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매체는 주고 받는 수단, 전달 방법에 대한 고려, 소통방법, 속도 등도 같이 생각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누리그물에 대한 것도 교육과정에 넣고자 한다.

2) 전자말의 한계

전자말은 새로운 언어이고, 변화무쌍한 미래의 언어임에 틀림이 없지만, 현재 입말, 글말에 비해 갈래와 말본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말에 대한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미래의 언어사용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왜 보기, 보이기로 내용을 나누었는가?

국어교육의 내용을 보통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말에서는 이해와 표현의 내용을 보기와 보이기로 나누려고 한다. 보기는 ‘어떻게 전자말을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펼쳐놓았고, 보이기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펼쳐놓았다. 이는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보기와 형상화로 정리되는 것과 통한다.

4) 전자말 교육과정 예시 (6~8학년)

목 표		다양한 상황에서 전자말을 사용하기		
주기내용		1.영상물의 다양한 갈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2.전자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 3.누리그물에서 자기 주변의 이야기에서 시사적인 문제에 까지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학		6학년	7학년	8학년
년				
내	보기			
용		1.[영상-영상물]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기 2.[정보-TV] 인물 인터뷰	1.[영상-영화] 역사적 사건, 인물 성장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삶의 가치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1.[영상-영화] 영상, 영화 편집 방식 효과 알기 2.[정보-TV] 뉴스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보 이 기	질문방식, 영상 각도에 따라 달라짐을 자세히 살피기 3.[소통-누리그물] 게시판의 다양한 종류를 찾아보고 성격에 맞게 게시판을 이용하는 법 알아보기 4.[소통-손전화] 손전화로 짧은 글 보내는 방법 알기 5.[소통-손전화] 손전화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 알기	2.[영상-광고] 다른 영상매체와 영상광고의 차이점과 영상 광고의 표현기법 알기 3.[정보-누리상점] 누리상점, 가격 비교 누리집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기 4.[소통-변용] 문자 매체와 시각적 매체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해하기 5.[소통-누리그물] 누리모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알기	3.[소통-누리그물] 누리그물에서 찾은 풍자물의 효과를 알기 4.[소통-누리그물] 누리그물 각종 모임 분석하기
	1.[영상-영상물] 비슷한 주제, 소재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 포스터 각각 만들기 2.[정보-TV] 주변 인물 인터뷰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3.[소통-누리그물] 게시판, 답글, 댓글 등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신의 글 남기기 4.[소통-손전화] 예절에 맞게 손전화로 짧은 글 보내기	1.[영상-영화] 자신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2.[영상-광고] 광고 팀의 일원으로 광고를 만들기 3.[정보-누리상점] 자신의 기준에 맞는 최고의 누리상점, 가격 비교 누리집을 고르고 발표하기 4.[소통-변용] 문자매체를 시각적 매체로 변화하여 표현하기 5.[소통-누리그물] 관심있는 분야의 누리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기	1.[영상-영화] 영상을 찍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2.[정보-TV] 자신의 주변의 일에 대해 취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영상물, 취재물 만들기 3.[소통-누리그물] 풍자물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4.[소통-누리그물] 각종 누리집에 참가하여 자신의 관점이 드러난 글 올리기

4. 청소년 언어 문화와 공감하기

학교 가는 길

아침에 학교 갈 때면 항상 조마조마 한다. 파마하면 안 되고 화장하면 안 되고 가방 옆으로 된 거 때면 안 되고 리본 해야 되고, 후~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루라도 리본 안 한 날은 교문에서 걸릴까봐 조마조마 두근두근



친구 뒤에 숨어서 졸졸 따라가다가 걸리는 날엔 정말 끝장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고 학교엘 가면서도 내심 걱정이다. 즐겁게 해야 하는 등굣길이 나만 왜 이렇게 무섭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김밥00를 샀다. 나는 솔직히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치즈라면을 먹고 일명 식후뽕이라는 것을 했다.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상가 화장실에서 피웠다. 나무 젓가락 사이에 끼워서 피웠다. 손에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000선생님께서 우리들을 본 것이다. 그래서 손 냄새를 맡으셨다. 나는 나뭇가지로 짚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난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손에 냄새가 배긴 것 같다. 걸렸을 땐 정말 절망 속에 빠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말하신다고 하셔서 담임 선생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반성문을 썼고 어떻게 할지 월요일에 정하신다고 하셨다. 그날이 오늘이다. 조희시간에 뭐라고 안 하셨다. 정말 다행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워

오늘은 뭐 한다. 다음 시간엔 뭐 한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 해 와라. 인문계가 좋다. 특목고가 좋다. 너흰 고등학교 가면 밑바닥을 깔아 줄 거다. 실업계가 좋다. 정말 누구 말을 듣고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듣기도 싫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 평가하고 뭐라 말하고. 나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

내 처지를 생각해 주신다면

요새 부모님께서 잔소리가 많아지셨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잠은 왜 이렇게 일찍 자냐, 공부는 다 하고 자는 거냐, 컴퓨터 하지 마라, 죄다 나에겐 잔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부모님께서 내 걱정을 하셔서 그렇다는 것쯤은 알고는 있지만 괜히 심통이 난다. 내 여동생에게는 심하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유독 툭툭 쏜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 3학년 올라와서부터는 나도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그새 5분도 되지 않아 컴퓨터나 TV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꾸중 듣고 혼나고 가서 공부하라고 잔소리 듣고, 매번 벌어지는 일들이다.

늦깎이 사춘기가 무섭다고 했다. 요새 괜히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웃는 일이 거의 없다. 혼자서 스트레스 받아 만날 아프거나 하고. 부모님께선 모르실거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꿈을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것을. 만날 철없는 중3으로만 날 바라보시던 부모님께서는 내 타들어가는 속을 아마도 모르실거다. 부모님께서 한번만 더 내 처지를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텐데.(2006.3.9)

국립국어원 2007-3-3

바른 국어 생활

2007년 3월 7일 인쇄

2007년 3월 9일 발행

발행인/이상규

발행처/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 (02) 2669-9775

(02) 2669-9752
